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재한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Social Integration  
Experience of Migrant Businessmen in Korea :  
Focused on the Life History Approach



2020년 8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허 숙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재한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Social Integration  
Experience of Migrant Businessmen in Korea :  
Focused on the Life History Approach



2020년 8월

지도교수 김 영 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허 숙

이 논문을 허숙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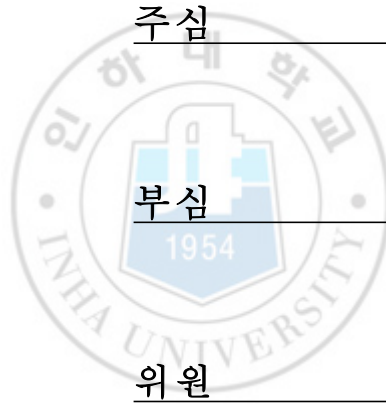
주심 \_\_\_\_\_ 인

부심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 제한 이주민사업가의 사업통합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허 숙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주민사업가를 대상으로 사업 경험을 생애사적인 관점에서 탐색하고 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사업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이주민사업가의 실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보완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주민사업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을 탐색하여 사회통합 모형과 모델의 요인 및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Esser(2001)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통합모델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 모형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여 사회통합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생애사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주민사업가의 사업 경험을 분석하였다. 생애사적 사례연구는 이주민사업가의 사업 경험을 생애시기에 따라 분석하고 이들의 사례 간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사업 경험이 있는 사업가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먼저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인하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기관 승인(No. 170519-1A)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하고 연구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최대한 배려하며 시작하였다. 자료 수집은 질적 연구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는 연구참여자 개인별로 5회씩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시행한 내용은 모두 녹음하고 전사하여 텍스트화 하였으며, 이것을 4장에서는 생애사로 구분하여

기술하였고, 5장에서는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기술하였다.

이주민사업가의 삶의 경험은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이주 초기, 현재, 미래의 계획으로 이주 시기별 생애사별 주제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의 이주 전 삶의 경험에서의 특징은 대개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고등학생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19세 전후의 이주 시기를 알 수 있었다. 이주하기 전에 가족이나 본인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취업을 준비하였다. 연구참여자 5명은 가족의 초국적 이주 경험이 없었던 반면에 8명은 가족의 초국적 이주 경험이 있었다. 초국적 이주 시기는 주로 1940년대 중·후반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유년 시절에 이루어졌으며 전쟁, 종교 등 정치·사회적 또는 유학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13명의 국가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 공용어와 민족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를 포함해서 2~6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민족 배경은 중국 출신 3명은 한족으로 중국 내 최대 민족이며, 요르단 출신 3명은 아랍인으로 요르단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 1명은 베트남 킨(Kinh)족으로 인구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파키스탄 출신 2명은 파키스탄 최대 민족인 편자브인이었으며, 1명은 파슈툰인으로 할아버지가 아프카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초국적 이주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3명은 우즈베크인으로 키르기스스탄인이 64.9%를 차지하고 있는 고국에서 13.9%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이주 형태는 부모를 따라 동반 이주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1명을 제외하고, 12명은 단독 이주하였다. 또한 베트남 출신 1명은 현재 미혼이었지만, 12명은 결혼, 가족 재결합 등을 통해 한국에서 가족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종교는 이슬람교가 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출신 3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베트남 출신 1명은 불교였다.

연구참여자의 한국 내 거주 기간은 베트남 출신 1명은 9년이었고, 12명은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고, 그 중에 20년 이상은 2명으로 한국 내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하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1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가 각각 1명이었다. 이주 초기 유학을 목적으로 이주한 중국 출신 3명은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학력의 변화를 보였지만 대부분 취업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학력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중고차 수출을 하는 사람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출신 3명은 국제 물류 사업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 초기부터 현재까지 1~4회 체류자격(VISA)을 변경하였고, 귀화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는 10명 중에 파키스탄 출신 3명, 중국, 요르단 출신 각 1명은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었다. 중국 출신 2명, 베트남 출신 1명의 연구참여자는 귀화 신청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 문화적응(Kulturation)에 해당하는 이주 초기 학문적 경험은 어학당에서 1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으며 한국어 교육 경험이 없거나 어린이집, 근로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지식 경험은 유학생으로 이주한 학교, 주변 지인, 또는 스스로 학습을 통해 능동적으로 습득하였다. 사업을 하기 위해 이주하여 아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사업 활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관광 목적(C-3)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를 하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이주민 창업 준비를 위한 센터 방문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적 자본 경험은 한국인으로부터 차별, 또는 고국 지인을 통한 도움, 한국인의 도움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여러 경험들이 있었다.

지위부여(Plazierung)에 해당하는 합법적 권리 경험은 이주민으로서 체류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사기를 당한 후에 해결하는 권리 경험에 관한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 위치 경험은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여 체류자격(VISA) 변경을 하게 되면서 사업 활동 범위 확대되는 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회적 위치를 확보

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수용 경험은 주변 상인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관계망의 원활함, 또는 사업 활로책을 위한 통역 지원 등 수용국 구성원으로서의 위치 확보하고 있었다.

경제적·제도적·정치적 자본은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기, 배신, 횡령 등으로 인한 제도적 자본의 필요성, 제도적 자본을 활용하고 있었다.

상호작용(Interaktion)에 해당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경험은 수용국인 한국에서 사업 활동 중에 직원, 고객 등 네트워크의 다양한 경험, 지방이나 지역 간 조직된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하고 있었다.

문화적 자본 경험은 동업자, 회사 직원 같은 문화적 자본의 풍부함, 종교, 또는 고국의 문화적 자본 형성 및 수용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자본 경험이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경험은 고객, 업체, 바이어(buyer) 등 사회적 기회 및 지역 사회와의 다양한 자본에 만족하고, 초국적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회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일시 또는 일체화(Identifikation)에 해당하는 자아의식 경험은 한국인하고 결혼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경험, 국적이 바뀐다고 해도 자신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하는 경험, 국적보다 진정으로 한국이 좋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시민의식은 수용국인 한국 사회의 가치에 동의하는 경험, 한국의 법 질서에 익숙하여 고국의 제도가 낯설다고 하는 경험, 아버지와 국적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 그리고, 한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소속감은 한국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는 경험, 한국에 온 8살부터 한국인이었다는 정체성, 죽어서도 한국은 제2의 고향이라는 정체성을 보였다.

사회통합의 대상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모든 이주민이 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사업 활동을 통해 초국적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들이 고국으로 영구 귀국하려고 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은 수용국, 즉 한국 사회로의 통합이기도 하지만 지속적



인 초국적 네트워크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고국 사회를 포함하는 초국적 개념이 될 수 있다. 즉, 사회통합은 수용국 사회로의 일방적인 통합이 아닌 고국 사회를 포함하는 동시적인 소속감 또는 정체성을 느끼는 다중 통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을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에서 제시한 범주들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문화적응(Kulturation)에서 한국 사회는 이주민사업가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한국 사회에 이주한 이주민사업가에게 소중한 기회는 젊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활용하여 사업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이주민사업가는 유학 목적으로 이주해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자신의 전공과 다른 학문 분야에서 언어를 포함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이주민사업가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언어를 포함한 지식,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에 참여하여 상호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문화를 수용하여 사회적 요구에 따른 문화적응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전문지식 역량은 다양한 지식과 언어를 포함한 다문화 역량의 제고를 통해서 이주민사업가는 다문화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었고 인적자본을 활용하여 안정감과 함께 다양성까지 존중하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지위부여(Plazierung)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거버넌스 소통의 역할을 하고 법이나 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회적 위치와 매체는 한국 사회와 이주민사업가의 의사소통에 대한 관계성을 통해 다원화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인 수용을 통하여 한국과 이주민사업가가 순응 및 적응의 하모니를 이루었으며 이주민사업가들은 서로에게 순응하며 다양한 연대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경제적·제도적·정치적 자본은 한국과 이주민사업가의 경제적·제도적 관계에서 자발적 협력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공존의 행복을 이루고 있었다.

셋째, 상호작용(Interaktion)에서 한국과 이주민사업가는 학문 및 전문지식에 대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이러한 관

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네트워크와 최대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문화적 자본을 통해 한국 문화와 고국의 문화를 연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공감 능력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였으며 사회참여와 지역연결망을 이용해 사회적 기여와 소통을 극대화하였다.

넷째, 사회통합모델의 동일시 또는 일체화(Identifikation)에서 이주민사업가는 한국 사회의 구성 내에서 일체화를 느끼고 이를 통해 스스로 동일시적 소속감을 갖기 위하여 다중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과 고국의 정체성이 아닌 제3의 정체성을 통해 공감하고 상호존중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해 한국의 가치를 내면화하였다. 또한 한국 국적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 사회의 국가정체성을 함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이주민사업가들이 한국 사회에서 사업 활동의 기회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 경험을 통해 Esser(2001)의 주제별 사회통합 의미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다양한 이주민사업가가 한국 사회에 진출하여 상생과 공존을 이루고,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재한 이주민사업가, 사회통합, 사회통합프로그램, 생애사적 사례연구

#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vii
표 목차 .....	x
그림 목차 .....	xii
<b>I. 서론</b> .....	1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1.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	4
1.3. 연구 동기 .....	6
1.4. 연구 동향 .....	9
<b>II. 이론적 논의</b> .....	14
2.1. 재한 이주민사업가의 현황과 지위 .....	14
2.1.1. 재한 이주민사업가의 현황 .....	14
2.1.2. 이주민사업가의 법적·사회적 지위 .....	21
2.1.3.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사회통합프로그램 .....	32
2.2. 이주민 사회통합정책과 모형 .....	48
2.2.1. 사회통합의 개념 .....	48
2.2.2.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	52
2.2.3. 이주민 사회통합 모형 .....	57
2.3. 소결 .....	64

III. 연구 방법 .....	67
3.1. 연구 개요 .....	67
3.2. 생애사적 사례연구 .....	69
3.3. 연구참여자 .....	72
3.4. 자료 수집 및 분석 .....	75
3.5.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	79
IV. 사회통합 경험의 생애사적 사례 .....	81
4.1. 생애사 개요 .....	82
4.2. 사회통합 경험의 생애사적 기술 .....	104
4.2.1. 이주 전 삶의 경험 .....	105
4.2.2. 이주 초기 삶의 경험 .....	115
4.2.3. 현재 삶의 경험 .....	134
4.2.4. 미래 삶의 계획 .....	160
4.3. 사회통합 경험 사례 간 분석 .....	171
4.3.1. 사회적 지위 및 배경 변화 .....	171
4.3.2. 이주와 사업의 계기 .....	183
4.3.3. 정체성과 시민의식 .....	187
4.4. 소결 .....	190
V. 사회통합의 생애사적 경험과 의미 .....	202
5.1. 문화적응 .....	204
5.1.1. 배움의 기회 .....	205
5.1.2. 전공과 다른 학문 .....	209
5.1.3. 전문지식 역량 .....	210
5.1.4. 전문지식 활용 문화적응 .....	213

5.1.5. 인적자본 활용 .....	216
5.2. 지위부여 .....	220
5.2.1. 합법적 권리 .....	221
5.2.2. 사회적 위치와 매체 .....	224
5.2.3. 사회적인 수용 .....	227
5.2.4. 경제적·제도적·정치적 자본 .....	230
5.3. 상호작용 .....	236
5.3.1.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 .....	236
5.3.2. 모국문화는 문화적 자본 .....	240
5.3.3.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기회 .....	245
5.4. 동일시 또는 일체화 .....	248
5.4.1. 다중정체성을 통한 일체화 .....	248
5.4.2. 한국 시민 되기 .....	252
5.4.3. 한국 국적을 통한 소속감 찾기 .....	255
5.5. 소결 .....	260
<b>VI. 결론 .....</b>	<b>262</b>
6.1. 요약 .....	262
6.2. 논의 및 제언 .....	270
참고문헌 .....	273
부록 .....	284
ABSTRACT .....	287

## 표 목차

<표 II-1>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 .....	15
<표 II-2> 이주민사업가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16
<표 II-3> 이주민사업가 활동이 가능 체류자격 현황 .....	19
<표 II-4> 이주민사업가 관련 법령 .....	23
<표 II-5>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교육 참여 절차 .....	38
<표 II-6>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정규 교육 과정 .....	39
<표 II-7>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참여 기관 및 참여자 현황 .....	41
<표 II-8>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참여자 국적별 현황 .....	42
<표 II-9>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체류자격(VISA)별 현황 .....	44
<표 II-10> 2017~2019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설 과정 수 현황 .....	45
<표 II-11> 2017~2019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참여자 현황 .....	46
<표 II-12> 사회통합의 개념 .....	50
<표 II-13>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모형 .....	53
<표 II-14> 제1차~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교 .....	54
<표 II-15>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 .....	61
<표 III-16> 연구절차와 내용 .....	68
<표 III-17> 사례연구의 절차 .....	70
<표 III-18>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	73
<표 III-19> 인터뷰 개요 .....	75
<표 III-20> 인터뷰 질문지 .....	76
<표 IV-21> 이주시기별 생애사별 주제 .....	104
<표 IV-22> 이주 전 직업과 이주 이유 .....	171
<표 IV-23> 이주 전 가족의 이주 경험과 사용 언어 .....	173
<표 IV-24> 이주 전 민족 배경 및 이주 초기 가족 형태와 종교 .....	175
<표 IV-25> 이주에 따른 학력과 직업의 변화 .....	177
<표 IV-26> 이주 후 체류자격(VISA)의 변화 .....	178

<표 IV-27> 이주에 따른 사업의 계기와 경험 .....	183
<표 IV-28> 연구참여자별 다양한 사업 활동 경험 .....	185
<표 IV-29-1> 사업 활동 경험에 나타난 정체성과 시민의식 .....	187
<표 IV-29-2> 사업 활동 경험에 나타난 정체성과 시민의식 .....	188
<표 V-30> 연구참여자별 사회통합의 의미 .....	202



## 그림 목차

[그림 II-1] 체류외국인 현황 .....	14
[그림 II-2] 이주민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 인식 항목 .....	36
[그림 II-3]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Ager & Strang .....	58





# I. 서론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이주민의 초국적 이주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2020년 4월, 2,176,725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2%를 넘어서고 있다(법무부, 2020). 2000년대 초반부터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유입되고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들이 급증하면서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대비해서 국민의 인식 변화와 함께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서 다문화와 사회통합의 담론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초국적 이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던 세계적인 이주의 흐름은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공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용국 사회의 적응 과정에서 가치의 공감과 합의라는 사회통합 과정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주민의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해결, 외국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문화다양성, 해외인적 연결망 구축을 통한 민간 외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생산 활동 촉진과 고용 및 소비지출의 확대 등 사회적 편익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존재하기도 한다(강동관, 2019).

우리 사회에서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연구나 실태 조사는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주형 이주민으로 누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할 때이다(정기선 외, 2011).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삶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어떠한지를 가늠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방

향은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이었다면,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은 이주민의 자립과 체계적인 정착 지원을 통한 통합이었다. 2018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상생과 통합의 협력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있다. 통합 부문에서는 이주민의 사회통합 및 정착을 위한 과제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2차 계획에서 강조하였다면 3차 계획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민의 체류 허가, 영주 자격, 국적 취득을 연계하고 있다. 국적 취득을 위한 면접시험의 면제와 국적심사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많은 이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주민(F-6)을 비롯하여 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가진 이주민과 유학(D-2)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비자를 가진 이주민사업가들도 있다. 이처럼 국제화와 세계화로 인해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창업 또는 사업화하는 것은 소규모 기업의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사업가<sup>1)</sup> 중 법인사업자는 5천여 명 정도이고, 개인사업자의 수는 공개된 정부 공식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주민사업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주민사업가들 역시 한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고 영주 자격(F-5)을 취득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받기도 한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면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자녀, 동포 집단 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이주민사업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주민사업가가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한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 현실과 방향, 국가에서 파악 안 된 실제적 어려움 등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비전문취업(E-9) 자격 이주

1)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주민사업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개인사업자 포함) 체류자격 비자(VISA)를 가지고 있었거나, 현재 가지고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가이다.

둘째, 취업 및 창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비자(D-8, D-9, F-2, F-4, F-5, F-6 중 하나의 체류자격)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가이다.

셋째, 사업 활동을 하다가 귀화한 후에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업가이다.

넷째, 위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면서 1인 이상의 국민이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자격을 가진 사업가를 말한다.

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강화하겠다는 차별배제의 정책 계획이 있다. 2000년대 초반 이주근로자로 이주하였지만 사업가로서 경제 활동을 통해 한국 경제에 기여하면서 국적을 취득했거나, 취득하여 정주하려는 본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이주민사업가는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사업가들은 한국으로 이주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사회에서 1인 이상 사람을 고용하며 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제한하였다.

특히 이주민사업가는 수출 및 한국인 직원 고용 등으로 인해 한국인 일자리 창출 및 한국 경제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에 필요한 이주민사업가의 한국사회 적응 경험의 양상은 어떠한지, 이들의 경험은 사회통합을 위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와 이들을 위한 정책적 고려할 점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주민사업가를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사업 경험을 생애사적인 관점에서 탐색하고 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사회통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이주민사업가의 실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보완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의 현실적인 접근과 사회통합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주민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사회문화적, 또는 정치경제적 적응 경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민사업가들의 사회통합 경험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재한 이주민사업가의 사업 경험은 생애사적으로 어떻게 기술되는가?

연구 문제 2. 재한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연구문제 1은 사업의 시공간성에 근거하여 재한 이주민사업가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기까지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즉 이들이 한국사회로 이주하여 사업하기까지 나타난 배경과 한국사회로 이주하여 적극적으로 사업하게 된 시간적, 공간적, 사건적 배경의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특히 이주 전 시기와 한국으로 이주 후 사업 경험에 대한 주요 사건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들을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연구문제 2는 재한 이주민사업가들의 사업 경험을 사회통합의 요소에 따라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에서 제시하는 문화적응(Kulturation), 지위부여(Plazierung), 상호작용(Interaktion), 동일시 또는 일체화(Identifikation)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이러한 사회통합 요소들이 사업가의 사업 경험과 어떻게 발현되는지 연구한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I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 동기를 서술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보완하며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재한 이주민사업가들이 한국사회에서 사업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적응과 정치경제적 적응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을 도출하여 연구목적에 부각한다. 또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연구자의 연구동기와 선행연구의 경향을 통하여 연구문제의 특성을 제시한다.

II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먼저 재한 이주민사업가들의 국적과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이주민사업가의 특성과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사업가의 어려움에 대해 강조한다. 또한 이주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배경과 현황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이주민 사회통합정책과 관련된 이론적 관점을 살펴본다. 이주민사업가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및 사회통합모델을 제시하여 사회통합에 대한 관계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III장은 연구의 설계 및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자료 수집과정과 자료분석에 대해 기술한다. 먼저 연구 설계를 통하여 연구의 개요 및 연구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참여자 선정과정과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또한 자료 수집과정에서는 질문지 구성 및 심층인터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분석방법에서는 각 사례를 생애사적 관점에서 경험을 분석하고 해석할 것이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IRB 승인과 연구윤리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IV장은 연구결과로서 이주민사업가의 사업 경험을 개인의 생애사적 관점에서 기술할 것이다. 이주민사업가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이나 한국에서 사업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 탐색하고 한국으로 이주 후 사업을 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 모색한다.

V장은 이주민사업가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한국사회와 통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이는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에서 제시하는 문화적응(Kulturation), 지위부여(Plazierung), 상호작용(Interaktion), 동일시 또는 일체화(Identifikation)의 네 가지 범주에 따른 경험을 통하여 사회통합경험을 살펴본다.

VI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을 한다.

본 연구는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을 통해 이주민사업가의 정책적 제언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론적 논의로서 사회통합의 개념과 한국의 사회통합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1.3. 연구 동기

연구자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삶과 적응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한국어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회통합에 관심으로 가지게 되어 2006년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였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이주민은 저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한국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보다 많은 이주민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대해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10년 법무부에서 위탁하여 인하대학교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에서 주관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2011년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박사과정에 입학하면서 보다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이주민들을 만나게 되었다.

다문화교육 연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것은 다양한 이주민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직접적인 어려움에 비해 정책과 제도는 일부 이주민 대상으로 중복 수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다양한 이주민들이 한국어가 부족하고 한국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도 매우 심각하였다.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해 학문적 갈등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 학문적, 교육적인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법무부에서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2012년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sup>2)</sup> 거점운영기관인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다

2) 2009년 법무부에서 이주민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 운영한 이후 2012년부터 이주민의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사회통합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3조의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 제21조, 국적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1086호),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관리 규정(예규) 등에 근거한다. 참여 대상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한 귀화자 제외)이며, 귀화 신청시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귀화면접심사를 면제받는다. 또한 영주자격 신청시 혜택은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기본소양 요건 충족 인정, 실태조사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 그 외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혜택은 가점 등 점수 부여,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348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고, 누적 참여자 수는 2020년 5월 기준 280,965명이다.



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행정과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실무를 하면서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시행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학문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9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국적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20여 명의 이주민들이 방문했다.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이주근로자, 그리고, 이주민사업가들이었다.

“저는 2003년에 한국에 왔고,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한국어를 잘 몰라서 많이 불편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센터를 못 찾았어요.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 국적을 받아서 가족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sup>3)</sup>

절실함이 가득한 이들의 눈빛과 또렷한 말투는 지금도 선명하다. 이미 8월에 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해 3월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배우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은 대단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간씩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을 개강했고, 이듬해 이들이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평가에 응시할 때까지 진행하였다. 2시간 수업이었지만 학습 경험이 없어서 교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한동안 어색했던, 이주민사업가 S는 이렇게 말했다.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도와서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을 다니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하니깐, 정말 좋아요. 이제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도전하는 이주민들이 꿈을 실현하고, 한국 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이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사업가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만큼 제도의 현실에 대한

---

3) 이주민사업가 S는 2003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사업이 바쁘다 보니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어서 말하기는 2급, 읽기, 쓰기는 1급 정도였다. 귀화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했는데, 친구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했다.

고민과 실제적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이주민사업가들이 미래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상생과 공존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 1.4. 연구 동향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이주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을 전후로 다양한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활발해지기 시작한 사회통합정책 연구는 다양한 사회현상으로 부각되면서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 운영 실시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체계와 다양한 정책의 요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분석한 이주민 사회통합과 관련된 연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이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연구(최연선, 2009; 이성순, 2010; 노정옥, 2012; 조항록, 2011; 길강묵, 2011; 황미혜, 2012; 손병덕, 2012)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연선(2009)는 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국내체류 외국인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단일민족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또한 노정옥(2012) 역시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을 고찰한 결과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관련 법령의 통합과 다문화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제기, 중앙부처의 다문화이민 정책 전담기구를 두어 이주민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의 일원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항록(2011)은 사회통합정책 관련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사회통합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길강묵(2011)은 선진수용국가와 달리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의 업무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 종합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성순(2013)은 다문화가족 정책, 외국인 정책 등 사회통합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통하여 에이저 스트랭의 사회통합 분석틀을 적용하여 통합의 토대, 촉진요소, 사회적 관계, 통합지표와 수단 등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과 그에 따른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수별 유기적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혜련·임채완(2014)은 한국의 이주민 사회적응과 문화적 공존이 가능한 사회

통합정책모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한국사회는 동화 및 차별적 배제모형에 가까운 사회통합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통합이념, 국민여론, 이주민의 인식과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논증한 결과 상생소통모형을 제시하였다. 상생소통모형은 이주민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상호 존중하며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그는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치활동 참여도를 제고하여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주민의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형규·윤홍식(2017)은 외국인노동자와 같은 이주민들이 공동체 내에서 또다른 유형의 복지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방안을 모색하였다. Esping-Anderson의 관점에서 복지 체제가 사회통합정책의 구체적 설계와 전개 과정과 사회통합정책의 실증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복지수준이 상승할수록 이주민의 노동시장 접근 기회가 확대되며 사민주의 체제와 보수주의 체제는 노동시장 접근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밝혔다. 사회통합정책성과를 담보하여 정의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에 관한 연구(설동훈·김명아, 2008; 전경옥 외, 2013; 윤건·박준, 2019)이다. 설동훈·김명아(2008)는 한국의 이주민을 위한 이주민 사회통합 지표체계와 지수 개발하여 다양한 이주민의 한국사회적응 및 국민의 다문화이해수준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준영·김혜영(2012)은 한국의 16개 광역시도 사회통합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통합지표를 구성하고 지역 간 사회통합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한국실정에 맞는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사회통합 지표를 구성하였다. 연구를 통해 지역별 상이한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지역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개발 및 추진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윤건·박준(2019)은 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따라 사회통합지수 지표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지표체계를 검증화하고 지수화하였다. 2013년부터 사회통합의 수준은 낮게 나타났고 2016년까지 연도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 수준도 낮아 결속의 하위지수의 참여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의 사회통합정책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와

미국 등 다문화주의 모형의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는 연구가 주류를 차지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다문화주의 모형의 성공사례와 다문화 관련 비판적 담론을 연구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둔다(백석인, 2008; 이유진, 2009; 강휘원, 2010; 전경옥·김현숙, 2010; 김호연, 2011; 박진경·임동진, 2012; 박진경, 2012). 다문화주의 모형 사례 연구는 캐나다, 미국, 스웨덴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스웨덴은 다문화주의 모형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장기간에 걸쳐 사회통합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정비해왔고 실생활에 적용해왔기에 스웨덴이라는 사회는 외국 이주민들에 대한 포용력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민족적 다양성과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는 다문화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스웨덴은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이주민에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한편 스웨덴어를 가르치기 위한 단계적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은 유럽에서 비교적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장 개방적인 난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백석인, 2008).

다른 한편, 캐나다는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캐나다는 비록 이민 국가이지만, 심각한 민족갈등 없이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것은 캐나다에 적절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이유진, 2009).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캐나다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캐나다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사회통합 모델의 성공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통합전략을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캐나다와 기타 다문화주의 모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하는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의 사회통합 성과를 중심으로 경험적 자료를 동원하여 정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체성으로 받아들여 가시적인 통합성과 캐나다 외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다문화주의 모형 사례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교육, 복지,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수인종들을 동화주의, 통합주의 및 문화다원주의라는 통합정책의 모델을 표방하며 미국사회로 통합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였다(강휘원, 2010). 미국 이주민 사회통합과 관련해 서는 미국 다문화주의 특징과 시간이 흐르면서 부각되는 딜레마를 검토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또한 미국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빈번해지고, 무분별한 다

문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김호연, 2011).

둘째,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차별적 배제 모형의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구 사례를 논의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강휘원·강성철, 2010; 정재각, 2011; 이성순, 2011; 박영준, 2013). 예를 들어,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이주민 정착·통합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 및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독일의 사회통합 노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강휘원·강성철, 2010). 또한 독일의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주정책과 이주민 통합을 두고 일어난 정책의 갈등과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도 있다.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갈등의 문제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갈등의 잠재성을 갖고 있으며, 표출되고 있는 문제이기에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정재각, 2011). 한국과 마찬가지로 단일민족주의를 고수했던 독일의 최근 이주민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교육을 고찰하여 한국의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착에 있어 기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다(이성순, 2011).

일본도 차별적 배제 모형을 중심으로 이주민을 통합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일본은 이주민을 통합시킴에 있어서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문화공생의 핵심은 일본인과 외국인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 가는 것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귀화정책 등을 통해 일본의 사회통합정책은 다문화공생 정책과의 간극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은 비록 다문화공생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적 포섭과 배제라는 통합 방식으로 이주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박영준, 2013).

셋째, 동화주의 모형을 실행하고 있는 서구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이다(최동주, 2009; 설동훈·이병하, 2012; 김승민, 2013). 영국 정부는 최근 이민 관련 규정과 법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자국이 받아들인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매우 섬세한 배려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된 사람들만을 받아들이지만, 이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질 높은 삶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동주, 2009). 노르웨이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관련 정책 환경과 사회통합정책 현황 및 추진체제로 나누어 고찰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표적이다(설동

훈·이병하, 2012). 프랑스도 동화주의 모형을 중심으로 이주민을 통합시키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무슬림 이주민 2~3세대들이 주도한 소요사태는 프랑스 이주민 통합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프랑스 이주민 통합정책 실패 책임의 상당 부분은 이주민을 포용하지 못한 프랑스 사회와 이민정책에 있다.

위의 연구 동향 검토를 보면 이주민 관련 연구는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 동포 등 특정집단 실태조사 및 정책 관련 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 이주민사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과정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 또한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사업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사업 경험을 통해 사회통합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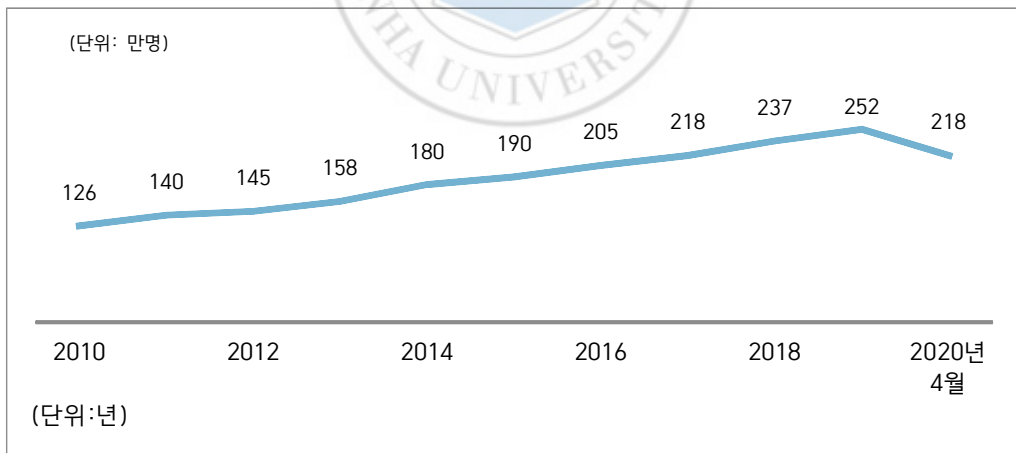


## II. 이론적 논의

### 2.1. 재한 이주민사업가의 현황과 지위

#### 2.1.1. 재한 이주민사업가의 현황

한국에서 개최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결혼이주민, 근로자,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2010년 126만여 명이었으나, 지속적인 증가로 2019년 252만여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2020년 초 전 세계로 확산된 COVID-19로 인해 고국으로 귀국하는 이주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2020년 4월 말 기준 2,176,725명으로 30여만 여명이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그림 II-1]의 체류외국인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1] 체류외국인 현황(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년 4월호)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은 2020년 4월 말

기준 1,249,026명으로, 체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비자(VISA)를 가지고 있다. 비자(VISA)의 자격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며,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 (단위:명)

문화예술 (D-1)	유학 (D-2)	일반연수 (D-4)	취재 (D-5)	종교 (D-6)	상사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계
36	110,192	53,869	92	1,498	1,287	5,810	2,109	1,249,026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홍행 (E-6)	특정활동 (E-7)	비전문취업 (E-9)	
2,180	14,021	3,165	211	577	3,226	20,539	262,065	
선원취업 (E-10)	방문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영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H-2)	기 타	
16,710	119,041	43,957	21,949	155,442	131,302	213,726	66,02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년 4월호)

위의 <표 II-1>과 같이 등록외국인은 총 1,249,026명으로 이들의 비자 자격은 2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D-1에서부터 D-9까지 문화예술 분야로부터 유학, 일반연수, 취재, 종교,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으로 나눌 수 있다.

E-1부터 E-10까지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홍행, 특정활동, 비전문취업, 선원취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F-1부터 F-6까지는 방문동거, 거주, 동반, 영주, 결혼이주민으로 구분하고 있고, H-2는 방문취업 자격이다.

사업 활동이 가능한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 사업가의 투자금액별, 업종별 현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부 통계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F-2(거주), F-4(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사업가의 투자금액별, 업종별, 지역별 사업 활동 현황에 대해서



도 정부 통계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사업가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VISA)의 종류와 경제 활동 범위는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이주민사업가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D-8 (기업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 제외), 법인에 투자(D-8-1).</li> <li>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벤처 투자(D-8-2).</li> <li>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개인기업에 투자(D-8-3).</li> <li>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기술창업(D-8-4)</li> </ol>
D-9 (무역경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li> <li>2. 회사 경영, 영리사업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려는 자</li> </ol>
F-2 (거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li> <li>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li> <li>3.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li> <li>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li> <li>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li> </ol> </li> </ol>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p>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p> <p>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p> <p>5.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6.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p> <p>7.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p> <p>8.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p>9. 영주자격(F-5)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 체류하려는 자</p> <p>10. 취업활동은 법령에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거주자격 취득 직전 분야의 활동여부에 따라 체류자격의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구분</p>
<p>F-4 (재외동포)</p>	<p>1.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즉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018년 5월1일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2018년 5월1일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F-4(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p> <p>2. 중국·구소련지역 동포 대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p> <p>1) 국·내외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정부초청 장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60세 이상 동포</p> <p>2) 법인 기업체 대표, OECD 영주권 소지자 등</p> <p>3) 국내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외국인 등록 후 1년 경과자)</p> <p>3.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단,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함</p> <p>1) 단순 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F-5 (영주)</p>	<p>1.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p> <p>2. 체류기한의 상한 없음</p>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F-6 (결혼이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의 배우자</li> <li>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4.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li> </ol>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 2020.05)

위의 <표 II-2>에서와 같이 사업가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자격이다.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체류자격은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이며, D-8(기업투자) 체류자격의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최대 5년이다. D-9(무역경영) 체류자격의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최대 2년이다. F-2(거주) 체류자격은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최대 5년이다.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재외동포로서,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에 비교적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최대 3년이다.

F-5(영주) 체류자격은 한국에서 일정 기간동안 거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한국에서 장기 또는 영구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없으며, 체류자격에서 제한하는 경제활동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F-6(결혼이민) 체류자격은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이며, 1회 최대 3년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F-5(영주) 체류자격하고 동일하다.

이와 같이 사업가 활동이 가능한 6개 체류자격 중에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는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 이주한 경우이다. 그 외에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은 최초 이주 목적 이외에 사업 활동을 포함한 경제 활동에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또한 1회 부여되는 체류

기간은 최소 2년부터 5년까지이고, F-5(영주) 체류자격은 체류 기간 상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 <표 II-3>은 사업가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현황이다. 체류자격별 현황 전체 인원 중에 D-8(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제외하고 사업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전국적인 지역별, 업종별 분포, 업종별 활동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공개된 정부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3> 이주민사업가 활동 가능 체류자격 현황

구분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거주 (F-2)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6)	계
인원(명)	5,810	2,109	43,957	462,718	155,442	131,302	801,33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년 4월호)

위의 <표 II-3>에서와 같이 사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사업가들은 고국과의 초국적 네트워크 활용 여부를 포함한 사업 활동 영역 및 업종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생활 및 사업 환경에 따른 정책 수요 충족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창업 상담이나, 문제해결 교육 등 정책 서비스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이주민사업가의 이론적 근거인 자본주의적 사업가는 모든 사회, 종교, 인종 집단에서 발견되지만 주류로부터 제외되거나 배제된 소수 인종, 종교 집단에서 더 흔하게 발견된다는 Werner Sombart의 견해(Martinelli, 1994)와 지배적 가치의 외부에 위치한 집단에서 사업가의 출현이 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Joseph Alois Schumpeter의 견해(Hoselitz, 1963)에서 찾을 수 있다(박우, 2017).

Hoselitz (1963)는 특히 이주민사업가는 혁신적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고 정치적 권력에서 제외되고 지배적 가치의 외부에 위치한 집단에서 사업가의 출현이 더 보편적이라고 하였다.

이주민사업가는 다원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수요-공급의 상호작용, 사회적 자본 등 사업가 출현과 역할에 대하여 관계적 접근이 필

요하다(Bates, 1985).

사업가의 형성에 대한 수요의 측면에는 같은 민족(종족)의 특수한 소비자 수요, 지역의 산업적 혼합, 중소기업의 부활 또는 성장, 기존 기업 소유자의 퇴출 및 이주에 의한 빈자리 사슬, 정치적(혹은 정책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급의 측면에는 계급적 자원과 에스닉 자원이 있으며, 계급적 자원은 bourgeoisie라는 직업적 문화를 포함한 자원으로서 시장경제에서만 번성하는 것으로 간주했다(Szelenyi, 1988). 계급적 자원은 사업가 본인 혹은 가족이 이주 전 고국에서 사업가였을 경우 이 계급적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곳에서도 사업가로 활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주민사업가는 사업가인 동시에 이주민 또는 종족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 종족적 자원은 계급적 자원과 혼재되어 동원되고 활용된다. 종족적 자원에는 혈통, 결혼제도, 신뢰, 사회적 자본, 가족주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주민사업가의 활동에는 사회적 연결망, 즉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민족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한국인과 사회적 관계를 가지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망 즉 상호작용은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민족 공동체, 또는 한국인과 사회적 관계, 즉 상호작용을 하는 이주민 사업가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당위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2.1.2. 이주민사업가의 법적 · 사회적 지위

이주민이 한국 사회로 이주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다양한 법적 또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문제와 논의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민사업가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주민으로서, 사업가로서 법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지위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의미하며, 이주민사업가의 법적 지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3장 10조 2호(일반체류자격)에 외국인은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기체류자격은 유학, 연구,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장 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써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은 사업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둘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재외동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째,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이라고 명시하였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국적동포’라고 명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주민사업가는 두 번째 정의에서 명시한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VISA)을 부여할 수 있고,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장 제1조(목적)에 재한외국인이 대한민

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제2조(정의) 1호에서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장 제2조 2호에서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장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에는 재한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 제1항(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민사업가 중에 결혼(F-6) 이주민의 체류자격(VISA)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민(F-6) 이외의 체류자격(VISA)을 가진 이주민사업가들은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의료 지원 등 혜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논의를 기대하여 본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장 제16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이주민사업가는 한국 사회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할 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정책 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합법적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4호를 보면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외국인투자를 제한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에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을 비롯한 민원사무 처리, 창업보육 등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에서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제도의 현황 등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 규제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 제1항 제2호 다 목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설립한 사업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의 경제 활동에 근거가 되는 법령은 지원 대상의 사업 활동 영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기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주민사업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 내용은 다음 <표 II-4>와 같다.

<표 II-4> 이주민사업가 관련 법령

구분	이주민사업가 관련 법령 내용
출입국관리법	<p>제3장 제10조의 2(일반체류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기체류자격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li> <li>2. 장기체류자격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li> </ol> <p>①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장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li> <li>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li> </ol>

구분	이주민사업가 관련 법령 내용
	<p>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2절 사회통합프로그램  제39조(사회통합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p> <p>제40조(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p>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p>제3장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업 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p> <p>제2절 사회통합프로그램  제48조(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어교육</li> <li>2. 한국사회이해 교육</li> <li>3. 그 밖에 외국인이 사회적응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li> </ol>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li> <li>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li> </ol>



구분	이주민사업가 관련 법령 내용
	<p>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 라 한다)</p> <p>제5조(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p> <p>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p> <p>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p>제1장</p> <p>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li> <li>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li> </ol>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장</p> <p>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p>

구분	이주민사업가 관련 법령 내용
	<p>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 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p> <p>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p> <p>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와 육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7조(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등의 처우)</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p> <p>제4장</p> <p>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장</p> <p>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p> <p>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는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구분	이주민사업가 관련 법령 내용
외국인투자 촉진 법	<p>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li> <li>2.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li> <li>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li> <li>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기업(설립주인 법인 포함)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li> <li>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li> </ul> </li> <li>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li> <li>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li> <li>3) 외국투자가</li> <li>4) 3)의 투자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li> </ul> </li> </ul> </li> </ol> <p>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국인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li> <li>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li> <li>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li> <li>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li> </ul> </li> </ol> <p>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를 둔다.</li> <li>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에</li> </ol>

구분	이주민사업가 관련 법령 내용
	<p>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5조의 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p> <p>①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p> <p>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설적 등 정비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p> <p>⑤ 고충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 실적 등 정비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p>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 포함)</p> <p>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p> <p>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위의 <표 II-4>에서와 같이 이주민사업가 관련 법령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고용 또는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주민사업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설립한 사업가로 명시하고 있다.

위의 법 규정 요건 중에서 이주민을 포함한 이주민사업가에 대한 정책 대상 내용 규정도 확인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사증(VISA) 발급 또는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주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과 그 자녀의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도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마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 한국어교육, 제도, 문화 교육, 그리고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주권자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결혼이주민이 국적 취득 후 3년간

지 12조 1항에서 명시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보육 및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외국국적동포’의 경제 활동 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이주민사업가를 위한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투자와 관련된 상담과 안내를 포함하여 민원 사무를 처리하고 창업보육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사업가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고충 처리 기구를 조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의 법적 지위는 체류자격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되고 명시되어 있다. 체류자격별 처우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고충 처리 기구의 운영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이나 영주자격, 국적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통해 정착하려는 이주민사업가들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주민사업가의 사업 활동 영역에서 이용도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는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각 분야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며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는 대인 관계적으로 접근하고, 사회학에서는 사회구조 속에서 구조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Leary et al., 2014).

사회적 지위는 개인이 지각하는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나 문화적 위계에서 가질 수 있는 권력, 영향력, 통제력을 의미한다(Berger et al., 1980; Magee & Galinsky, 2008). 또한 가족의 수입이나, 직업적 위치로 측정되는 객관적인 지위와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지위로 구분된다((Berger et al., 1980; Magee & Galinsky, 2008).

김가운(2019)은 사회적 지위를 교육 수준, 직업을 포함하는 사회적 요인과 소득, 재산 등의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교육 수준은 소득과 직업의 지위 획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소득은 교육을 거쳐 직업으로 연결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지위를 시사할 수 있다(Snibbe & Markus, 2005). 또한 직업은 사회구조 속에서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육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직업은 상대적인 존중 또는 또는 상대적 가치 등이 반영되어 있다(Hauser & Warren, 1997). 과거와 달리 현대의 사회구조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획득되는 성취 지위에 따라 계층 간 이동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직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Blau & Duncan, 1967). 이와 같이 사회구조 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지위를 객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주민사업가의 사업 활동에서 보이는 행동이나 태도는 사회적 지위를 이해하는 주요한 방법이기도 하다(Magee & Galinsky, 2008).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또는 사업체에서 직업, 또는 재정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적 지위를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주요하고 강한 동기일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위는 행동, 정서를 포함하여 사회적 권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지영·손영우, 2018).

이처럼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업 활동을 통한 사회적 지위를 수행하고 있지만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형태나 운영 방식을 통한 수행 의지나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 노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역할 수행에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상우(2016)는 이주민이 수용국의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되면, 구성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공동체에 대한 이주민의 이중적 소속감이나 정체성에 대한 전제에서 사회통합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적 취득을 사회통합의 개념과 구분하여 지역 공동체 주민이나, 시민 개념으로의 전환이 통합의 기준을 논할 때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주민사업가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를 통해 법적·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사회통합 과정을 고국에 대한 이중적 소속감, 정체성과는 별개로 사회통합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법적·사회적 지위 역할

수행을 하며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통합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

### 2.1.3.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최근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이주로 인해 다양한 초국적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적응이란 생물이 서식 환경에서 보다 유리하도록 변화하는 과정으로 생물학에서 유래되었으며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간이 사회적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Ghoshen, 1991).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처하였을 경우 그 상황의 요구에 적응하는 동시에 환경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면서 최적의 상태를 성취하고자 한다(김동배, 권중돈, 2006).

그러므로 Chi(2001)은 적응에 대하여 개인이 문화적으로 변화된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겪는 역동적인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상호 간에 기능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적응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대인관계, 제도 등 광범위한 체계가 모두 포함된다(김민정, 신성만, 2010). 그러므로 이주민의 사회적응은 이주사회가 이주민의 문화다양성을 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주민들은 이주사회의 특성 및 개인의 자발적인 태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의미의 적응은 한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어울리는 상태 및 과정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킨다(이재민, 황선영, 2008).

정천석·강기정(2008)은 적응에는 두 가지 차원의 과정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 맞추는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즉 적응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을 벗어나 다양한 활동 및 환경과 상호작용을 능동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적응은 문화가 다른 집단이 접촉하였을 때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동적으로 일어난다. 특히 이주를 통한 적응은 두 집단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다.

문화적응 개념은 주류문화에 대한 몰입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민문화로 종결되는 하나의 연속성의 개념이다. 이주민의 문화적응은 실제 주류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나 이주사회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래 자신의 문화에 대한 몰입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민문화에 대한 몰입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 해당되나 실제적으로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적응에 대해 Oberg(1960)는 이주민들이 이주국에 체류하면서 새로운 문화 환경에 진입하면서 보이는 심리적인 반응을 문화충격이라고 하였다. Searle & Ward(1990)은 문화적응을 심리적인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적응은 개인적 문화정체성과 정신건강, 새로운 환경에서의 만족감과 성취를 말하고 사회문화적 적응은 새로운 환경과 연결된 가족생활, 직장, 학교 등의 영역에서 매일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Frongillo(2003)는 문화적응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단일차원 모델로서 이주민들이 오래된 사회적 측면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회의 측면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주민들이 비 문화적응의 출발선에서 완전한 문화적응까지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문화를 동시에 공존하는 제로섬과 같은 협상으로 새로운 문화를 획득하고자 자기 문화의 일부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차원 모델은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측면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의 문화적 측면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의 독립체로 이해하고 이전의 사회와 현재의 사회에 대한 수용과 집착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리고 Berry 외(1988)는 이주민의 적응과정을 접촉이전단계, 접촉단계, 갈등단계, 위기단계, 적응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접촉이전단계는 이주를 결심하는 시기이다. 이 과정은 개인의 이주동기와 사회적 요인이 포함된다. 개인적 동

기에는 실패, 좌절, 욕구 등이 있으며 사회적 요인은 천재지변, 가난, 인구과밀 등 자신의 문화권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권으로 이주하겠다고 결심하는 단계이다.

둘째, 접촉단계는 이주 후 자신의 문화와 이주국의 문화가 접촉하여 문화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 이주민들은 새로운 문화 접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셋째, 갈등 단계는 이주민들이 이주한 사회에서 문화적 압력으로 인해 개인 집단 간 갈등을 야기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이주민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넷째, 위기 단계는 갈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긴장과 갈등이 누적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이주민들이 이주한 상황에 대해 후회하거나 좌절, 자살, 공격적인 행동, 술이나 약물남용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적응단계이다. 이 단계는 갈등기와 위기를 넘긴 이주민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단계이다.

이처럼 문화의 적응과정은 정형화되어 나타나지 않지만 개인의 사회와 문화, 관습, 욕구,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날 수 있다.

또한 Gordon(1964)은 이주민의 적응과정을 여섯 단계로 나누었다.

첫째, 문화적응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이주국 환경에 접촉하여 문화적 규범에 적응하는 단계이다.

둘째, 구조적 동화는 새로운 사회와 제도적인 구조를 수용하는 단계이다.

셋째, 병합은 사회의 관습과 제도에 통합되는 단계이다.

넷째, 동일시는 새로운 사회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태도와 가치관의 동화는 기존 시민의 태도와 신념, 가치관과 일치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동화는 기존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합치하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적응은 지역의 이주 또는 국가의 이주를 통하여 흔하게 발생한다. 문화적응은 다른 문화를 접촉하면서 이전의 문화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갈등하며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

또한 Berry(1997)는 이주민들이 이주사회에서 문화적응에 있어 다양한 형태

를 보인다. 이들은 이주사회의 문화의 속성에서 이주민들이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문화적응에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동화유형으로 이주민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이주사회에 흡수하는 유형이다.

둘째, 분리와 차별유형은 자신의 문화 유지에 가치를 두고 이주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이주사회와 친밀한 상호작용을 거부하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셋째, 통합유형으로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수용국 사회 구성원들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유형이다.

넷째, 주변화 유형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도 부정하고 주류사회와의 상호작용도 부정하여 이주사회 구성원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Berry가 주장하는 문화적응은 이주민의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측면을 포함한 개인의 변화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민의 적응은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요구와 외적 사회적 환경 사이에 조화를 이루며 일상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상태이다(윤인진, 2000). 그러므로 이주민의 사회적응은 수용국 사회가 이주민의 문화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주민들은 이주사회의 특성 및 개인의 자발적인 태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고국의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접촉과 참여하려는 의지에 따라 이주국에서의 문화적응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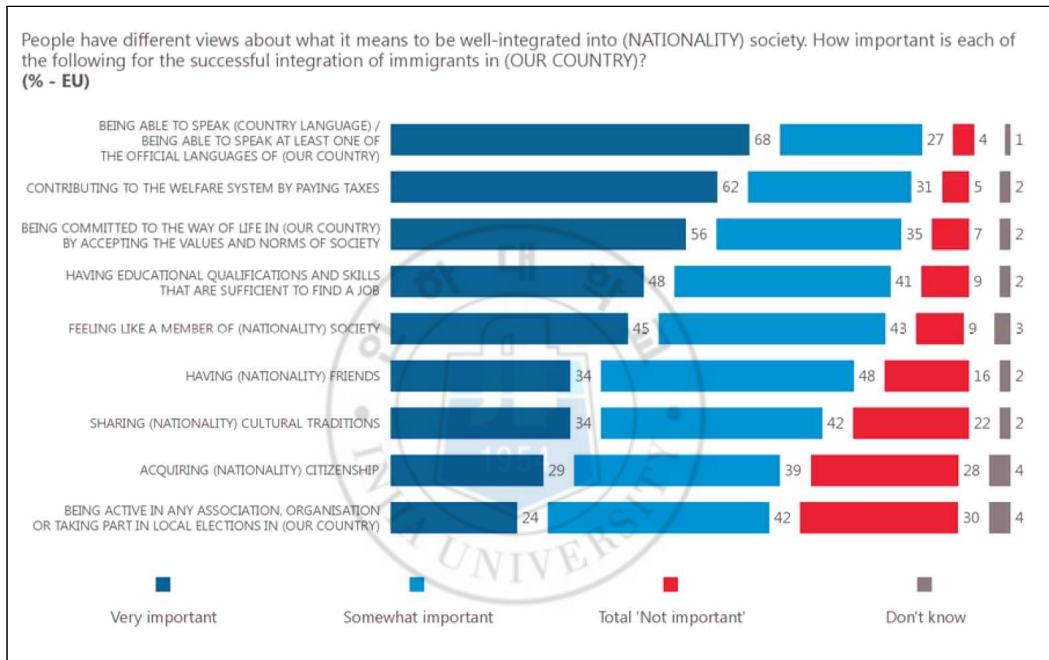
이주민은 이주할 당시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수용국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Berry; 2001, Esser, 2001). 이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의 유연함,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언어 습득 역량 요인이 서로 유기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언어와 적응은 사회통합으로 연결되는 일직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항목으로 EU(2018)<sup>4)</sup>에서는 수용국의 언어 습득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둘째, 세금 납부를 통해 복지 시스템에 기여하고, 수용국의 가치와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

4) EU(2018). Special Eurobarometer 469.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

셋째,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기술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수용국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수용국의 문화적 전통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이주한 국가의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단체나 조직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적 취득, 지역 선거 참여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는 아래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이주민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 인식 항목. EU(2018)<sup>5)</sup>.

5) EU(2018). Special Eurobarometer 469.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 Fieldwork October 2017, Publication April 2018. This survey was carried out by TNS Political & Social network in the 28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EU) between 21 and 30 October 2017. Some 28,080 residents in the EU, including both EU and non-EU citizens from different social and demographic groups were interviewed face-to-face at home and in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respective country where the interviewing took place on behalf of the Directorate-General for Communication.

위의 [그림 II-2]에서와 같이 수용국 언어의 습득은 사회 문화적응을 용이하게 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되고, 수용국 사회의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사회통합으로 진행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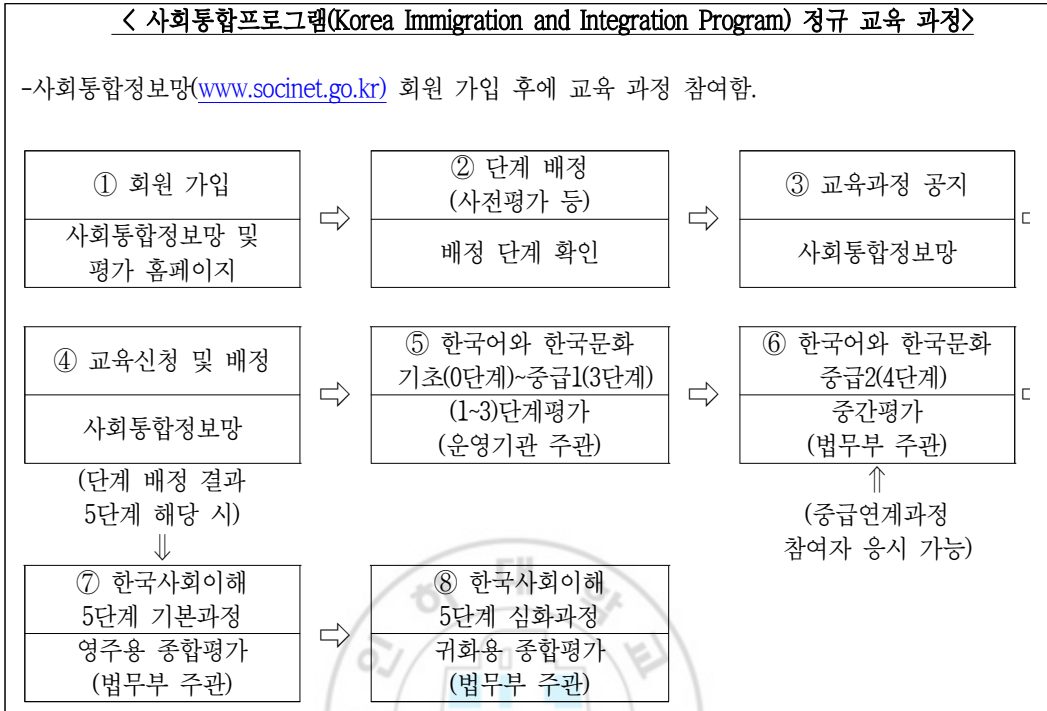
이주민사업가들은 수용국인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이들은 한국에서 사업 활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VISA)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 국적 또는 영주(F-5) 자격을 취득하거나, 비자(VISA)를 변경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확장과 정착을 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이하 KII P)<sup>6)</sup>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주민의 적응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통합교육이다. 가장 먼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http://www.socinet.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 과정 단계 배정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단계부터 시작하거나, 사전평가 응시를 선택하거나, 연계를 통한 단계 배정을 선택한 이후 교육 운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표 II-5>와 같다.

---

6) 2009년 법무부에서 이주민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 운영한 이후 2012년부터 이주민의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사회통합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3조의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 제21조, 국적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1086호),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관리 규정(예규) 등에 근거한다. 참여 대상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한 귀화자 제외)이며, 귀화 신청시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귀화면접심사를 면제받는다. 또한 영주자격 신청시 혜택은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기본소양 요건 충족 인정, 실태조사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 그 외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혜택은 가점 등 점수 부여,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

<표 II-5>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교육 참여 절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위의 <표 II-5>에서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참여하려는 이주민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http://www.socinet.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교육 진행 및 평가 신청 등 모든 교육 과정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초과정 신청을 하거나, 사전평가에 응시하고 결과 발표 후에 교육 단계 배정이 되거나, 연계신청을 통한 단계 배정이 되면 교육신청 기간에 교육생은 과정 개설 기관을 선택하여 교육을 신청한다. 정규 교육 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기초 단계부터 중급2 단계까지이고, ‘한국사회이해’는 영주(F-5) 기본 과정과 귀화 심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표 II-6>과 같은 정규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II-6>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정규 교육 과정

교육명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교육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교육 내용	한국어와 한국문화					영주 공통 소양	귀화 심화 소양
교육시간	15	100	100	100	100	50	20
수료 인정 시간(80%)	1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40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교육 기간	1~2주	각 단계별 8~17주				5~7주	2~4주
평가	없음	각 단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기준 점수	없음	필기+구술				필기+구술	
		6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이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위의 <표 II-6>에서와 같은 정규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단계는 15시간, 초급1 단계부터 중급2 단계까지 각 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사회이해’ 단계는 영주(F-5) 기본 과정은 50시간, 귀화 심화 과정은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교육 과정의 출석 수료 인정 시간은 각 출석 시간의 80%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기간은 기초 단계는 1~2주,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단계별 각 8~17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이해’ 영주(F-5) 기본 과정은 5~7주, 귀화 심화 과정은 2~4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이수 시간 80%를 이수하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단계는 이수 기준 10시간을 충족하면 초급 1단계로 자동 진행되고 있다.

초급1 단계부터 중급1 단계까지는 각 운영기관에서 주관하는 단계 평가에 응시하는데,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평가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첫 번째 과정 등록을 한 교육생으로서 80%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평가 응시 대상이 된다. 평가는 성취도 평가로 필기하고 구술 시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60

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교육생은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서 평가 점수 및 다음 단계 승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급2 단계는 출석 인정 기준 80%를 이수하고,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중간평가 신청을 하고, 평가일에 평가 장소에 가서 응시해야 한다. 성취도 평가로 필기 시험하고 구술 시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한국사회이해’ 영주(F-5) 과정으로 자동 상향 진행된다.

‘한국사회이해’ 영주(F-5) 기본 과정은 50시간으로, 출석 인정 기준 80%를 이수하면 영주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교육생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영주용 종합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일에 평가 장소에 가서 응시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과 동일하게 성취도 평가로 필기 시험하고 구술 시험 점수를 합산해서 60점이 되면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을 확인하고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할 수 있다. 그리고, 영주(F-5) 자격 신청할 때 또는 체류자격(VISA) 변경 신청할 때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혜택으로는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하고 실태조사 면제 가능, 가점 등 점수 부여,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이 있다.

‘한국사회이해’ 귀화 심화 과정은 20시간으로, 출석 인정 기준 80%를 이수하면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평가 신청 및 결과 확인 등 절차는 영주(F-5) 과정 절차하고 동일하게 진행된다.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을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쇄할 수 있다. 그리고, 귀화 신청할 때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을 제출하면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귀화면접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정규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이주민의 체류 및 영주(F-5) 또는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



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처음 시행하였으며 2020년 현재까지 다양한 운영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 <표 II-7>과 같다.

<표 II-7>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기관 및 참여자 현황 (단위: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월	합계
기관(수)	20	77	150	271	278	304	308	300	309	310	310	348	-
참여자(명)	1,331	4,429	6,519	12,444	14,014	22,361	25,795	30,515	41,500	50,639	56,535	14,883	280,965
전년대비	100%	332.8%	147.2%	190.9%	112.6%	159.6%	115.4%	118.3%	136.0%	122.0%	111.6%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05)

위의 <표 II-7>과 같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 20개 시범 운영기관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 5월, 348개 운영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도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5월 누적 인원 280,965명이 이수했거나, 참여하고 있다. 이 현황은 한국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원하는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무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이주민과 우리 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주민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8>과 같다.

<표 II-8>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국적별 현황

(단위: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월	합계
베트남	3,933 (32%)	4,291 (31%)	7,063 (32%)	8,664 (34%)	10,926 (34%)	13,474 (32%)	15,932 (31%)	16,717 (29.6%)	4,597	85,597 (31.7%)
중국	2,717 (22%)	3,098 (22%)	4,968 (22%)	5,600 (22%)	5,979 (19%)	5,868 (14%)	4,883 (10%)	5,550 (9.8%)	1,388	40,051 (15.2%)
한국계 중국인	-	-	-	-	-	-	-	4,414 (7.8%)	761	5,175 (1.7%)
필리핀	1,262 (10%)	1,365 (10%)	2,216 (10%)	2,376 (9%)	2,830 (9%)	3,402 (8%)	3,191 (6%)	3,125 (5.5%)	786	20,553 (7.8%)
캄보 디아	884 (7%)	858 (6%)	1,277 (6%)	1,332 (5%)	1,679 (5%)	2,030 (5%)	2,248 (4%)	2,245 (4%)	566	13,119 (4.9%)
우즈베 키스탄	210 (2%)	382 (3%)	655 (3%)	801 (3%)	1,222 (4%)	1,698 (4%)	3,212 (6%)	3,589 (6.4%)	1,149	12,918 (4.6%)
기타	3,438 (28%)	4,020 (29%)	6,182 (28%)	7,022 (27%)	7,879 (29%)	15,028 (36%)	21,173 (42%)	20,895 (37%)	5,636	91,273 (34.1%)
합계	12,444 (100%)	14,014 (100%)	22,361 (100%)	25,795 (100%)	30,515 (100%)	41,500 (100%)	50,639 (100%)	56,535 (100%)	14,883	268,686 (10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05)

위의 <표 II-8>에서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민의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교육생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 국적으로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출신 교육생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첫째,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소양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추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둘째, 시민교육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주관으로 이주민의 실생활

과 밀접한 법률, 소비자, 금융경제, 범죄예방, 소방안전 등에 관한 체계화된 교육 과정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결속의 통합교육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이주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유대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이민자 멘토 교육은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을 통한 한국 사회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문화 소통교육이다.

다섯째, 자원봉사 등 사회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기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주민이 영주(F-5) 자격이나 귀화 신청할 때 면접 심사 면제,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회통합정책 시행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주민이 체류자격(VISA)을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통합정책이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 II-9>의 체류자격(VISA)별 현황에서 보면 2011년까지 결혼이민(F-6) 자격 교육생이 다른 체류자격(VISA) 교육생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비전문취업(E-9) 자격 교육생을 비롯하여 다른 체류자격(VISA) 교육생의 급격한 증가는 2000년대 이후 이주해서 정착한 장기 체류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I-9> 사회통합프로그램 체류자격(VISA)별 현황 (단위: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결혼이민(F-6)	846 (63.6%)	3,266 (73.7%)	4,971 (76.3%)	8,238 (66.2%)	8,572 (61.2%)	13,131 (58.7%)	14,534 (56.3%)	16,563 (54.3%)	18,766 (45.2%)	17,645 (34.8%)	18,374 (32.5%)	124,906 (46.9%)
비전문취업(E-9)	19	44	148	1,356	1,272	2,181	2,734	3,177	6,182	10,737	12,935	40,785
재외동포(F-4)	-	-	-	-	-	-	-	1,487	3,894	5,826	4,880	16,087
방문동거(F-1)	246	558	534	878	593	391	1,475	1,539	1,824	3,095	2,964	14,097
유학(D-2)	14	64	154	388	392	806	1,302	1,730	2,369	2,780	3,735	13,734
방문취업(H-2)	83	130	111	238	212	324	413	519	794	981	1,590	5,395
영주(F-5)	90	125	33	66	117	159	193	270	343	572	1,104	3,072
기업투자(D-8)	11	89	159	248	328	333	288	245	279	239	238	2,457
기타	22	153	409	1,032	2,528	5,036	4,856	4,985	7,049	8,764	10,715	45,549
합계	1,331	4,429	6,519	12,444	14,014	22,361	25,795	30,515	41,500	50,639	56,535	266,08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05)

위의 <표 II-9>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전체 체류자격(VISA)중에 결혼이민(F-6)의 비율이 2012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기타 체류자격(VISA) 교육생의 비율이 45,549명(17.1%)로 결혼이민(F-6) 자격 교육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이주민의 증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데,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표 II-9>의 체류자격(VISA)별 현황에서 이주민사업가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업투자(D-8) 자격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이민(F-6), 재외동포(F-4), 영주(F-5) 자격 교육생 중에 실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민의 수는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이주 목적 이후 장기 체류하는 이주민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반영한 체류자격(VISA)별 정책 매뉴얼 제도 및 이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언어별 매뉴얼 배포 등의 정책 서비스는 이주민의 법 제도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류 기한 연장을 해야 하는 불안정한 신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체류 기한 연장에 대한 불편 해소나 보다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VISA)을 변경해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 사회 생활이나 업무 또는 한국문화적응에 관련된 단계적 언어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도 다음 <표 II-10>에서 처럼 최근 3년 내 개설 과정 수 현황에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단계, '한국사회이해(기본)' 과정 개설 수가 다른 단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0> 2017~201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 현황

과정	단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수)	과정 비율(%)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0단계)	177	198	217	592	7.63
	초급1(1단계)	186	197	217	600	7.73
	초급2(2단계)	327	332	351	1,010	13.02
	중급1(3단계)	436	470	520	1,426	18.38
	중급2(4단계)	453	486	555	1,494	19.27
한국사회 이해	기본	487	519	588	1,594	20.56
	심화	328	350	361	1,039	13.41
합계		2,394	2,552	2,809	7,755	10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05)

위의 <표 II-10>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최근 3년 내 과정 개설 수 현황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단계, ‘한국사회이해(기본)’ 과정이 가장 많은 것은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면서 수요의 증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다양한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주민의 교육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2 단계<sup>7)</sup>는 약 4,000~4,500 여개 어휘를 이용하여 사회의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직장 생활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주제에 대해 듣거나, 읽고 이해하고, 유창하게 말해야 하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급2 단계 개설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우리 사회 다양한 직종에서 이주민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 <표 II-11>에서처럼 중급2 단계 과정 참여자는 초급2 단계 참여자하고 11,597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II-11> 2017~201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과정	단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참여자 비율(%)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0단계)	2,909	4,036	4,780	11,725	7.89
	초급1(1단계)	2,842	3,872	4,339	11,053	7.43
	초급2(2단계)	5,304	6,242	6,822	18,368	12.35
	중급1(3단계)	7,716	9,862	10,721	28,299	19.04
	중급2(4단계)	7,796	10,195	11,974	29,965	20.16
한국사회 이해	기본	9,780	11,030	12,435	33,245	22.36
	심화	5,138	5,402	5,464	16,004	10.77
합계		41,485	50,639	56,535	148,659	10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05)

7)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위의 <표 II-11>에서와 같이 중급2 단계 과정 참여자가 초급2 단계 참여자하고 11,597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주민의 다양한 한국어 학습 참여 기회를 통한 수준의 향상을 추이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눈여겨볼 점 하나는 기초 과정과 초급1 단계 과정 참여자의 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초급1 단계하고 초급 2단계는 7,315명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4년 4월 1일 개정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지침」<sup>8)</sup>에 따라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후에 결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주민(F-6)은 사전 평가없이 초급2 단계에 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sup>9)</sup>.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2010년 9월부터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교육을 시작하였는데, 참여한 이주민은 136명이었다. 중앙거점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이민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상 교육에는 2019년에는 1,466명의 이주민이 참여하였다<sup>10)</sup>. 한국이민재단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화상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 운영기관 전담인력 교육, 기본소양 평가 구술시험 관 양성교육,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영기관은 거점운영기관하고 일반운영기관으로 나뉘어진다. 거점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 집행 등 예산 업무 수행 및 거점 내 운영기관의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반운영기관 또한 개설 과정 관련 시설 제공 및 교육 과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주민 체류 관련 허가 및 영주(F-5) 자격과 귀화 신청 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8)하이코리아(www.hikorea.go.kr)(2020), 사증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9)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10)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



## 2.2. 이주민 사회통합정책과 모형

### 2.2.1.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념

2000년대부터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이주민 유입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내의 비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조화로운 관계나 안정된 관계로 형성하고 통합되는 과정으로 사회통합은 비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이 단일의 집합체로서 단위를 형성하고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두산백과사전, 2020). 집단에서의 사회통합은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 가치, 정체성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문제 상황을 완화하고 개개인의 소외됨 없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개념은 없으나 사회통합에 대한 용어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회통합은 이주민과 국민 간에 상호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 옹호는 물론 한국 사회에 사회문화적 또는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국은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통합은 사회적 포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적 포용은 유럽연합이 1990년대 후반에 제시했던 개념으로 경제적, 복지적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 및 양극화를 해결하고 격차를 최소화하여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에서 시작되었다(민경국 외 2013). 이처럼 사회통합은 공화주의에 기초한 개념으로 개인이나 집단들이 한 사회의 보편적 이익과 가치를 수용하게 만드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국민대통합위원회(2019)에 따르면 사회통합과정에서 민주주의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책임 의식을 강조한다.

이처럼 사회통합은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처럼 사회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국가는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사회갈등을 적합하



게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원동력을 상실한다(신중섭, 2013).

그러므로 사회통합의 원리를 모색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개념은 상부상조와 공존과 상생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사회통합의 해소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갈등 해소 및 소득의 불균형, 계층 간의 갈등 해소, 세대 간의 갈등 해소 등에 머물러 있다. 이에 더하여 다문화 사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통합의 개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다. Barker(1995)는 사회통합을 사회 구성원들이 통합된 하나의 전체로 결합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사회학적 의미의 통합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나 인종적 집단들이 결합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Powers(1981)은 사회의 다양한 단위들이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과정과 통합적 과정의 결과라고 하였다. 이후, Kreckel(1999)도 사회통합은 사회 구성원 간의 도덕과 가치에 대한 합의와 협력이 바탕을 이룬다고 하였다. EU(2004)는 격차를 최소화하고 양극화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 모두를 위한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라고 하였다. 그 외 한국 연구자들은 사회통합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먼저 정영태(2009)는 수용국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과 이주민, 쌍방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김경옥(2010)은 사회통합은 이질적인 집단인 사회와 서로 적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이선 외(2011)은 사회통합의 실질적 의미는 다양한 배경의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서로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성을 토대로 사회발전이 가능하며 다문화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박기관(2011)은 근본적으로 공통의 가치와 규범들에 기반한 요소들을 결속 유지하여 구성원들이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결합해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집단 구성원들이 조화로운 관계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라휘문(2011)은 다양한 특성을 소유한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해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며 소속감 및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결집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조향록(2011)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존중과 조화를 바탕으로 생활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정기선(2012)은 개인 또는 집단 등 사회적 단위 간의 연결

및 관계를 다루는 사회적 노력으로 구성원 간의 신뢰, 희망, 상호호혜를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도전의식을 공유하며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성순(2013)은 한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존중하는 사회적 유대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영란(2013)은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한 사회에서 제한 없이 평등한 공동체로 진입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들은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노력을 통해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한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12>에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12>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개념

학자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념
Barker(1995)	사회통합을 사회 구성원들이 통합된 하나의 전체로 결합되는 과정
Powers(1981)	사회의 다양한 단위들이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과정과 통합적 과정의 결과
Kreckel(1999)	사회구성원 간의 도덕과 가치에 대한 합의와 협력이 바탕을 이룸
EU(2004)	격차를 최소화하고 양극화를 예방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 모두를 위한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
정영태(2009)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쌍방향의 최종 결과물
김경옥(2010)	이질적인 집단인 사회와 서로 적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김이선 외(2011)	다양한 배경의 사회구성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서로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
박기관(2011)	근본적으로 공통의 가치와 규범들에 기반 한 요소들을 결속 유지하여 구성원들이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결합해나가는 과정
라휘문(2011)	다양한 특성을 소유한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해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며 소속감 및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결집력
조항록(2011)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상호존중과 조화를 바탕으로 생활하는 상태
정기선(2012)	개인 또는 집단 등 사회적 단위 간의 연결 및 관계를 다루는 사회적 노력으로 구성

학자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념
	원 간의 신뢰, 희망, 상호호혜를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도전의식을 공유하며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과정
이성순(2013)	한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존중하는 사회적 유대
김영란(2013)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한 사회에서 제한 없이 평등한 공동체로 진입시키는 과정

이처럼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를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공동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면서 사회에 통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민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으로 이주하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 고국에서의 고유한 정체성과 이주 후 한국 사회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협상하고 조율하면서 적응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통합은 이주민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개인이 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정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이주민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성순, 2010). 그러므로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통합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국가 정체성,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통합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집단들의 배제와 통합되는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사회적 포용은 사회통합으로 빈곤,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된 집단을 정책적, 심리적으로 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세현·김우선, 2013). 둘째는 더 적극적인 통합의 의미에서 사회적 통합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이질적 특성을 인정하고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여 조화롭게 공동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합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획일성을 강조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노대명, 2009). 셋째, 사회적 결손으로서 공동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차이를 인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게 하며 이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조세현·김우선, 2013). 이처럼 사회통합은 집단의 사회적 통합을 사회적 결속의 의미에서 다루어야 하고 계발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통합은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 또는 공동체 집단 간 결속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체 상호 발전 촉진을 전제로 한 결속의 의미로 볼 수 있다.

### 2.2.2.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이 강조됨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주민의 문화와 언어의 차이, 불평등, 빈곤, 범죄 등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요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Castles & Miller(2003)는 사회통합 정책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차별배제모형은 이주민을 배제의 대상으로 보고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를 허용하지만 영구적인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 모형으로 이런 사회통합 정책을 취하는 국가는 스위스, 벨기에, 이전의 독일이다.

둘째, 동화주의 모형은 이주민을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보지만 그들의 언어, 질서, 규칙을 버리고 유입국이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주류사회에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셋째, 다문화주의 모형은 이주민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주민의 언어, 문화, 규칙 등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넷째, 상호문화주의 모형은 사회통합을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가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과 정주민과의 공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상호문화주의 모형은 이주민과 정주민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많은 학자들이 다문화주의 모형이 사회통합 차별배제모형과 동화주의 모형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주민집단을 통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박세훈 외 2009). 하지만 상호문화주의 모형은 표면적인 사회통합은 물론 내면적인 사회통합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주의 모형으로 변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특성이나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 모형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사회통합정책 모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13>과 같다.

<표 II-13>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모형

구분	차별배제모형	동화주의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상호주의 모형
정책수단	이주민 규제정책	이주민의 동화를 이끌어 주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	소수집단 문화와 권리 보호규정하고 이주민과 공존	소수집단 이주민과 정주민간의 상호작용
다양성 개념	이질적 문화에 대한 배타성	사적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사적 및 공적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사적 및 공적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평등개념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과정의 평등
이주민 관점	배제의 대상	노동력, 이방인 통합의 대상	사회구성원, 사회다양성의 원천	사회구성원, 사회의 역동성의 원천
주요국가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호주, 캐나다, 미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출처: Castles & Miller(2014). 사회통합정책 재수정함

사회통합정책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정책 위원회에서는 제1차~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래 <표 II-14>와 같다.

<표 II-14> 제1~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교

구분	비전	정책목표	중점과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	외국인 과 함께하 는 세계 일류국 가	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2. 질 높은 사회통합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정보 관리 3-3.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4. 외국인 인권 옹호	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세계인 과 더불어 성장하 는 활기찬 대한민 국	1.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1-1.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1-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1-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1-4.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2.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2-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2-3.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2-4.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3-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3-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4.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4-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4-2.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4-3.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4-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5.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5-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5-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5-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2022)	다양성 이 존중되 는 안전한 대한민 국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1-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1-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2-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 지원 내실화 2-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3.	3-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구분	비전	정책목표	중점과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3-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4-2. 여성, 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4. 동포와 함께 공존, 발전하는 환경 조성 4-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5.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5-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5-2.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협력 강화 5-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외국인정책위원회(2008, 2013, 2018). 제1~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위의 <표 II-14>에서와 같이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환경 조성 및 차별 방지 및 인권 보장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사회통합 정책의 대상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정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이주민을 우선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사회적응도에 있어서 사회 적응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이주민을 우선 지원하여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입국 시기에 있어서는 입국 초기의 이주민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강화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통합정책의 대상별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상담을 전제한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우선 지원한 후 경제 활동을 위한 직업교육 등 교육을 이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의 대상은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국민이 되고자 하는 이주민이나 한국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이를 살펴볼 때 한국의 사회통합 대상은 국내의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민과 국적을 희망하는 결혼이주민과 자녀로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독일과 캐나다의 경우 장기체류자로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난민, 결혼이주민, 이주민 2세, 일반 국민을 사회통합정책에 포함하고 있다(김혜순, 2011).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해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과 체계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과제로 정하였다. 이주민이 국적 또는 영주자격(F-5) 취득을 원할 때 기본 소양 등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하고 국적 취득 절차를 연계하였다(황택환, 2019).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해서 이주민의 자립과 참여를 목표로 하여 사회통합 촉진과 역량 강화를 과제로 정하였다. 또한 이주민의 복지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과제로 정하였다. 이주민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때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귀화할 때 또는 국적회복할 때 국민 선서와 귀화 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보충적 출생지주의 등 국적 제도 연구 검토와 귀화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 등을 과제로 정하였다. 이처럼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 영주, 그리고 국적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황택환, 2019).

또한 사회통합의 지표에 대해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 일, 고용과 사회보장, 교육, 의료, 주거, 사회서비스, 언어, 사회제도에 대한 기초지식, 가치 준수, 제도 및 서비스 접근, 이주민과 시민과의 상호작용, 지역 수준의 민주적 과정, 정책 및 통합제도 형성과정, 인구 동향, 의사소통 수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문유경·전기택, 2011). 한국에서도 사회통합지표에 대해 설동훈·김명아(2008)가 한국 실정에 맞는 사회통합 지표를 노동시장 접근, 가족 상봉, 장기거주, 정치 참여, 국적 접근, 차별 시정 6가지로 만들어 이주민과 한국 국민의 다문화 사회 인식과 사회통합 정도를 파악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유경·전기택(2011)은 교육, 경제, 사회참여 및 연결망, 안전 및 사회권 보장, 가족생활, 사회통합 환경 등 6가지 사회통합지표를 만들고 22개의 세부 영역과 171개 사회통합 지표를 개발하여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에서는 이주민 통합정책지수(MIPEX)의 통합지표 기준으로 노동시장의 접근성, 가족 재결합, 교육, 정치적 참여, 장기거주, 국적 취득 가능성, 차별금지 등으로 이주민들의 적응 정도를 측정하고 이주민의 사회 적응, 정착 지원을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사회문화적 통합과 사회경제적 통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통합은 주거환경, 여가 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과 수용국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으로서 이주민의 가치관과 행동 규범에 영향을 준다. 이에 비해 사회경제적 통합은 노동과 직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생

업과 관련한 활동, 그리고, 직업 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학업 등을 포함한다. 사회경제적 통합에서는 개인적인 발전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가능성은 장기간에 걸쳐 직업 활동 등을 통해 구체화되면서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업 활동에서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수용국 사회로의 다양한 통합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Janikowski, 1999).

이와 같이 사회통합의 개념과 요소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사회적 격차와 최소화의 양극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 2.2.3. 이주민 사회통합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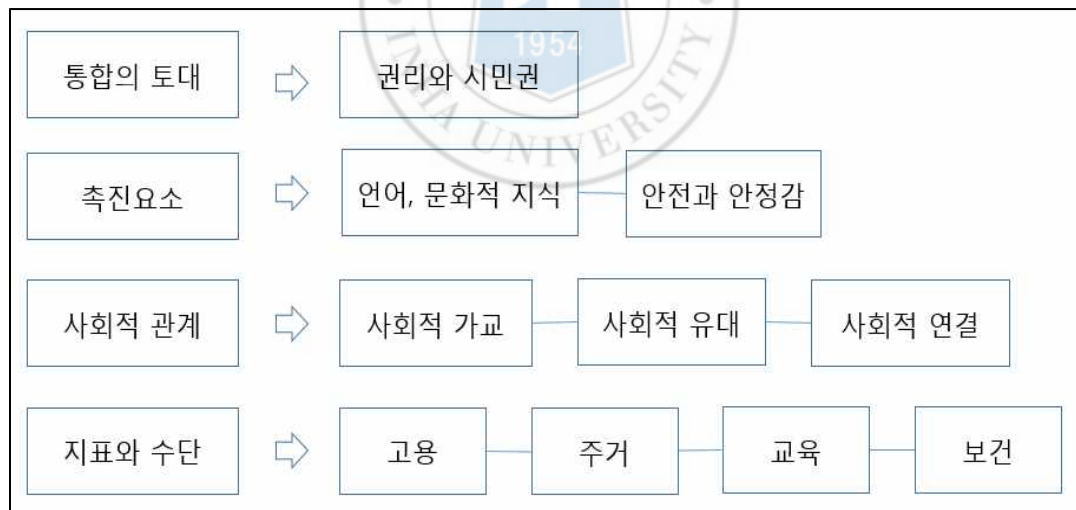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사회통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사회학자들에 의해서이다. 산업혁명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도시에 인구의 집중 문제, 노동 문제, 사회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갈등과 국가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분화현상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재통합하려는 문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사회통합은 사람들 관계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사회적 긴장관계를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결속과 유대를 강조하면서 사회의 체제 통합에 중점을 두며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

Galtung(1973)은 사회통합을 외적 통합과 내적 통합으로 구분하였다. 외적통합은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영토통합과 기능적 인접성으로 상호 의존하는 조직적, 기능적, 사회적 통합으로 나누었다. 또한 내적 통합은 사회 구성원의 가치통합, 행위자 통합과 전체의 통합으로 나누었다. 그는 바람직한 사회통합모형은 가치통합을 바탕으로 지리적, 결사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가 적절하게 형성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Giddens(1998)는 사회통합 모형을 사회적 통합과 체제 통합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사회적 통합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 및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이 상대적 자율성과 의존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한다. 사회통합에 사회 구성원들 간

의 다양성과 평등성 및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체제통합은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체제의 지배정당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통합이 사회의 안정과 재생산으로 볼 때 그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국가의 제도적 차원과 개인 및 집단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차원을 모두 부각하였다.

Ager & Strang(2008)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상위개념으로 통합의 토대, 촉진 요소, 사회적 관계, 통합지표와 수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주민 통합의 토대는 이주민의 권리와 시민권이라고 보았으며 사회통합의 촉진 요소는 언어 문화적 지식과 안전과 안정감으로 보았다. 그 외 정책을 연결해주는 결합조직과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였는데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유대, 사회적 가교, 사회적 연결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표와 수단으로서는 고용, 주거, 교육, 보건 등이라고 구분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II-3]과 같다.



[그림 II-3]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Ager & Strang(2008: 170)

위의 [그림 II-3]에서와 같이 Ager & Strang(2008)가 주장한 사회통합의

분석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합의 토대로서 권리와 시민권은 영주권자의 사회통합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 및 사회적 서비스 지원이다. 촉진요소에서 언어문화적 지식은 언어는 이주민의 통합의 척도 및 수단으로 보았으며 입국초기 정착 이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통번역 지원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주민과 지역원주민과의 상호 교류 등 상호이해 교육이 요구된다. 안전과 안정감은 인종차별, 폭력,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예방과 이주민들이 이주국에서 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주민과 정주민 간의 형성되는 관계망과 정주민의 감정적 정서, 친밀감, 상호작용 등은 이주민의 정착 및 사회적 참여 등의 기회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자국 출신 이주민과의 공동체 형성과 자조 모임 활동을 통한 결속은 정보 교환, 역량 강화 등과 이주민의 이주국 사회에 정착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 이주민 개인과 국가 제도와의 관계로서 정부 지원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지원해주는 사회적 연결 체계의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연결은 이주민과 지원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사회적 연결과정에서 이주민 단체를 포함한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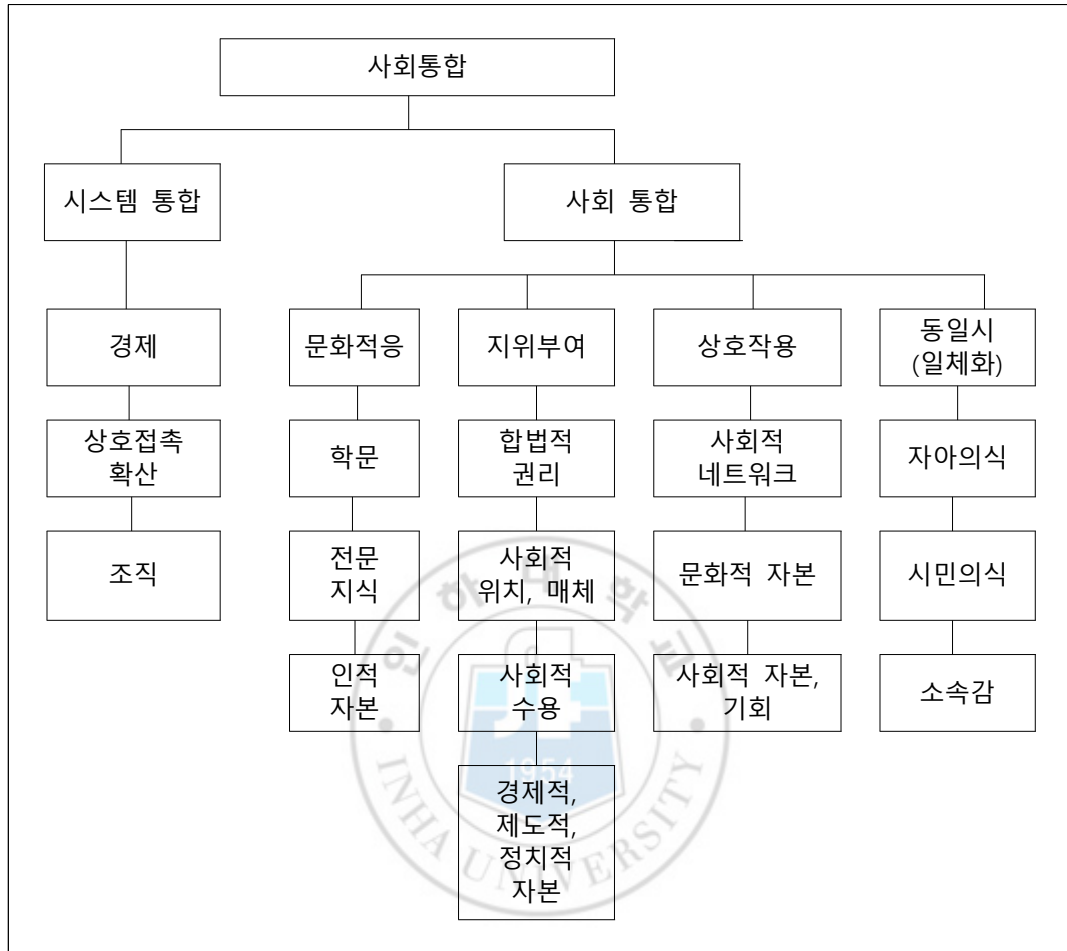
독일의 사회학자 Esser(2001)는 사회통합(Integration)을 시스템 통합(Systemintegration)과 사회통합(Sozialintegration) 두 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시스템통합은 한 사회는 같은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에 결합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정치, 경제, 법 등 외형적 통합을 말하기도 한다. 시스템 통합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면서 발생하기도 하고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수직적 또는 위계적으로 통제하는 형식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사회에 대한 충성심과 특정지향성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대 사회는 시장 상호의존성에 의해 개인들의 능력과 자격이 좌우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거가 상호의존성에 존재한다면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통합은 개인이 기존의 사회적 시스템인 사회 속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가치, 문화 등의 내적인 통합이라고 하였다. Esser(2001)는 사회통합에 대해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별하였다. 첫째, 문화적응(Kulturation)은 이주민이 수용국

의 언어를 포함한 지식과 문화적응 능력의 습득을 의미한다. 둘째, 지위부여(Plazierung)는 이주민이 문화적응 능력을 습득하여 합법적 권리와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고 수용국은 이주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상호작용(Interaktion)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한 수용을 의미한다. 넷째, 동일시 또는 일체화(Identifikation)는 이주민이 해당 사회 시스템에 감정적 애착과 일체감 형성을 의미한다. 그는 이 네 가지 범주가 서로 연결되어 의존적이며 지위부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화적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서만 특정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 상호작용이나 동일시 또는 일체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Esser(2001)가 제시하는 사회통합모델은 다음 <표 II-15>와 같다.



<표 II-15>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



위의 <표 II-15>에서와 같이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은 사회통합의 과정에 이주민과 수용국 양방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주민하고 수용국 사회가 문화적응, 지위부여, 상호작용, 동일시(일체화)를 통해 사회통합에 이르는 것이다. 이주민의 문화적응이 선행되면서 수용국 사회의 지위 부여가 가능하다는 양방의 상호작용, 그리고 동일시(일체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적응 단계에서 만약 이주민이 언어, 지식, 문화를 습득하고 있지 못하다면 수용사회는 이들에 대한 지위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이주민이 해당 사회에 걸맞는 문화적응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위부여가 마침내 가능해진다

다고 보는 것이다. 즉, 사회통합은 일방적인 작용이 아니며 양방의 행위 주체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소속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될 때 한 특정 사회 시스템에서의 상호작용과 동일시(일체화)가 가능해진다 고 보았다.

이주민 사회통합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인적이고 상황적인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Esser(2001)는 수용국의 노동시장이나 주택시장의 여건이 좋고 문화적 격차가 비교적 적으며 사회적 간극이 없는, 즉 수용국의 원래 주민들도 대부분 주변화되지 않고 권리가 박탈되지 않은 열린 사회일수록 유리하다고 하였다. 반면 수용국 내의 민족 공동체들(Ethnische Gemeinden)은 사회통합에 방해가 된다. 또한 개인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주 전에 좋은 교육을 받았거나 기타 인적 자본, 특히 가능한 한 어린 나이에 다른 민족들과 교류하는 것 등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이주민들이 수용국과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관건은 언어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그 나라의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에 구조적으로 동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특히 언어학습 기회의 여부에 좌우되지만 일상적인 접촉의 결과로 부수적으로 습득되기도 한다. 그리고 수용국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이주민들이 구조적 동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애착을 기대할 수 없다.

이재열(2006)은 사회통합모형을 물질적 차원(경제적 자본), 행위적 차원(사회적 자본), 문화적 차원(문화적 자본)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물질적 차원(경제적 자본)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제적 기회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질적 배제 극복이다. 둘째, 행위적 차원(사회적 자본)은 개인 또는 집단, 지역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그에 부수한 폭력의 가능성을 줄이고 공동체성 및 사회적 조화와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문화적 차원(문화적 자본)은 인종, 문화, 종교, 성, 교육, 계층 등 사회 전반적인 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사회 제반 요소와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은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사회의 제반 요소들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자율적이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통합은 개인이 유용하고 값진 자본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지름길은



교육을 통한 자격의 취득과 이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제도의 핵심에 접근하는 구조적 동화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자주성을 전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동화되는 것은 수용국의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통합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지속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용국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해결과 사회적 갈등 관리체제에 대한 정비, 그리고 개방된 세계에서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양성 인정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2.3. 소결

한국의 이주민은 2020년 4월 217만여 명을 넘어섰다.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한국에는 이주민사업가들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사회의 체류자격인 비자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사업 활동이 가능한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의 투자금액별, 업종별 현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부 통계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F-2(거주), F-4(동포), 영주(F-5), F-6(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금액별, 업종별, 지역별 사업 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정부 통계 및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직종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이 중요한 화두이듯이 이주민사업가들 역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Berry 외(1988)는 이주민의 문화적응 과정을 접촉 이전 단계, 접촉 단계, 갈등 단계, 위기 단계, 적응단계로 구분한다. 이주민사업가 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법무부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사회통합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통합정책은 이주민의 문화와 언어의 차이, 불평등, 빈곤, 범죄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에 관심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모형 등이 있다. Castles & Miller(2003)는 사회통합의 정책 유형을 차별배제모형과 동화주의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자는 이에 상호주의 모형을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첫째 차별배제모형은 이주민의 규제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질적 문화에 대한 배타성을 중시하고 이주민을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주로 스위스와 벨기에가 취하는 모형이다. 둘째, 동화주의 모형은 이주민의 동화를 이끌어 주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으로 사적영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이주민에게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며 노동력, 이방인을 통합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프랑스에서 이 유형을 취하고 있다. 셋째, 차별배제모형과 동화주의 모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문화주의 모형이다. 이는 소수집단의 문화와 권리 보호를 규정하고 이주민과 공존을 목표로 하고 이주민

의 사적영역은 물론 공적영역에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였다. 특히 사회구성원이나 사회의 다양성을 원천으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를 중시하는 호주와 캐나다, 미국, 스웨덴 등이 이러한 모형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상호주의 모형을 추가한다. 상호주의 모형은 소수집단 이주민과 정주민 간의 공존을 넘어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사적, 공적 이주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면서 과정에 대한 평등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이는 사회구성원과 사회의 역동성을 원천으로 하는 모형으로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이 상호주의 모형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은 외적 통합과 내적 통합으로 구분하고 A. Ager & A. Strang(2008)는 사회통합을 위해 통합의 토대와 촉진요소, 사회적 관계, 통합지표와 수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이주민의 통합의 토대를 이주민의 권리와 시민권으로 보고 사회통합의 촉진적인 요소는 언어문화적 지식과 안전과 안전망으로 보았으며 그 외 사회정책을 연결해주는 결합조직과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Esser(2001)는 사회통합을 시스템 통합과 사회통합으로 나누고 시스템 통합은 같은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에 결합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사회통합은 개인의 사회적 시스템인 사회 속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가치, 문화 등 내적인 통합을 중시하였다. 또한 Esser(2001)는 사회통합의 범주를 문화적응, 지위부여, 상호작용, 동일시로 나누었다. 첫째, 문화적응(Kulturation)은 이주민이 수용국의 언어를 포함한 지식과 문화적응 능력의 습득을 의미한다. 둘째, 지위부여(Plazierung)는 이주민이 문화적응 능력을 습득하여 합법적 권리와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고 수용국은 이주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상호작용(Interaktion)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한 수용을 의미한다. 넷째, 동일시 또는 일체화(Identifikation)는 이주민이 해당 사회 시스템에 감정적 애착과 일체감 형성을 의미한다. 그는 이 네 가지 범주가 서로 연결되어 의존적이며 지위부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화적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서만 특정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 상호작용이나 동일시 또는 일체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에 따라 이주민사업가들의 사업 경험을 생애사적 경험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

민의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이주민사업가 역시 Berry 외(1988)가 제시하듯이 한국문화의 접촉 이전 단계와 한국사회 초기 단계, 한국사회 적응단계, 그리고 이주민사업가로서 가진 미래의 계획 등으로 나누어 생애시기에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통합 경험에 있어 사회통합 모델의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 경험한 경험과 경험에 따른 의미를 도출하는 것은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 3.1.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양상을 탐색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통합에 대해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문헌자료를 통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여러 문헌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사업가들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주민사업가들의 사회적 자본들이 한국사회에 통합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양적 연구의 수치로 탐색하기보단 구체적인 경험 사례를 통하여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연구를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시간의 경과 또는 공간의 경계에 따라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탐색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Creswell, 2011).

연구방법을 결정한 후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사업가 1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심층면담을 한 후 면담자료는 전사하여 텍스트로 만들었다. 텍스트화한 자료는 Strauss & Corbin(1998) 반복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주제에 따라 코딩하고 이를 다시 반복적으로 코딩과 검증과정을 거쳐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시공간에 따른 사례자의 사례에 따라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이 한국사회로 이주하기 전의 공간과 한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하게 된 공간, 또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주장한 Esser(2001)의 네 가지 유형에 따른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한 자료는 Esser(2001)의 유형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고 수정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고 이에 따른 결론과 제언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와 내용은 다음 <표 III-16>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I-16> 연구절차와 내용

연구절차	기 간	연구활동
IRB 정규심의	2017년 5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연구참여설명문 및 동의서 작성
IRB 심의승인	2017년 6월~2020년 5월	No : 170519-1A(2017.06.21.)
선행연구 동향 분석	2017년 6월~2018년 5월	선행연구 분석
문헌고찰	2017년 6월~2019년 3월	이론 연구, 고찰
연구참여자 선정	2017년 6월 ~ 2019년 3월	대상자 선정 및 자료 수집
심층 면담, 인터뷰	2017년 6월 ~ 2020년 3월	심층 면담, 인터뷰
내용 분석	2020년 3월	심층 면담, 인터뷰 분석
논문 작성과 보완	2020년 3월 ~ 5월	학위논문 작성과 보완

위의 <표 III-16>에서와 같이 2017년 연구를 진행하기 전 인하대학교 IRB기관윤리위원회에 정규심의 기관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를 신청하고 심의승인(No:170519-1A, 2017.06.21)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 동향분석 및 문헌을 통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이론을 통해 연구의 틀을 재정비한 후 연구에 대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한 후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작성하였다.

## 3.2. 생애사적 사례연구

생애사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학술적 연구가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역사, 여성, 심리, 문화 연구 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이주 연구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Ojermark, 2007).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사적인 삶을 통해 공적인 맥락을 발견하고 이를 이야기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이다(김영순 외, 2018). 개인의 삶은 과거로부터 현재의 삶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견하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적인 경험과 변화는 사회적인 경험과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개인의 관점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Denzin, 1989). 따라서 생애사 연구는 삶의 전반적인 맥락을 경험의 의미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례연구(case study)는 1920~30년대 시카고학파의 사회학자들에 의해 생애담(life story)에 관한 사례연구가 수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론과 방법론이 연구되고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강진숙, 2016).

사례연구는 실제적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시대의 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탐구이며 현상의 경계(boundary)가 맥락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탐구이다(Yin, 2003). 사례연구는 현대 질적연구에서 가장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연구방법이다.

질적 사례연구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경계(boundary) 지어진 체계(system) 내에서 어떤 발현 현상이 어떠한 과정으로 발현하는지를 이해하거나 발전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Creswell, 2007). 사례연구는 하나의 사건, 현상, 활동 혹은 사회학적인 단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설명과 분석이며 단일 사례 또는 복합 사례인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Creswell, 2017).

이와 같이 생애사적 사례연구는 일시적 사실이나 사건의 기록, 경험에 대한 사례를 생애시기의 시간 흐름에 따라 체계화하는 연구이다. 또한 사례의 분석단위는 개인, 집단,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 범주에 따라 에피소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또 지역, 학교, 교실 등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사례를 통해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과정을 시간의 범주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사례연구의 절차는 5단계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사례연구의 절차

단계	내용
① 사례연구 설계하기	연구문제 설정, 연구목적 설정, 분석 단위 규명
② 자료 수집 마련하기	연구원의 능력 및 실력 검토, 사전교육, 사례연구 프로토콜 고안
③ 자료 수집하기	자료 수집(문서, 기록, 면접, 관찰, 물리적 인공물), 복수사례, 디비(DB) 만들기, 자료와 연관고리 만들기
④ 자료 해석하기	전사작업, 기록작업, 개방코딩, 심층코딩, 주제발견
⑤ 사례연구 검증하기	구성타당성, 내적타당성, 외적 타당성, 신뢰성

출처: 김영순 외 공저(2018) 재구성

이 연구는 <표 III-17>의 절차에 의거하여 1단계 ‘사례연구 설계하기’는 연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증적으로 연구문제와 연결시켜 연구의 결론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Yin, 2005). 제한 이주민사업가의 한국사회 통합에 대한 연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설계하였다.

2단계는 ‘자료 수집 마련하기’ 단계는 연구에 적합한 사례와 경험을 수집하기 위한 단계이다. 연구를 하기 위해 질문지를 작성하고 연구참여자 인터뷰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적합한 경험을 가진 이주민사업가를 탐색하고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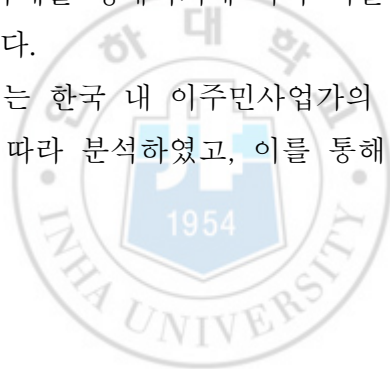
3단계인 ‘자료 수집하기’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 및 심층인터뷰를 하고 연구참여자를 면담,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생애시

기에 맞추어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생애시기에 따른 사건에 대해 인터뷰하거나 인터뷰 과정에서 관찰, 기록 등을 하였다.

4단계는 ‘자료 해석하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심층인터뷰한 자료를 전사하여 텍스트화 하였으며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요 주제를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5단계 ‘사례연구 검증하기’ 단계는 연구에 대하여 객관화하고 연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하여 이주민사업가들의 생애사적 경험 사례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동료 연구자들과 논의하기도 하고 지도교수님을 통하여 재검증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례가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지, 사례연구에 따른 사례를 명확히 하였는지, 사례에 일치하게 해석되었는지 등을 통해 연구의 질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사업가의 사례를 생애시기에 따라 이들의 사회통합 경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이주민사업가의 사업 경험을 Esser(2001)의 사회통합 구성요소에 따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을 탐색하였다.



### 3.3. 연구참여자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연구자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사업가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선정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 조건은 첫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사업가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업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에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사업가이다.

둘째, 한국에서 3년 이상 사업 운영을 한 사업가이다. 그 이유는 한국에 이주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3년 이상의 사업 경험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도 경험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한국에서 사회통합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에서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였거나, 이수한 사업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였거나, 이수하면서 사회통합의 개념을 인지하고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사회통합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 사회통합교육이 운영되기 전에 국적 취득을 한 이주민사업가들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사업 경험 및 국적 취득 등을 통해 사회통합의 의지가 있으며, 사회통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고려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주민사업가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에 참여할 대상자에 대한 공고를 올리고 약 70여 명에게 메일과 전화, 그리고, 직접 방문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할 의사를 개진하였다.

둘째,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사업가를 표집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사업가를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을 하였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사업가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한 이주민사업가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센터를 통해 국내에서 7년 이상 체류하고 있고, 한국어능력 중급 이상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주민사업가를 서울, 인천, 경기 지역당 1명씩 3명을 소개받고, 그들을 통해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했다.

연구에 참여한 이주민사업가는 총 13명으로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성별	나이	입국 년도	거주 기간	출신국	현재 국적	개인적 특성
A	여	38	2007	13	중국	한국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 유학생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시작, 2017년 귀화, 2020년 한국인과 결혼, 현재 국제물류 사업중
B	남	34	2006	14	중국	중국	유학생으로 이주하여 석사 졸업 후에 국제물류 사업중
C	남	34	2006	14	중국	중국	유학생으로 이주하여 석사 졸업 후에 국제물류 사업중
D	남	38	2004	16	요르단	한국	요리사로 이주한 후에 사업 시작, 현재 식당 2개,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 병행, 2018년 귀화
E	남	35	2003	17	요르단	요르단	사업목적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이주, 사업 시작하여 현재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중
F	남	30	2009	11	요르단	요르단	유학생으로 이주하였으나, 유학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중
G	남	42	2002	18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관광방문 자격으로 이주, 불법 체류 경험, 이주근로자로 체류자격 변경, 사업목적 단기방문 자격 변경, 사업시작하여 현재 식당 7개,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 병행
H	남	43	2000	20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관광방문 자격으로 이주, 불법 체류 경험, 이주근로자로 체류자격 변경, 사업목적 단기방문 자격 변경, 사업시작하여 현재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중

구분	성별	나이	입국 년도	거주 기간	출신국	현재 국적	개인적 특성
I	남	23	2006	14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사업가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재학 중 이주, 말레이시아 어학연수, 중학교 중퇴, 사업 시작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중
J	남	49	1999	21	파키스탄	한국	이주근로자로 이주, 불법 체류 경험, 사업 시작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 중, 2018년 귀화
K	남	52	1999	21	파키스탄	한국	관광 목적으로 이주, 불법 체류 경험, 이주근로자 변경,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 파키스탄 부인하고 결혼, 사업 시작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 2008년 귀화
L	남	43	2000	20	파키스탄	한국	이주근로자로 이주, 사업 시작하여 식당,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 한국인과 결혼, 2019년 귀화
M	남	34	2011	9	베트남	베트남	이주근로자로 이주, 사업 시작하여, 식당 2개 운영중

위의 <표 III-18>과 같이 연구참여자는 총 13명으로 나이는 20대 1명, 30대가 7명, 40대가 4명, 50대가 1명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지만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주 시기는 1999년부터 한국에 이주하여 22년 된 연구참여자도 있지만 2011년에 이주하여 적게는 10여 년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다. 이들의 고국은 중국 3명, 요르단 3명, 키르기스스탄 3명, 파키스탄 3명, 베트남 1명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연구참여자는 중국 1명, 요르단 1명, 파키스탄 3명으로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였으나 국적을 취득한 연구참여자는 5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종목은 중고자동차 수출 9명, 국제물류 3명, 식당 운영 3명으로 다양하다.

### 3.4. 자료 수집 및 분석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에게 1주일 전에 전화나 메일로 질문내용을 사전에 발송했다. 인터뷰 시간과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사업 활동 유형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공통된 의견은 일과를 마친 오후 7시, 외부로부터 독립된 자신의 사무실을 선호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사무실에서 개인별 1회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인터뷰 횟수는 각각 5회씩 다음 <표 III-19>의 인터뷰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표 III-19> 인터뷰 개요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A	2017.06.25	2017.7.13. (전화)	2018.8.27	2019.7.20	2020.02.12
B	2018.07.12	2019.08.29	2019.12.02	2020.03.05	2020.03.30. (전화)
C	2018.07.13	2019.07.03	2019.12.27	2020.03.01	2020.04.01. (전화)
D	2017.07.04	2018.09.30	2019.03.29	2019.11.01	2020.01.19. (전화)
E	2018.07.27	2019.04.29	2020.01.06. (전화)	2020.02.01. (전화)	2020.03.02
F	2017.11.15	2018.10.17	2019.07.08	2020.01.29.	2020.02.25
G	2018.01.14	2019.01.11	2019.10.01	2020.01.31	2020.03.04
H	2018.07.07	2018.10.18	2019.08.06	2019.11.11	2020.03.03
I	2017.11.20	2018.08.01	2019.04.16	2019.12.28	2020.02.01
J	2017.10.30	2018.06.18	2018.12.25	2019.03.27	2020.03.08
K	2018.05.12	2019.1.21	2019.10.03	2020.01.05	2020.02.08
L	2017.07.11	2018.02.06. (전화)	2019.05.11	2019.12.30	2020.02.23. (전화)
M	2019.03.25	2019.08.27	2019.10.14	2019.12.12	2020.01.15. (전화)

심층면담은 위의 <표 III-19>에서와 같은 인터뷰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시에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기록과 녹취를 병행하였다. 녹취한 자료를 범주화 분석을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녹취한 자료를 참여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하고, 녹취한 자료를 범주화 분석을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전문가 3명에게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질문지를 작성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 <표 III-20>의 질문지를 활용한 개방형 질문을 진행했고, 내용은 연구참여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내용에 대한 질문, 이주 전 고국에서의 경험, 이주 초기, 현재에 대한 질문, 미래 삶의 계획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진행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면담할 수 있다고 요청한 조용한 장소인 일과 후 사무실을 이용하였으며,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문 시간을 참여자가 정한 저녁 7시에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지는 다음 <표 III-20>의 내용과 같다.

<표 III-20> 인터뷰 질문지

구분	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 이주민사업가의 일반적인 사항(연령, 학력, 성별, 활동 분야, 가족 등)
이주 전	- 고향에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주 초기	-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 한국에 와서 도움을 받은 지원(단체, 개인)이 있었습니까? - 지원(단체, 개인)을 받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 한국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구분	내용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도움을 받은 지원(단체, 개인)이 있었습니까?</li> <li>- 지원(단체, 개인)을 받았을 때 어떠했습니까?</li> <li>-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li> <li>-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어떠했습니까?</li> <li>-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li> <li>-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li> <li>-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li> </ul>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li> <li>- 미래 삶의 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li> </ul>

위의 <표 III-20>의 내용과 같이 인터뷰 질문지는 먼저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의 연령, 학력, 성별, 활동 분야, 가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이주 전 고국에서의 직업은 무엇이였으며,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된 배경이나 계기, 가족의 상황 등을 이해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셋째, 한국에 이주한 초기의 어려움이나 도움을 받은 단체하고 친구나 이웃 등이 있었는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험한 이주 초기의 경험은 어떠하였는지,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응 등에 대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넷째, 현재 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받은 단체나 기관이 있는지, 사업을 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국 사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겪는 적응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사업가로서의 성공 여부, 관계적이고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미래 삶의 꿈과 계획은 무엇인지, 국적 취득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사업에 대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여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질문지 구성에 따라 생애시기 별로 분석하였다. 사례연구의 분석에서는 생애시기에 초점을 두고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인 행위와 의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맞추었다. 또한 자료의 범주화

를 통해 축적한 자료를 생애시기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세분화된 자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사록 223쪽, 단어 48,754개, 문단 3,021개에서 발견한 유형과 주제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 코딩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비교분석하며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였다. 주제발견은 선행연구와 이론을 통하여 발견한 내용을 찾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 3.5.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의 윤리성과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자료 수집과 분석단계는 연구가 끝난 뒤에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Creswell, 2007).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이주민사업가들의 사업 경험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인간을 탐구대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윤리의식을 가지고 면담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 그 후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연구 참여동의서 2부를 작성하고 연구참여자의 서명을 받은 후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각각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연구 참여동의서에는 연구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인터뷰 시 연구에 참여의사가 없거나 중단의사가 있으면 즉시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인터뷰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 이외에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주었고 연구 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한 후 폐기함을 알려주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동의서에는 연구에 대한 내용과 연구방법, 연구윤리, 심층인터뷰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Guba & Lincoln(1981)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에 의해 연구에 접근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로 연구자는 첫 번째 원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면담질문지를 미리 연구참여자에게 주지 않고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후 인터뷰 전사 자료는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적합성은 자료 분석에 대해 동료 질적 연구자에게 주기적으로 검토 받고 인터뷰 상황에 적합하게 분석하였는지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셋째, 일관성으로 Guba & Lincoln(1981)은 일관성 대신 감사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자취가 다른 연구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주기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님, 선배 박사님, 박사 수료생, 동료 연구자들과 연구 과정에 대해 토론을 하며 연구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였다. 넷째, 중립성이다. 연구에 중립성을 가지기 위해 인터뷰 내용이나 분석과정에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

해 이주민사업가를 상담하거나 주기적인 만남 과정 등을 거쳤다.

이렇게 연구자는 본 논문의 해석에 대한 합당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삼각검증기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논문에 대해 주기적으로 연구실 연구발표회, 그리고 세미나(seminar)를 통해 발표하였고 지도교수님, 연구실 출신 선배 박사님, 동료 질적 연구자 등의 의견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하여 수용하고 보완하였다.



## IV. 사회통합 경험의 생애사적 사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주민사업가 13명의 사업 활동 경험을 통하여 이들의 사회통합 경험에 관한 사례를 생애사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시기별 생애사별 주제 경험을 분석한 결과 이주 전 삶의 경험 주제는 5개, 이주 초기 삶의 경험 주제는 6개, 현재 삶의 경험 주제는 6개, 미래 삶의 계획 주제는 3개였으며 생애시기별 전체 경험 주제는 20개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과거로부터 현재의 삶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환점에서 직면했던 선택이 현재 삶의 사회통합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들의 삶의 경험을 통한 사회통합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한국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이르는 진지한 탐색의 재구성이 될 수 있다. 이주민사업가들에 대한 삶의 이해, 이들의 시각으로부터 의미를 도출하는 생애사적 사례는 사회통합 경험의 탐색적 도구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13명의 생애사 개요에서는 가족의 초국적 이주 배경을 비롯한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현재의 삶을 통한 미래 삶의 계획까지 전반적인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이주민사업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통합 경험의 생애사적 기술을 이주시기별 주제로 나누어 삶의 기회와 선택의 전환점에서 이들의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사회통합 경험의 사례 간 분석에서는 이주민사업가들의 이주로 인한 사회적 지위와 사업의 계기를 통한 정체성과 시민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 4.1. 생애사 개요

국경을 넘는 다양한 영역의 활발한 교류는 초국적 이주를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출과 다양한 정체성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김영순 외, 2019).

연구참여자 13명 생애사 중에는 가족의 초국적 이주 배경을 포함해서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다양한 형태의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의 장기 체류로 인한 정체성과 시민의식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이주 형태와 삶의 궤적을 통한 정체성의 확인은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일 수 있으며 이주민 사회통합의 과정이며 지평의 시작일 수 있다.

연구참여자 13명에 대해서 한국사회에서의 생활과 사업을 통한 경험, 그로 인해 사회통합에 이르는 경험의 과정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A는 중국 장춘이 고향이고, 중국 55개 민족 중에 한족<sup>11)</sup>이다. 2017년 귀화한 38세 여성으로 부모님께서도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군대에 가라고 하셨다. 고등학교 때 외국어를 좋아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2003년 스무 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일본 동경 A대학교 일어일문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한국 교수님도 만나고 한국인 친구도 만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서울은 동경하고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비슷하고, 중국하고도 지리적으로 가까웠다.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공부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2007년 서울에 있는 L대학교에 유학을 왔다. 한국어를 1년 동안 공부하고, 2008년 H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

연구참여자는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하면서부터 한국하고 한국문화에 매력을

11) 두산백과(2020). 중국 55개 민족 중에 최대 민족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약 13억 4324만 여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느끼게 되면서 한국에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는 2011년 대학교 3학년 때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 회사에 입사했다. 무역 관련 일을 직접 하고 싶었지만 주로 수출 관련 통역, 번역 업무를 했다. 2012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년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접 무역을 하는 것이 적성에 맞겠다고 판단해서 부모님과 상의하고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연구참여자는 투자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한국의 은행에 입금될 때 ‘투자’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외국으로 송금할 때 ‘생활비’ 등등 단어들은 가능하지만 ‘투자’라는 단어는 절대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중국에서 ‘투자’라는 단어는 회사가 정부에 신청하고, 정부 승인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며 개인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마침 예전에 홍콩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선택의 행운이 따랐던 것 같다. 2015년 이후 홍콩에서 장기거주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기 어려워졌는데, 이 정책은 돈을 중국 본토로 바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일부 중국인들이 홍콩 은행을 통한 일종의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는 2013년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세금이 많아서 중국 현지 거래처에서 비싸다고 하니, 국내 마진을 낮추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점점 사업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유아용품으로 변경해서 중국하고 홍콩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는 사업을 하면서 준법정신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되면 분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한국사회이해’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 법 등에 배우면서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다. 2016년 귀화 신청을 했으며 귀화면접심사 면제 혜택을 받았고, 2017년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019년부터 중국 내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2020년 2월에는 한국인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 ■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B는 중국 국적의 34세 남성으로 민족은 한족이다. 2006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아서 유학을 결심했다. 유학은 영어권이 아닌 나라로 가고 싶어서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셔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2006년 서울에 있는 A대학교 어학당에서 6개월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있는 B대학교로 옮기게 되었고, 2008년 왕십리에 있는 B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경영학과는 동문이 많아서 적응하기 쉬울 것 같았고, 졸업할 때 논문을 안 쓰고, 일정 학점만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한국에 와서 1년 3개월 정도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내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다. 2008년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중식당을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이유도 있었다.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용기 뒤에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하고 싶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사업에 도전하는 추진력이 있었고, 한 달 안에 시작할 수 있는 순발력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대학교 4년 동안 중식당을 운영했는데, 처음 인수할 때 조선족 이모(동업자)하고 3천만 원씩 투자해서 동업 방식으로 시작했는데, 10개월이 지나면서 그만둔다는 말도 없이 사라진 동업자 때문에 혼자 운영해야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조선족 이모(동업자)는 한국인 남편하고 위장결혼을 한 상태에서 식당 명의로 일숫돈을 빌려서 투자한 것이었다. 2년 후에 나타나서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면서 식당을 본인이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조선족 친구하고 위장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명의 변경도 하고 일이 잘 해결되었다. 식당은 요리사를 고용하고 직원도 채용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노력한 덕분에 마침내 흑자를 낼 수 있었다.

2012년에 대학 졸업을 하면서 식당은 흑자 매각하고, 중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던 중 2014년 화장품 수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였는데, 사업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날로 번창하였다. 이후에 친구하고 경기도 OO시에서 국제물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무역경영(D-9) 비자를 다양한 경제 활동이 가능한 거주(F-2)비자로 변

경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단계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한국사회이해’ 과정에 참여하였다. 사업 활동을 하다 보니, 기업체 견학 등 경제 현장 참여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9년부터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 법인하고 연동할 계획으로 국제 물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C는 중국 국적의 34세 남성으로 민족은 한족이다.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공자 75대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고향은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곳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가 끝나고,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6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의 유학 조건을 알아보던 중에 일본은 역사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영향도 있고 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에이전시(agency)를 통해 2006년, 인천에 있는 A대학교 어학당에 입학하게 되었다. 1년 동안 어학연수(D-4)를 하였는데, 한국에 온 첫날부터 매일 일을 했고 지금까지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

연구참여자는 당시 중국에서 인기 직종이었던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 2008년 서울에 있는 B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했고, 입학하게 되면서 서울로 이사를 갔다.

연구참여자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은 음식이었다. 고향에서는 짜고 매운 음식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한국 음식은 그렇지 않아서 처음 얼마 동안은 힘들었다. 두 번째로 마주한 어려움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을 때였다.

연구참여자는 대학교 4년 동안 4~5시간만 잠을 자면서 공부하고 일을 병행하였지만, 한국은 기회의 땅이었고,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라고 생각하였다. 2012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3월, C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D-2)에 입학하였다. 특수대학원이라서 주중에는 성형외과에서 마케팅 관

런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는 2014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화장품 수출 회사를 창업했는데, 2016년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 관련해서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연구참여자는 이전부터 물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7년 국제물류 사업을 시작했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물류의 취약점은 지연되거나 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작년 설날 전에 배송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의 회사는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여가 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등 불편함이 있기도 하다. 의사소통 때문에 중국인 직원을 고용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은 모든 것이 익숙하고 좋은 그 이상의 편안함이 있는 나라이고,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중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한국 국적을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으로 이주하고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하였다. 한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어도 문화 차이를 느끼고 있지만 한국의 예절 문화는 중국에 없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대해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개인투자(D-9)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하고 싶어서 비자를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17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단계와 ‘한국사회이해’ 과정에서 공부하였다. 2006년 이주 초기에 의무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한국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하였다. 2017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거주(F-2)비자를 신청하였으며 3주 후에 비자 변경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앞으로의 꿈은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다.

## ■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D는 요르단 출신 38세 남성으로 민족은 아랍인<sup>12)</sup>이다. 2018년에 귀화했다. 연구참여자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요리학교에 다녔고, 졸업하고 난 후에 대형 식당에 취업해서 요리사가 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외삼촌은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1998년부터 한국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 방문해서 한 달 또는 몇 달 동안 머물렀는데, 할랄 식당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외삼촌은 동인천에 있는 아랍 식당을 자주 이용했는데, 요리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구참여자에게 한국으로 오겠느냐고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요르단 공항에서 2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다. 장남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 간다고 하였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믿기 때문에 응원한다고 잘 다녀오라고 하였다.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응원에 힘입어 2004년 4월, 한국에 오게 되었고, 동인천 아랍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식당 옆 건물에서 살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도 월급은 12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식당 고객은 외국인도 있었지만 한국인이 더 많았는데,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맛을 찾는 것은 어려웠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05년 고향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르단에서 온 사업가가 식당에 왔다. 같은 나라에서 왔고, 나이도 비슷해서 쉽게 친해지게 되었는데,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외삼촌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친하게 되었고,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부모님과 외삼촌하고 상의하고 나서 기업투자(D-8) 비자를 발급 받고 2007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요르단 사업

12) 두산백과(2020). 아랍어를 쓰는 여러 민족으로 아라비아인이라고도 부른다. 종교는 대부분 이슬람교이고, 아랍인의 약 2/3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는 아시아(중동)에 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인도 등에 이주한 사람도 많다.

가하고 친구가 되었고, 사업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외국에서 바이어(buyer)가 많이 들어오는데, 맛있는 아랍 식당을 찾는 것을 보면서 외국인들에게 직접 요리해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2010년에 아랍 식당을 개업하였다. 식당에는 외국인 요리사하고, 서빙(serving)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수출 회사에 있는 한국인 직원, 외국인 직원들하고 모두 모여서 회식도 하고, 한국 명절에는 한국식으로 떡국도 만들고, 송편도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인 직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진짜 한국인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업을 하면서 한국인 직원들이 성실하고, 많은 한국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을 보면서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2015년 9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몇백 번 전화 통화를 하고 몇백 킬로미터(kilometer)를 다니는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인이 되려면 한국어하고 한국문화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2015년 9월 초급2 단계에 참여해서 2017년 3월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까지 이수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17년 3월에 국적 신청을 하여 2018년에 국적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던 날은 많이 울었다고 하였다.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에 와서 15년을 지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였다.

## ■ 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 E는 요르단 출신의 35세 남성으로 2003년에 이주했으며 민족은 아랍인이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때 요르단으로 이주했고, 미국에서 유학을 한 의료 분야 엔지니어로 미국 대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지사 임원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서 열세 살까지 살다가 아버지가 귀국하면서 요르단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요르단에 귀국한 뒤 독일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였고, 한국에도 자동차 사업차 방문하여 자동차를 요르단에 수입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2003년 열여덟 살에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한국 회사가 있는 수원에 왔다.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해서 자동차를 매입하고 수출하는 일을 하였고, 요르단에 돌아가서 자신이 보낸 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2년 정도 하였다. 2005년에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OO어학당에서 공부하기도 하였다. 2008년 기업투자(D-8) 비자를 발급받고, 서울하고 인천에서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유년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냈고, 요르단에서 4년 동안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해서 18년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애 가장 긴 시간을 한국에서 거주하였다. 사회가 안전하고, 한국인의 정서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성하고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서 정주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사업을 하면서도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어서 2012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단계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요르단으로 출장으로 가게 되고 바쁜 일정으로 인해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한국 국적을 신청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2018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단계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난 뒤에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하게 되었다고 했으며, 2019년 4월까지 이수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생애 가장 긴 시간을 거주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업가의 꿈을



이루었고, 결혼도 하고 두 명의 아들도 있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다. 정주를 꿈꾸고, 세대를 이어나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2018년 12월에 한국 국적을 신청하였고, 2020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 연구참여자 F

연구참여자 F는 요르단 국적의 30세 남성으로 민족은 아랍인이다. 이집트 대학교에서 엔지니어링(engineering)을 전공하기 하기 위해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2009년,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넷째 작은아버지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도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중고자동차 관련 사업을 했었다. 아버지는 일곱 형제 중에 첫째 아들이고, 넷째 작은아버지는 1994년에 한국에 왔고, 2014년 귀화한 한국인이다.

연구참여자는 삼촌이 인천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A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공부보다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대학교 입학은 포기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어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상의하고 난 후에 집안에서 하고 있는 중고 자동차 수출 관련 창업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작은 아버지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었다. 마침 친구가 2012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좋다고 해서 2013년 3월부터 주중에는 사업을 하고 주말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를 하였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단계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2015년 7월까지 이수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요르단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아버지가 현지에서 판매를 했는데, 둘째 작은아버지, 셋째 작은아버지도 아들들이 한국에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다섯째 작은아버지도 한국으로 이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 일곱 형제 중에 5명이 한국하고 요르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할아버지는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다가 1948년 전쟁으로 인해 요르단으로 이주해서 결혼했고, 일곱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는 자신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면서 요르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자동차 수출 사업은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2015년 요르단에 가서 부모님께서 소개해 준 지금의 부인하고 결혼했다. 부인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지만 한국어교육센터가 멀기도 하고, 아이들도 어려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가끔 한국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연구참여자의 친척하고 가족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여가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는 보통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한국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업체를 방문할 때 함부로 대하거나,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문화의 경로사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미안하다고 했는데, 친동생도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는 19살 때 한국에 왔고, 친척하고 가족들이 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고, 요르단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자신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는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신분증을 바꾸는 것이고, 스스로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생각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가 본 적이 없지만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요르단 사람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녀들이 아랍어를 잘 배우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요르단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코란(Koran)을 수월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Muslim)이라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 존중받고 싶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고 하였다.

## ■ 연구참여자 G

연구참여자 G의 할아버지는 1947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키르기스스탄 지역으로 이주한 우즈베크인<sup>13)</sup>이다. 아버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42세 남성으로 2002년에 이주했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감자, 양파 같은 농산물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러시아에 직접 가서 판매도 하면서 많은 수익이 있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다. 1989년에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5년 동안 투병을 하게 되면서 집안의 경제 사정은 극도로 어려워졌고, 1994년 연구참여자가 열다섯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러시아에 가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이어서 하게 되었고, 스무 살이 되면서 고향에 있는 시장에 2개 매장을 열고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한일 월드컵 대회 즈음, 친구들이 한국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매장은 형과 동생에게 주고, 2002년 6월에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한국인 남편하고 결혼한 키르기스스탄 여성을 만났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여성의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여성의 집이 있는 수원까지 동행하였다. 수원에서 피자를 사주어서 먹었던 그 날의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화성 발안에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갔고, 아주 좁은 집에서 여러 명의 고향 친구들이 같이 살기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회사에서 9개월 동안 단 이틀만 쉬면서 계속 일을 했다고 하였다. 한 달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달 이후부터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잠을 줄여가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하였다. 2004년 불법 체류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정책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 받고,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 집을 매입하였다.

---

13) 두산백과(2020). 우즈베키스탄의 주류 민족으로 총 인구 약 3,100만 여명의 80%인 2,500만 여명이다. 우즈베키스탄 이외에 주변 인접국 아프카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도 많은 수가 살고 있다. 1928년까지 아랍문자를 사용했으며, 1992년 이후 라틴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2004년 다시 한국에 와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주변 자동차 매매단지를 찾아다녔다. 대우 차가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인기가 있어서 아주 비싼데, 한국에서는 비싸지 않은 것이 궁금해서였다. 그래서 수원하고 안산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에 찾아 갔는데, 옥상에 대우 차 200여 대가 있는 것을 보면서 무척 놀랐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향으로 대우 차를 수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자동차 수출하는 사업가의 명함을 받고 인천 송도 수출단지에 갔는데, 끝도 없는 차들을 보고 ‘정말 이거다’라고 확신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3개월 후에 고향에 가서 집을 팔고,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았다. 한국에 와서 3개월 동안 자동차를 매입해서 고향에 보내고, 고향에 가서 자동차를 판매한 후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한 지 2년이 지난 2006년 기업투자(D-8) 비자를 발급 받고 인천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중고자동차, 생활 물품 등을 수출하였는데, 수익도 괜찮았다.

한국 사회는 안정적이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했고, 자녀 교육을 시키기에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에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인하고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큰아들이 일곱 살, 큰딸이 네 살 때 한국에 이주했고, 나머지 다섯 명의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인지 한국 음식만 먹고, 한국 사람들보다 김치를 더 잘 먹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국적 신청을 하고 싶어서 2013년 3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단계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2015년 4월에 ‘한국사회이해’ 과정을 마치면서 만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고향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식당을 개업해서 수출 사업하고 병행하고 있다. 2017년하고 2018년에는 경기도 화성, 경상남도 김해하고 거제도 등 다른 지방에서도 개업을 해서 세 개 도시에서 7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 연구참여자 H

연구참여자 H의 할아버지는 1946년 3살 때,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키르기스스탄 지역으로 이주한 우즈베크인이고, 아버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43세 남성으로 2000년에 이주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대학에서 1년 정도 제화 기술을 배우고 고향의 시장에서 이모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연구참여자는 중국에서 의류, 농기계 등을 수입해서 다시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였는데, 사업이 번창하였다. 그 당시 한국에서 의류, 원단을 수입하는 사업가들에게서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있어서 일자리도 많고,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향 친구가 6개월 전에 먼저 한국에 들어왔고, 연구참여자는 여행사를 통해 친구하고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00년, 김포공항에 내려서 의정부에 있는 가구 회사로 갔다. 그곳에서 일을 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으며 언어도 문화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히려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의정부에서는 청바지, 원단 공장에, 인천에서는 스카프 공장에 다녔고, 화성 발안에서는 막노동, 패널(panel) 작업을 했는데, 일을 많이 했지만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03년 즈음에 키르기스스탄으로 중고차 수출이 되기 시작하였고, 인천에서 중고차 수출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때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였고, 고향에 가서 결혼하고 1년 후에 다시 화성 발안으로 왔다.

연구참여자는 2004년부터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으면서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매입해서 수출하고, 고향에 가서 차를 받아서 판매하고 다시 한국에 오는 일을 3년 정도 하였다. 화성에 살면서 아침에는 인천에 와서 차를 샀고, 저녁에는 화성으로 왕복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2006년 동인천으로 이사를 왔고, 2008년 투자 비자(D-8)를 발급 받았다.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2년에 친구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2013년 3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

화’ 중급1 단계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2015년 4월 ‘한국사회이해’ 과정까지 이수하였다. 사업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법 제도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사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다.

## ■ 연구참여자 I

연구참여자 I의 할아버지는 1948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키르기스스탄 지역으로 이주한 우즈베크인이고, 아버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가진 23세 남성으로, 2006년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이주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1999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형이 초청해서 오게 되었고, 의류를 고향으로 보내고, 친구가 고향에서 받아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2000년 쯤 한국 차가 키르기스스탄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02년 한국에 왔다. 한국에서 의류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이 안정되면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한국어였다. 당시 연구참여자는 8살이었지만, 아버지는 빨리 한국어를 배워서 사업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다. 처음 한국에 와서 어린 이집에 다녔고, 1년 후에 초등학교 3학년에 편입이 되었다. 형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형에게 러시아 국적을 주고 싶었고, 어릴 때 고모에게 입양이 되어 러시아 국적이라서 연구참여자가 대신 오게 되었다. 후에 형은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러시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00시에 있는 대학교에 유학을 오게 되었고, 지금은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다.

초등학교 때 기억은 이름하고, 얼굴이 달라서 아이들하고 아주 많이 싸웠다. 왜 싸웠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이들이 이름을 가지고 놀렸는데,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친구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한다’면서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는 2014년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말레이시아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다. 아버지는 한국어로 인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판단했고, 이제는 영어를 배우라고 했던 것이었다. 아버지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 화도 많이 났지만 항의를 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였기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자유로움이 더 컸고, 영어 공부만 했기 때문에 아주 좋았다.

아버지는 2016년 7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연구참여자는 중학교 졸업장이 없었지만, 토플 만점을 받았고, 아랍어, 말레이어, 러시아어, 키르기스어를 할 수 있었고, 그중에서 한국 사람하고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자신 있었다.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지만, 무엇을 하기 전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었다.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에는 친구가 없고, 말레이시아에는 친구가 많이 있지만 갈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말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왔다.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연구참여자가 한국에 오기 6개월 전에 한국에 왔고, 여동생은 11살이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말레이시아로 떠나기 전 연구참여자는 아버지, 형, 고모의 아들인 고종사촌하고 같이 살았고, 고종사촌 형은 2년 전에 결혼해서 독립했다. 형은 연구참여자가 말레이시아로 떠나기 전에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형이 사업을 하기 원했지만 형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와 갈등이 많았다.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와서 연구참여자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어머니도 아버지의 뜻에 따르라고 해서 아버지 사업을 도우면서 본인의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연구참여자는 중고자동차를 중앙아시아로 수출하고 있고, 아버지 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하는 국가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있을 경우 사업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요즘은 동남아시아로 수출하고 있는데, 고객(상대국 파트너)이 한국어를 몰라서 영어로 소통하고 있지만 고객은 아버지 친구의 사업 고객이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의 파트너십(Partnership)도 좋았다.

연구참여자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 국적을 신청하고 싶었다. 2017년 8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단계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사회 이해’ 수업까지 이수하였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 ■ 연구참여자 J

연구참여자 J는 파키스탄에서 1999년에 이주한 49세 남성으로 2018년 귀화하였다. 아버지는 인도 편자브 지방에서 살던 인도 아리아계 편자브인<sup>14)</sup>으로 1947년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될 때 가족과 함께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였다. 아버지는 카센터를 운영하였고, 형은 공부를 좋아해서 경찰 공무원으로 25년 근무하고 정년퇴직했다. 셋째 남동생은 파키스탄의 중국 전자회사에서 제품 수리 센터에 다니고 있고, 여동생들은 결혼해서 파키스탄에서 살고 있다. 여섯째 남동생은 한국에서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막내 남동생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귀국해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카센터를 하면서 아침이면 오토바이로 형제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까지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기계 운전이 관심이 많아서 학교가 끝나고 카센터에서 트랙터하고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운전도 하면서 꿈을 키웠다. 연구참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복권에 당첨이 되면서 많은 돈을 받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택시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1998년 바레인에서 친구의 초청을 받았고, 그때부터 해외에 가서 꿈을 펼치고 싶은 꿈이 생겼다. 마침 한국에 연수생으로 갈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다. 바레인보다는 한국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가 있었고, 시험을 보았지만 한국어가 부족해서 합격하지 못했다.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1999년 시험에 합격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처음 천안에 있는 회사에 취업했는데, 사장님은 영어를 잘해서 점심시간마다 영어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19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이주노동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었고, 충고와 조언은 지금까지 생활 철학이 되었다. 하지만 연수생 월급으로 고향에 돈을 보내고,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회사를 이동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안산에 있는 상

---

14) 위키백과(2020). 남아시아 편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인도아리아인 민족으로 파키스탄 최대 민족이며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 편자브인들은 1947년 인도하고 파키스탄 분리 독립 때 파키스탄으로 이동하였다.



자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자진 출국하면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정책에 따라 고향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다. 2005년 투자 비자(D-8)를 받고 처음에는 인테리어 타일, 여성 의류를 수출하는 사업을 했는데, 계절별로 수출 품목이 바뀌기도 하고 수익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고 전공했던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인천에 있는 OO구에 창업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먼저 사업을 하고 있었던 친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예전에 안산 반월 공단에서 출퇴근할 때 OO폐차장을 지나다니면서 차들이 많았던 기억이 났고, 무작정 찾아갔다. 연구참여자는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어서 국적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고, 친구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2013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2 단계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법과 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연구참여자는 2015년 7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수하고 나서 바로 국적 신청을 했고, 2018년 5월에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 여권이 생기고, 파키스탄 영주권이 생기면서 파키스탄 국적의 부인하고 다문화가정이 되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차별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파서 1년에 한두 번씩 한 달 동안 고향에 보내고 있다. 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면서 자라게 하고 싶었다.

연구참여자는 국적을 받고 회사를 더 크게 키워서 다른 나라에 지사를 만드는 꿈이 생겼다. 아들이 과학자가 되고, 자신은 해외 지사를 키우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하였다.

## ■ 연구참여자 K

연구참여자 K는 2008년 귀화한 52세 남성으로 1999년 파키스탄에서 이주했다. 할아버지는 파슈툰족<sup>15)</sup>으로 터키에서 아프카니스탄으로 이주했고, 다시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였는데,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10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다.

연구참여자의 형제는 여덟 명이고, 두 명 형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고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다른 두 명 형님은 파키스탄에서 중고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명의 누나는 파키스탄에서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네 명 형들이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목재 관련 사업을 하였는데, 지사도 많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목재 회사에서 같이 사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해외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999년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친구 두 명하고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당분간 머무르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일본으로 가면서 한국에 혼자 남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이태원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 살다가 평택에 있는 회사에서도 얼마 동안 일하다가 여러 나라로 원단을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기도 하였다.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를 배워야 했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를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인하고 결혼하였으나, 얼마 후에 이혼하였다. 2007년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차 50여 개 나라에 다니고 있지만, 한국처럼 친절하진 않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는 2008년 귀화하였으며, 한국인로서의 자부심과 수출을 하면서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파키스탄은 고향이지만, 한국은 두 번째 고향이며 한국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

15) 두산백과(2020). 아프카니스탄 전역에서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 사는 아리안계 민족으로 아프칸족, 파탄족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1893년 아프카니스탄과 영국령 인도로 나뉘어졌고, 파키스탄에서는 북서쪽 국경 부근에 마을을 이루고 있다.

## ■ 연구참여자 L

연구참여자 L은 파키스탄 출신 43세 남성으로 2019년에 귀화하였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편자브인으로 인도에서 살다가 1947년 인도, 파키스탄 분리 독립 때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였다.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편자브 지방에서 같은 시기에 이주한 어머니하고 결혼하였다. 아버지는 소를 사고 파는 사업을 하였는데, 연구참여자가 9살 때 매매 대금을 받아서 귀가한 날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 후 아버지의 사업은 형이 이어받아서 지금도 고향에서 운영하고 있고, 세 명의 누나들도 결혼해서 고향에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200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친구에게서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들에게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믿지 않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친구하고 같이 시험에 합격했고, 2000년 부산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골프 호스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4년 10개월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할 정도로 회사 사장님하고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았다. 지금도 가끔 부산에 가면 회사에 들러서 인사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다. 당시에는 휴대 전화가 많지 않아서 회사 근처 가게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고향에 전화를 하곤 했다. 고향에 돈을 보내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하고 친척들이 좋아 하는 것을 보면서 힘든 것을 참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서울하고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창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4년 10개월 동안의 E-9 비자가 만료되어 고향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비자 발급에 관한 준비를 하고 파키스탄에 귀국했다가, 2006년에 인천으로 오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인천에 사무실을 내고, 처음에는 굴삭기를 파키스탄에 수출하였는데, 자동차를 수출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자동차 수출이 사업이 안정되어 가면서 2014년에 친구하고 일산에 파키스탄 식당 운영을 하기도 하였는데, 영업 방식이나, 수익,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에 식당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수출에 주력하다가 2018년 인천에 있는 파키스탄 식당을 인수해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수익보다 파키스탄 사

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행복하고,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들이 식당에 다녀가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 좋았다고 하였다. 2014년 6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단계에서 공부를 시작하였다. 2015년에 4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종합평가에서 합격하면서 이수하고, 곧바로 국적을 신청해서 2019년에 국적을 취득하였다.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생활이 안정된 것이 좋고, 열심히 일해서 시골에 땅을 사고 싶다고 하였다. 부인하고 같이 집을 짓고 살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생겼다고 하였다.

## ■ 연구참여자 M

연구참여자 M은 베트남 국적의 34세 남성으로 베트남인(킨(Kinh)족)<sup>16)</sup>이다.

연구참여자는 2011년, 한국에 이주하였다. 4년제 대학교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대상으로 관광 가이드(guide)를 1년째 하고 있었다. 당시 베트남에는 한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한국 회사의 공장들이 새로 지어지면서 한국어 통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 관광 쪽 관련해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여 친구 두 명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였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위해서는 현지 대사관에서 면접을 해야 했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불합격했으며 같이 면접을 본 친구 두 명도 불합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로 입국하면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친구 두 명하고 같이 근로자로 오기 위해 시험을 보았는데, 연구참여자는 합격하였고 친구들은 불합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11년 스물다섯 살에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화성시 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업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고, 친구들은 베트남 현

16) 두산백과(2020). 베트남은 54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 베트남인(킨(kinh)족)은 인구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민족이며,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 한국 회사에 취업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회사에 취업이 되면서부터 주말에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센터를 알아보기 시작하였는데, 센터가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리가 멀어서 시간도 오래 걸렸다. 마침 대학교 때 친구의 고모가 10년 전에 근로자로 입국해서 인천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친구 고모가 추천해 준 회사는 휴대폰하고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논현동 회사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000센터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였다.

연구참여자의 회사는 직원이 300여 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업무는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주말에 논현동 000센터에 가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주말에 한국인 직원들하고 모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행도 가곤 하면서 회사 생활을 즐겁게 하였다. 회사에는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였기 때문에 음식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규칙을 만들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회사 사장님은 직원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힘든 점이 있는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 결과 기숙사를 개축해주어서 음식을 하는 조리실이나, 목욕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주말에 한국어는 물론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들으면서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다니고 있는 000센터 부장님, 과장님이 출입국.외국인청에 몇 번씩 문의해주고 필요한 서류를 가르쳐주고 해서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특정활동(E-7) 비자에서 거주(F-2) 비자로 변경하면 한국에서 보다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제일 큰 이유는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출입국.외국인청하고 000센터를 다니면서 거주(F-2) 비자를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았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단계에서 공부하였다. 2016년 ‘한국사회이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끝나고, 2016년 거주(F-2) 비자로 변경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거주(F-2) 비자로 변경하고, 베트남에서부터 관심이 있었던 쌀국수 식당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6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퇴사해야겠다고 결심하고, 6개월 동안 준비하였는데,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 절차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베트남 쌀국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무엇보다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베트남 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베트남 쌀국수 전문 유명 요리사가 OO 대형마트 내 체인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비법을 전수받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2017년, 인천광역시 OO구에 베트남 쌀국수 식당을 개업하였는데, 주변 상인들,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무엇보다 쌀국수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운영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20년에 인천광역시 OO구에 베트남 쌀국수 식당 2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업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반복되는 경쟁이라서 어려운 상황은 계속하여 생길 것이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생애사 개요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을 재구성하여 경험을 표현함으로써 연구자가 한번 더 사회통합의 경험으로 해석하는 의미있는 일이었다(유철인, 1998).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연결되는 경험의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2. 사회통합 경험의 생애사적 기술

이주민사업가의 생애사를 이주시기별 구분한 주제를 살펴보면 이주 전 삶의 경험에 해당하는 영역은 새롭고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꿈과 기대에 대한 갈망, 한국에 대한 관심, 가족의 초국적 이주 경험, 부모와 친척의 사업에 대한 계승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주 초기 삶의 경험에 해당하는 영역은 한국 생활 적응, 초기 사업의 어려움, 비자 발급, 한국어와 한국문화적응, 대학과 학업의 문제, 고국으로의 귀환 결심으로 구분되었다.

현재 삶의 경험에 해당하는 영역은 사업의 원칙과 사업가 윤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사업가로서의 전문성 및 역량 함양, 한국의 문화 및 사회제도 평가, 한국에서의 가족 생활, 여가와 사교 생활로 구분되었다.

미래 삶의 계획에 해당하는 영역은 한국에서의 안정된 환경과 윤택한 생활, 사업의 확장과 도전, 자녀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구분되었다.

연구참여자 13명의 이주시기별 생애사별 주제를 다음 <표 IV-21>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IV-21> 이주시기별 생애사별 주제

생애사 구분	주제
이주 전 삶의 경험	자유로운 삶의 갈망 성공으로의 꿈과 기대 한국에 관한 관심 초국적 이주의 경험 부모와 친척의 사업 계승
이주 초기 삶의 경험	좌충우돌 한국 생활 적응 초기 사업의 어려움 비자 발급의 문제 한국어와 한국문화적응의 문제 대학과 학업의 문제 고국으로의 귀환 결심



생애사 구분	주제
현재 삶의 경험	사업의 원칙과 사업가 윤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사업가로서 전문성 및 역량 함양(직업기술, 대학원 등) 한국의 문화 및 사회제도 평가 한국에서의 가족 생활 한국에서의 여가와 사교 생활
미래 삶의 계획	안정된 환경과 윤택한 생활 사업의 확장과 도전 자녀에 대한 기대와 희망

#### 4.2.1. 이주 전 삶의 경험

이주민사업가들의 이주 전 삶의 경험에 해당하는 영역은 자유롭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미지의 세계에 대한 꿈과 기대, 한국에 대한 관심, 가족의 초국적 이주 배경, 부모와 친척의 사업 대한 계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자유로운 삶의 갈망

이주민사업가들은 자유, 하나만으로 가슴이 뛰던 어린 시절에 선택한 이주는 새로움이었고, 당당한 자유였다. 일본으로의 이주에서 자유를 찾지 못한 연구참여자 A는 소중한 기회를 찾아 한국행을 선택하였고, 한국 사회에서 갈망하던 자유를 만나게 되었다.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연구참여자 B도 한국은 자유와 기회의 삶이 있는 곳이었다.

“중국에서 19살 때 유학을 가기 전까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기숙학교에서 지냈어요. 우리 학교는 약간 군대식이라서 너무 답답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

불도 개야 하고, 뛰는 운동도 해야 하고...(중략)... 답답한 상황에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도 일본사람도 답답했어요. 살다보니 일본도 힘들었어요. 일본에서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한다', '중국 사람들은 무엇, 무엇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 살기 싫었어요. 그 때 한국 교수님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A, 2017.06.25.)

연구참여자 A는 하얼빈하고 가까운 장춘에 살았다. 연구참여자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기숙학교에서 지냈는데, 학교 규칙이 엄격한 편이어서 답답해했다. 틀에 박힌 생활을 참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부모님께서 친척 중에 직업군인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군대에 가라고 하셨다. 고등학교 때 외국어를 좋아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군대는 죽어도 가기 싫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일본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즈음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고, 또 다른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오게 되었다.

"베트남에서는 관광학을 전공하면 외국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한국 공장도 많아지고, 한국 관광객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 관광 쪽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걱정했어요. 한국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멀리 가려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일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니, 한국 사람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어요. 유학생으로 온 것보다 실생활에서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M, 2019.03.25.)

연구참여자 M은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과하고 배낭여행을 다닌다거나, 요리를 만들어서 친척들을 초대하는 것을 좋아했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고, 맛있는 요리들을 먹어보고 새로운 경험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관광학과에 입학하였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행사에서 외국인 대상 관광 가이드(guide)를 하고 있었다. 당시 베트남에는 한국 회사의 공장들이 새로 지어지고, 한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통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관광 쪽 관련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다. 베트남 현지 대사관에서 유학을 오기 위해 면접을 보았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불합격했고, 함께 응시한 친구 두 명도

불합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근로자로 입국하면 일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근로자로 한국에 오기 위해 시험을 보았는데, 연구참여자만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자신의 꿈과 자유를 찾아 과감한 선택을 하는 용기가 있었고, 삶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2) 성공으로의 꿈과 기대

이주민사업가들은 자신의 꿈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였고, 가족을 생각하며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더 큰 꿈을 꾸는 데 있어서 능동적이었으며 명석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원래는 고등학교 친구가 일본에 유학중이어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중국하고 일본은 감정이 안 좋잖아요. 한국에 올 때 부모님께 한국에서 성공해야 중국에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형제가 없고, 혼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그때 제 말에 대해 농담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고, 넉넉하지 않았어요. 유학을 와서 실패하면 중국에 돌아갈 수도 없으니, 꼭 성공을 해야 했어요. 제가 실패하면 가족이 모두 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부담이 컸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마음속에는 열심히 하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B, 2018.07.12.)

연구참여자 B는 부모님이 공무원이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부모님과 다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다. 아버지는 경찰이고 어머니는 공무원이어서 중국에서 공무원이 되길 바라셨으나 성적이 좋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연구참여자는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일본으로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여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부모님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부담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모하고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옷이나,

농기계를 수입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했어요. 그 당시 한국에 갔다 온 사업하는 친구들이 일자리도 많고,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 와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H, 2018.07.07.)

연구참여자 H는 중국에서 의류, 농기계 등을 수입해서 다시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였는데, 사업이 번창하였고, 시장도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 당시 한국에서 의류, 원단을 수입하는 사업가들에게서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있어서 일자리도 많고,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한국으로 이주해서 살고 싶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고향 친구가 6개월 전에 먼저 한국에 들어왔고, 연구참여자는 여행사를 통해 친구하고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는 이주민사업가들은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을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 3) 한국에 대한 관심

이주민사업가들은 이주 전 고향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즈음으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던 한국은 이주를 감행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유학을 준비하는데, 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즈음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일본하고 한국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일본은 역사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영향도 있어서 한국을 선택했어요.”

(연구참여자 C, 2018.07.13.)

연구참여자 C는 중국 산둥성 출신이며 공자 75대손으로, 고향에는 부모님, 누나, 여동생이 살고 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가 끝나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멀기도 했지만 집안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영향도 있어서 에이전시(agency)를 통해 인천에 있는 A대학교 어학당에 입학하게 되었다.

“외삼촌이 1998년부터 한국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가 끝나고, 요르단에서 한국은 유명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했어요. 한류가 정말 굉장했어요. 나는 식당에서 요리사였는데, 손님들도 한국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연구참여자 D, 2017.07.04.)

연구참여자 D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요리학교에 다녔고, 졸업하고 난 후에 대형 식당에 취업해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다. 외삼촌이 1998년부터 한국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가 끝나고, 한류로 인해 요르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나라였으며 연구참여자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의 응원에 힘입어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4년 4월, 한국에 도착하였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에 러시아에 가서 우리나라 물건을 팔기도 하고, 고향에서 매장을 열기도 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즈음 한국에 간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

(연구참여자 G, 2018.01.14.)

연구참여자 G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즈음, 친구들이 한국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매장을 형과 동생에게 양도하고, 2002년 6월,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1999년에 큰아버지가 한국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했어요. 키르기스스탄으로 의류, 농기계 같은 물품을 수출했어요. 2002년 아버지를 초청해서 아버지가 한국에 왔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중고차하고 의류를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했어요. 수출이 잘 되어서 더 크게 키우고 싶어하셔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어

요.” (연구참여자 I, 2017.11.20.)

연구참여자 I는 1999년부터 한국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큰아버지가 2002년 아버지를 초청했고, 한국에서 중고차 수출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 의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이주 전 고향에서 유학을 준비하거나, 취업해서 또는 사업, 학업을 하고 있다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를 전후하여 한국의 경제적 번영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 4) 초국적 이주의 경험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가족 또는 자신의 초국적 이주 경험이 있었다. 초국적 이주를 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종교적인 이유 등 다양하였고,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팔레스타인에서 사셨어요. 대학교 입학할 때 요르단으로 이주 하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셨고,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대기업 법원에서 고위 임원으로 근무하셨어요. 결혼하고 내가 태어났어요. 나는 열 세 살 때까지 살다가 요르단에 처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4년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연구참여자 E, 2018.07.27.)

연구참여자 E의 아버지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고,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요르단으로 이주하였다.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국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요르단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독일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였고, 한국에 자동차 수입을 하기 위해 방문한 후에 요르단으로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서 열 세 살 때까지 살다가 아버지가 귀국하면서 요르단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독일, 미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사업차 방문하는 아버지하고 동반하면서 창업을 충실하게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참여

자의 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자동차 수출 회사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2003년 사업 파트너였던 한국 회사가 있는 수원에 오게 되었다.

“저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원래 요르단은 내 나라가 아니에요. 1948년에 할아버지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때문에 요르단으로 왔어요. 결혼해서 아버지가 태어났고, 내가 태어났고 요르단 국적을 받았어요. 팔레스타인이 위험해서 한 번도 가 보지 못했어요. 위험해서 못가요.” (연구참여자 F, 2017.11.15.)

연구참여자 F의 할아버지는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는데, 1948년 전쟁 때문에 요르단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요르단에서 연구참여자의 할머니와 결혼했고, 일곱 명의 자녀를 낳았고, 첫째 아들이 연구참여자의 아버지이다.

연구참여자는 팔레스타인에 가 본 적이 없지만,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집트 대학교에서 엔지니어링(engineering)을 전공하기 위해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2009년 삼촌이 있는 인천을 방문하였고, 어학연수(D-4)를 하면서 한국 생활을 시작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인도 편자브 지방에서 살았어요. 1947년에 인도하고 나누어질 때 할아버지는 이슬람이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 오셨고, 아버지도 같이 오셨어요.”  
(연구참여자 J, 2017.10.30.)

“우리는 파슈툰이에요. 할아버지는 터키에서 살다가 아프카니스탄으로 이주했어요. 몇 년 살다가 다시 파키스탄으로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결혼했어요.” (연구참여자 K, 2018.05.12.)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인도 편자브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이슬람이었어요. 1947년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독립할 때 파키스탄으로 이주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났어요. (연구참여자 L, 2017.07.11.)

연구참여자 J, L의 집안은 인도 편자브 지방에서 살았는데, 무슬림(Muslim)이었다. 1947년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할 때 종교적인 이유로 가족이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였다.



연구참여자 K는 터키에서 살던 할아버지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프카니스탄으로 이주하였고, 다시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등 가족이 정치 사회적인 상황에서 또는 종교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초국적 이주를 한 경험이 있었고, 이주민사업가 자신 역시 한국으로 초국적 이주를 하였다. 이처럼 윤택한 삶을 위한 초국적 이주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완성형일 수도 있지만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현재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 5) 부모와 친지의 사업 계승

이주민사업가들은 이주 전에 사업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부모의 사업을 이어 받기도 하였고, 친지하고 사업을 같이 운영하기도 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였는데, 암에 걸려서 5년 동안 온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팔았어요. 1994년, 제가 열다섯 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나는 학교에 안 가고 러시아에 직접 가서 물건을 팔고, 고향 시장에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했어요.”

(연구참여자 G, 2018.01.14.)

연구참여자 G는 1989년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5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1994년 열다섯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학교를 그만두고 러시아에 가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 받았다. 스무 살이 되면서 고향에 있는 시장에 매장 2개를 열었으며,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장에서 이모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의류, 농기계를 수입해서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했는데, 사업이 잘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H, 2018.07.07.)

연구참여자 H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대학에서 1년 정도 제화 기술을 배웠고, 고향의 시장에서 이모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연구참여자는 중국에서 의류, 농기계 등을 수입해서 다시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였던

데, 사업이 번창하였다.

“1999년에 큰아버지가 한국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했어요. 2002년 아버지를 초청해서 한국에 왔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중고차하고 의류를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했는데, 잘 되어서 더 크게 키우고 싶어하셨어요.”

(연구참여자 I, 2017.11.20.)

연구참여자 I의 큰아버지는 1999년 중국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02년 아버지를 초청해서 아버지가 한국에 왔다. 아버지는 사업이 안정되자 크게 확장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I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사업을 도우라고 하였고, 8살에 한국에 이주한 10여 년 후에 사업을 하게 되었다.

“나는 카센터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카센터에 가서 트랙터(tractor), 오토바이 수리하고, 운전을 다 배웠어요. 92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트랙터, 오토바이 면허를 다 취득했어요. 95년에 카센터를 창업할까 했는데, 우리 카센터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주변 도시에 100명 정도 창업을 해서 너무 많았어요. 야간 기술학교에서 3년 동안 자동차, 기계, 기술 관련 공부도 했어요.” (연구참여자 J, 2018.06.18.)

연구참여자 J의 아버지는 연구참여자가 태어나던 1972년, 500여 평 정도 땅을 사서 카센터를 창업하였다. 학교가 끝나고 카센터에 가서 트랙터하고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운전하는 것을 배웠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면허를 취득할 만큼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고 운전하는 것을 좋아했다. 연구참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복권에 당첨되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택시를 사서 렌트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목재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전국에 지사도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목재 공급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을 정리하셨어요.” (연구참여자 K, 2018.05.12.)

연구참여자 K의 아버지는 목재 관련 사업을 하였는데, 지사도 많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목재 회사에서 같이 사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해외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두 명 형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고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두 명 형님은 파키스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가족들이 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우리 아버지는 고향에서 소를 사고 파는 사업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가 9살 때 매매 대금을 받아 오셨는데,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이 물려받아 고향에서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L, 2017.07.11.)

연구참여자 L의 아버지는 고향에서 소를 사고 파는 사업을 하였다. 어느날 소를 팔고 매매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집에 오신 아버지는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사업은 형이 물려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첫째 형은 건설 자재 납품 도매 사업을 하고 있었고, 둘째, 셋째 형은 관광버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보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한국에 왔어요.” (연구참여자 M, 2019.03.25.)

연구참여자 M의 첫째 형은 건설 자재 납품 도매 사업을 하고 있었고, 둘째, 셋째 형은 관광버스 회사 운영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가 한국에 오려고 준비하는 중에 둘째 형이 관광버스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다.

연구참여자는 2011년 스물다섯 살에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화성시 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업하여 한국에 왔고, 7년 후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이주 전에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업 경험을 하게 된 후에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 4.2.2. 이주 초기 삶의 경험

이주민사업가들의 이주 초기 삶의 경험에 해당하는 영역은 다양한 한국 생활 적응, 초기 사업의 어려움, 비자 발급과 한국어를 포함한 한국문화적응의 문제, 대학과 학업의 문제, 고국으로의 귀환 결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좌충우돌 한국 생활 적응

이주민사업가들은 고향에서 경험한 한국 문화로 인해 한국 생활에 어렵지 않게 적응하기도 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 체류의 유혹을 고민하다가 이겨내기도 하였다. 아버지 거래 회사의 도움으로 적응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불법 체류를 하게 되고 노동 현장에서 차별을 겪기도 하였다. 이주근로자로 취업한 회사에서 원만한 생활을 하는 등 다양한 이주 초기 한국 생활 적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문화가 우리 고향, 중국 동부 쪽 하고 비슷해요. 사람들이 술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성격도 밝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다른 사람 속이는 것도 없고, 불만 있으면 바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 성격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편했어요.”

(연구참여자 A, 2017.06.25.)

연구참여자 A는 일본에서의 유학과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에 왔다. 고향에서 경험했던 한국문화 덕분에 한국 생활 적응은 편하고 좋았다. 자신의 성격처럼 솔직하고 흥이 많고 밝은 한국 사람들과의 생활은 편하고 사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6개월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한테 상담을 했어요. 나도 학교 때려치우고, 2~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중국에 돌아가서 집도 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살면 길이 하나다’, 만약에 불법 체류로 걸리게 되면 끝이라고 했어요. 노력해서 ‘학

교를 가면 길이 여러 개 생길 것'이라고 했어요. 그 형들이 저에게 매일 좋은 말로 충고를 많이 해 주었어요.” (연구참여자 C, 2018.07.13.)

연구참여자 C는 고향 부모님께 돈을 보내달라고 하기도 죄송하고 쑥스럽고, 어려워서 한국에 온 첫날부터 매일 일을 하였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공부에 지장이 있기는 했지만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가 처음 한국에 어학연수를 올 때 20명이 같이 왔는데, 연구참여자를 제외한 19명 모두 학교를 그만두었다. 공부는 안 하고 일에 집중하면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 체류 노동을 고민할 때 좋은 말로 충고를 해 준 형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저는 장남이고, 열일곱 살은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2년 동안 일을 하고 거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사장님은 저를 아들처럼 대해 주었고,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OO어학당을 알아봐 주고, 보내주었어요. 수원에서 서울 OO어학당에 입학해서 공부했는데, 거리가 멀었어요. 서울 연신내에 회사 직원이 살고 있었는데, 집을 알아보라고 해서 연신내에 집을 구해서 이사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연구참여자 E, 2018.07.27.)

연구참여자 E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이주하였다. 한국에서 적응도 해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거래를 하고 있는 수원의 수출 회사 사장님의 도움으로 자동차를 매입해서 수출하였고, 요르단에 돌아가서 자신이 보낸 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회사 사장님은 서울의 OO어학당 입학부터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펴주었고, 연구참여자를 아들처럼 도와준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새벽 4시부터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일찍 가면 일을 준다고 해서 새벽에 가서 기다렸어요. 말을 모르니까, ‘일자리 주세요’ 라는 말만 했어요. 하루에 50,000 원에서 55,000원 정도 받았어요. 그때는 빨리 돈을 벌어서 고향에 가려고, 집에 빨리 가려고 했어요. 지금은 1년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때는 하루, 한 달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 때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연구참여자 G, 2018.01.14.)

연구참여자 G는 2002년 관광 목적으로 화성 발안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노동을 시작하였다. 입국할 때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였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9개월 동안 단 이틀만 쉬고, 일을 했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하였다. 불법 체류 노동 현장에서의 고단함이 느껴지고 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젊은 사람이 외국에서 혼자 사니까 술 먹지 말고 잘 살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건강하고, 일 열심히 하라고 잘 살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 좋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우리에게 말할 때 무조건 “야, 자식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H, 2018.10.18.)

연구참여자 H는 화성의 OO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외국인이기 때문에 걱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신을 왜 싫어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한국 생활 초기 적응에서 느꼈을 힘든 삶의 단면을 보이고 있었다.

“처음 한국에 와서 OO터널 옆에 있는 빌라에 살면서 집에 있는 감자, 당근으로 제가 요리하고, 저 혼자 밥을 먹었어요. (중략) 초등학교에 다닐 때 문화나 음식이 달라서 힘들 때 학교 식당에서 조리하는 분들이 저를 위해 매일 음식을 따로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연구참여자 I, 2018.08.01.)

연구참여자 I는 8살에 이주해서 아버지가 출근하면 직접 요리하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활하였다. 어린이집에 1년 정도 다닌 후에 초등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시작했다. 학교 식당에서 조리하는 분들이 음식을 매일 따로 만들어 주었던 감사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처음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 한국어 단어를 써서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배웠어요. 월급이 적어서 고향에 돈을 보내고,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장에 가게 되었고,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J, 2017.10.30.)

연구참여자 J는 한국에 이주한 초기에 회사에서 한국어 단어를 써 놓았다가 사장님이나, 회사 직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연수생 월급으로 고향에 돈을 보내고,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회사를 이동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안산에 있는 상자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일을 할 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밥에 우유를 넣고, 설탕을 넣어서 먹었어요. 낮에는 우유에 소금을 넣고 2년 동안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성공하고 싶었어요.”

(연구참여자 K, 2018.05.12.)

연구참여자 K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하였다. 처음에는 이태원 이슬람사원 근처에서 살다가 평택에 있는 회사에서도 얼마 동안 일하기도 하고, 원단을 수출하는 회사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음식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고향으로 오라고 하셨지만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었다.

“처음 회사 생활할 때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부산, 양산, 창원에 있는 친구들과하고 크리켓(Cricket)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회사 한국 아주머니 아들이 의사였어요. 아주머니가 의사 아들 이야기를 자주 하고, 농사 짓는 이야기도 많이 해서 한국어를 빨리 배웠어요. 식당 아주머니는 아들같다고 음식도 나누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4년 10개월 동안 일했어요.” (연구참여자 L, 2017.07.11.)

“저 혼자 힘들면 형제들 누나, 부모님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저 혼자 힘든 게 낫다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참았어요.” (연구참여자 L, 2017.07.11.)

연구참여자 L은 2000년, 부산에 있는 골프 용품을 만드는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부산, 양산, 창원에 있는 친구들과하고 크리켓(Cricket)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고향 음식도 만들어 먹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생활하고 열심히 일했다. 회사에서 한 조를 이루어서 일을 했던 한국 아주머니 아들은 의사여서 아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의사가 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다. 아주머니는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사를 짓는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한국



어를 배웠다. 주변에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센터가 없어서 한국어는 텔레비전 드라마하고 책을 보면서 말하기도 배웠고, 받아쓰기도 하면서 공부하였다.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 식당 조리사 아주머니가 아들 같다고 하면서 음식도 나누어주고 한국어를 가르쳐 준 기억은 따뜻한 기억이다.

연구참여자는 당시에는 휴대 전화가 많지 않아서 회사 근처 가게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고향에 전화를 하곤 했다. 고향에 돈을 보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하고 친척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힘든 것을 참았다.

“처음에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어요. 외국인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야 했는데, 발안 회사에서 외국인센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별로 없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센터가 별로 없었어요. 인천 논현동 회사에서 그 때부터 5년 동안 일했어요. 저는 회사를 옮기고 하는 것을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000센터도 가까워서 정말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M, 2019.03.25.)

연구참여자 M은 화성시 발안에 있는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 주말에 한국어를 배울수 있는 센터는 회사에서 너무 멀었다.

연구참여자는 대학교 때 친구 고모의 추천으로 인천에 있는 휴대폰,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취업하였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000센터까지는 회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여서 주말에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이주 유형에 따라 다양한 경험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주민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특성 및 사회적 지지를 통해 관점을 전환할 수 있다(Sam & Berry, 2010). 연구참여자들은 호의적인 한국 문화를 경험했거나, 지인의 도움 등 사회적 지지가 있었던 경우는 적응에 능숙하였고,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 2) 초기 사업의 어려움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던 초기에 한국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이유가 되어 변화를 겪기도 하고 회사 직원의 기밀 유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기나 차별을 겪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식당을 인수할 때 제 돈 3천만 원, 조선족 이모(동업자)는 돈이 없으니까 3천만 원 일숫돈을 가게 명의로 빌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1년 차에 매일 적자였어요. 학교 근처라서 방학 때는 일수를 낼 돈도 못 벌었는데, 10개월 정도 일하다가 그만둔다는 말도 없이 그만두고 갔어요. 일수를 제가 내고 있었는데, 조선족 이모(동업자)는 저보고 혼자하라고 그냥 갔어요. 그때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연구참여자 B, 2019.08.29.)

연구참여자 B가 식당을 시작할 때 명의를 조선족 이모(55세, 동업자)의 한국인 남편이었고, 조선족 이모(동업자)와 3천만 원씩 투자해서 개업했다. 조선족 이모(동업자)가 연구참여자 몰래 식당 명의로 일숫돈을 얻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식당이 잘 되지 않자, 조선족 이모(동업자)는 식당을 그만두었고,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자 2년 후에 나타나서 본인이 운영하겠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는 조선족 친구하고 조선족 이모(동업자)가 위장 결혼한 한국인 남편을 찾아가서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대학원 졸업하고, 중국에 들어가면 소득이 적다 보니, 한국하고 차이도 나고,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사업자를 내고 나만의 사업,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화장품 수출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화장품 사업이 뜨던 때였어요. 그런데 중국하고 사드(THAAD) 문제로 수출이 어려워졌어요.” (연구참여자 C, 2019.07.03.)

연구참여자 C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무역 경영(D-9) 비자를 받았고, 화장품 수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좋았다. 그런데, 2016년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 관련해서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이 어려워졌다. 아이러니(irony)하게도 그때부터 중국 내에서는 한국 화장품 인기가 내려가면서 유럽 화장품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몇 년 전에 외국인 바이어한테 한국인 여직원이 기밀을 유출했어요. 여직원은 3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여직원을 해고했어요. 사업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특히 회사 직원들은 가족처럼 강한 신뢰감이 필요해요.” (연구참여자 D, 2017.07.04.)

“2010년에 아랍 식당을 개업하는데, 사업자 등록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혼자 했어요. 돈이 필요했는데, 요르단, 리비아 친구가 도와줬어요. 메뉴는 인도 요리사가 도와주었어요. 세무서나 구청 서류는 동네 한국 어르신이 도와줬어요.” (연구참여자 D, 2017.07.04.)

연구참여자 D는 2007년 기업투자(D-8) 비자를 발급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회사 기밀을 유출한 직원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어서 당시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10년에 아랍 식당을 개업하였다. 사업자 등록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요르단하고 리비아 사업가 친구가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었다. 실내 인테리어하고 메뉴 개발은 같이 근무했던 인도 요리사가 도와주었고, 세무서나 구청 관련 서류는 같은 동네에 살던 한국인 어르신이 도와주었다.

“한국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사장님, 직원, 인천에 처음 와서 동업했던 사장님은 모두 다 저를 아주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기도 해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어요. 정말 마음으로 진짜 고마워요.” (연구참여자 E, 2018.07.27.)

연구참여자 E는 수원 사장님의 도움으로 인천에 있는 사업가를 소개 받아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2008년 기업투자(D-8)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서울하고 인천에서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천에 오면서 소개받은 사업가하고 2년 동안 동업을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한국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2004년 불법 체류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E-9 비자 발급해준다고 했어요. 그때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 집을 샀어요.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향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단기방문(C-3) 비자 받고 한국하고 고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처음이라 사기도 당하고, 절차를 몰라서 힘들었어요. 사업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2006년 기업투자(D-8) 비자를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G, 2019.01.11.)

연구참여자 G는 2004년 불법 체류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정책에 따라 비자를 발급 받고,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 집을 매입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대우 차가 고향에서는 인기가 있어서 아주 비싼데, 인천 송도 수출단지에 끝도 없는 차들을 보고 ‘정말 이거다’라고 확신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3개월 후에 고향에 가서 집을 팔고,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았다. 한국에 와서 3개월 동안 자동차를 매입해서 고향에 보내고, 고향에 가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한 지 2년이 지난 2006년 기업투자(D-8) 비자를 발급 받고 인천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외국인 대상으로 식품 판매하고 배달하는 사업은 물건을 외상으로 주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강제 출국당하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손해가 많았거든요. 외상거래 때문에 수익이 별로 없었어요. 아침에 물건 사 와서 새벽까지 배달했는데, 힘들었지만 수익이 별로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J, 2019.03.27.)

“OO폐차장에 갔는데, 저한테 ‘야, 왜 왔어?’ 이렇게 반말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자동차 수출을 하는데, 차를 사려고 왔다고 했어요. 처음 거래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찾아갔어요. 공장장님하고, 이사님한테 한 달에 4~5개 차를 샀어요. 그 당시 외국인들이 중고차 수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연구참여자 J, 2019.03.27.)

연구참여자 J는 2005년 투자 비자(D-8)를 받고 처음에는 인테리어 타일, 식품, 여성 의류를 수출하는 사업을 했는데, 계절별로 수출 품목이 바뀌기도 하고 수익이 많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좋아하고 전공했던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2006년 인천에 있는 OO구에 창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안산 반월 공단 회사에 다닐 때 OO폐차장을 지나다니면서 차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서 무작정 찾아갔다. 그때부터 매일 찾아갔고, 거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 수출 서류나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할 때 실수를 하게 되면 외국인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 조심하라고 했어요. 경찰한테 제가 외국인이라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앞으로 잘 하라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나라는 없어요. 저는 50여 개 나라에 가 봤지만 한국처럼 친절하고 좋은 나라는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K, 2019.10.03.)

연구참여자 K는 사업 시작할 때 사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어떤 경우에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사업 시작할 때 행정기관이나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그때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이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친절하게 말해주었는데, 정말 고마웠다고 하였다.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차를 사러 지방에 가게 되면 휴게소에서 비빔밥이나 우동같이 고기 안 들어가는 음식을 조심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하고, 밥도 먹어야 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도 많고 대화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드라마 보면서 한국 문화 공부도 했어요. 생활이 완전 달라졌어요. 회사를 다니던 연수생 때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처음 알게 된 한국 문화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만 만났다면 한국 문화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L, 2017.07.11.)

연구참여자 L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서울하고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4년 10개월 동안의 E-9 비자가 만료되어 고향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비자 발급에 관한 준비를 하고 파키스탄에 귀국했다가, 2006년에 인천으로 오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롭게 문화

공부를 하게 되고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의 사업 초기 어려움은 정치, 사회적, 개인적 상황 등 다양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기나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주민사업가들은 사업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협상하고 있었다.

### 3) 비자 발급의 문제

이주민사업가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제 활동의 주체로 안정적이고 보장된 체류 연장은 장단기적 사업 계획에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체류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하였는데,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연장을 확인할 때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다.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잘못 짚어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 회사 계속 다니세요. 이대로 비자를 계속 받으면 우리가 회수하는 거 아니니까 그대로 비자 받고 계세요.’ (중략) 그래서 그 무역회사 사장님이 저를 쓰고 싶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셨어요. 출입국.외국인청 직원한테 ‘잘못했으면 끝까지 잘못하시라’고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장님은 중국하고 30년동안 무역을 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우리는 OO이라는 사람을 쓰고 싶어요. 비자 주세요.’라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8.27.)

“솔직히 비자를 연장할 때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일을 못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비자를 연장하는데, 딱 반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반년만 남았구나..... 한국어를 조금 잘하면 잘해 주는 편이에요. 뭐, 실적이 안 좋네. 이러면 비자를 안 주겠네. 내가 보기에는 한국말을 못하면 범죄자 같아요. 서류를 던져 버리고,..... 내가 예전에 OO시에서 당해봤어요. 공무원이.....(한숨) 서류를 던져 버리고, ‘아 줘! 아줌마...’ 반말로 저를 부르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지난번에 한국 남자친구가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누구냐고 하더니 그때는 조금 나왔어요.”(중략) (연구참여자 A, 2018.08.27.)

연구참여자 A는 대학 진학 목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일반연수(D-4)비자를 받았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유학(D-2) 비자로 변경했다.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업하면서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했는데,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비자 발급이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발급된 비자를 연장하러 갔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모든 외국인은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하였다. 1년마다 비자를 연장하는데 6개월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할 때 한국어를 못하면 존중받지 못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고 하였다. 중국인도 한국어를 잘하면 대우가 달라진다는 표현에서 공무원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주민의 체류 기간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은 한국 생활에 대한 안정된 계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코트라(KOTRA)에서 등록증 발급 못 받고, D-8도 못 만들고, 결국 D-9 개인사업자를 만들고 비자를 4개월만 연장 받았을 때 아버지는 저에게 ‘차라리 국적을 받는 게 낫겠다’고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연구참여자 I, 2018.08.01.)

연구참여자 I는 어리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고, 출입국·외국인청에 가서 실제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도 받았다. F-3 비자는 경제 활동을 하면 안되는데, 코트라(KOTRA)에서 소득을 요구했던 부분이었지만 벌금을 냈다. 한 달 후에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어려서 법인사업자를 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D-9)는 할 수 있고, 어머니 명의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시 고향에 가서 개인사업자를 내기 위해 3억을 가지고 입국했고,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연구참여자 이름으로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다시 공항에 가서 투자금 3억을 받았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믿을 수 없다고 비자를 4개월 연장 받았고, 1년여 동안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개인사업자(D-9)를 받았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행정기관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



음은 사업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행정 기관을 경유하는 등 시간의 경과로 인한 실제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주민사업가들은 체류 연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사업 계획을 세우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몇 개월의 체류 기간에 대한 연장마저 상당 기간 이후에 받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하였다.

#### 4) 한국어와 한국문화적응의 문제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적응 양상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 시기나 이주 유형에 따라 한국어 교육이나 습득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적응도 종교에 따라 현실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 사람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조선족, 결혼 목적으로 온 중국인들, 유학생, 한국에서 살다가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들 생각도 바뀌고,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익숙해요.” (연구참여자 A, 2019.07.20.)

연구참여자 A는 한족이고, 중국 내 56개 민족 중에 중국동포(조선족)는 1,923,842명<sup>17)</sup> 이 살고 있으며, 한국에서 경험한 중국인 집단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인은 중국동포(조선족), 결혼으로 이주한 중국인, 유학생, 그리고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등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유학생들은 한국 학교 제도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조금 더 익숙하고 호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연구참여자 역시 한국문화에 익숙하다고 하였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음식 맛, 향기, 색깔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할 수 없어서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음식은 전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무슬림이라서 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아예 안 먹었고, 채소만 먹었어요. 마트에 가서 음식 만들 재

17) 위키백과(2020), 2005년 기준.

료를 살 때 읽어보고 사야 하는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smart phone)이 없었기 때문에 단어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안전하게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불편했어요.” (연구참여자 E, 2018.07.27.)

연구참여자 E는 무슬림(Muslim)이었기 때문에 한국 생활 초기에는 음식이나 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음식은 아예 먹지 못했던 점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공장에서 ‘야, 새끼야’ 이렇게 말했을 때 처음에는 욕설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누가 욕설을 하고, 화를 내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였어요. 처음 공장에 갔는데, 나이가 육십 살인 고향 사람을 만났어요. 그 어르신은 나이가 육십 살이었는데, ‘네 알았습니다’ 이 말만 배우면 다 할 수 있고, 다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고, 한국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옮기라고 하면 손을 보고 일했어요.” (연구참여자 G, 2018.01.14.)

연구참여자 G는 처음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나이가 육십 살이 넘는 같은 민족 어르신의 조언을 듣고 일부러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욕설이나, 차별하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으면 한국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어 습득의 기회를 거부하였다.

“8살에 한국에 와서 아버지는 일하러 가서 없고, 엄마도 없이 혼자 살았기 때문에 한국문화밖에 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키르기스스탄 말보다 한국어가 더 편했고, 문화도 한국문화만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말레이시아 있을 때도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면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네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야?’ 라고 놀렸어요.” (연구참여자 I, 2018.08.01.)

연구참여자 I는 어렸을 때 한국으로 이주했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 항상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할 때 한국 사람이라고 입력하고 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한국 사람으로 가입되어 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의 기억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 한국어하고 한국문화의 선생님은 드라마예요. 그때도 지금도 드라마를 많이 봐요.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적어서 그다음 날에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배웠어요. 사랑 얘기보다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악수하고, 어떻게 법 문제를 해결하고 이야기하는지를 자세하게 봐요.” (연구참여자 K, 2018.05.12.)

“저는 라마단처럼 지금도 낮에 음식을 거의 못 먹어요. 시간도 없고, 한국 음식은 입에 안 맞고 해서 거의 음식을 못 먹어요. 집에 8~9시에 들어가서 먹어요. 한국음식은 맛있지만 대부분 식당에서 돼지고기 음식을 요리하잖아요.” (연구참여자 K, 2019.10.03.)

연구참여자 K는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했고, 얼마 후에 이혼하였다. 2007년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할 때 필요한 한국어하고 문화, 그리고,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서 힘들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 문화나 제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무슬림(Muslim)이라서 밖에서 생활할 때 음식에 대해 신경 써야 하고, 이주하고 20년이 지난 현재도 집이 아닌 외부에 있을 때는 음식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 한국인 직원들과 재미있게 보냈어요. 회사 일은 힘들었지만 주말에 한국인 직원들과 모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곤 했어요. 한국인 직원들이 외국인 직원들을 무시하지 않아서 재미있게 즐겁게 잘 지냈어요. 회사에는 중국, 필리핀, 태국 친구들도 있었고, 베트남 친구들도 5명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남동공단에서 큰 회사였고, 직원이 300명 정도였어요.” (연구참여자 M, 2019.03.25.)

연구참여자 M은 회사 업무가 힘들었지만 주말에 OOO센터에 가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한국인 직원들과 주말에 모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생활하였다.

이와 같이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하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이주해서 고국에서의 문화보다는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였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기도 하였다. 한국어 공부를 하면 한국어를 듣고 차별당하는 말을 듣게 되면 자신이 상

처를 받을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어 습득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무슬림(Muslim)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한 현실적인 적응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인 직원들이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아서 재미있고 즐겁게 적응하였다. 이처럼 이주 시기하고 이주 유형에 따라 습득 유형의 차이가 나는 한국어하고, 차별에 대한 방어 기제를 사용한 문화적응에 대해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의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 5) 대학과 학업의 문제

이주민사업가들의 이주 유형은 자신이 도전하려는 꿈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학을 목적으로 이주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온 첫 날부터 일을 할 만큼 꿈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차 있었다. 어학 연수가 끝나고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식당 운영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유학을 목적으로 이주하였지만 자신의 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학을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였으며,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에 의해 꿈이 좌절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도 친절했고, 학생들도 다 친절했어요. 화를 잘 내지 않고 다 착했어요. 직장 사장님도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한국에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8.27.)

연구참여자 A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들은 친절했고, 같은 과 학생들도 모두 친절했다고 하였다. 화를 잘 내지 않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직장에 취업하였을 때 사장님도 외국인 직원을 배려해 주고, 한국에 혼자 있다고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친절과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인적 자본의 긍정적 형성을 통한 사회적 위치 확보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 앞에서 식당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적자가 나면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내주셔서 메우곤 했어요. 대

학교에 다니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경영 전공하고, 식당 운영하고 관계가 있었지만 현실은 힘들었어요. 1년 차에는 한 달에 적자 30만원, 2년 차에는 매달 적자가 해결되고, 3년 차에는 한 달에 500만 원~7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한 달에 적자없이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적자가 해결되면 매각하려고 계획했고, 2년을 더 운영했어요.” (연구참여자 B, 2018.07.12.)

연구참여자 B는 한국에 유학 와서 한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학 시절 동안 아르바이트를 쓴 적이 없을 만큼 성실하게 노력했다. 연구참여자는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식당을 시작했다. 학업과 병행을 해야 하고, 사업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적자였지만, 꼭 흑자를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운영 방식을 바꾸고 흑자를 내기 시작한 후, 2년 더 운영하고 매각했다. 대학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인간관계, 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의 경험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저는 한국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어학당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아르바이트를 안 한 적이 없었어요. 물류 회사, 택배 센터에서 상차, 하차, 식당, 편의점, 농사일, 배추 수확하는 것, 배추 베는 것도 했어요. 한 식당에서 가장 오래 일한 곳은 호프집 주방이었는데, 5년 동안 일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나중에는 주방장까지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살았어요.” (연구참여자 C, 2018.07.13.)

연구참여자 C는 한국에 온 첫날부터 현재까지 매일 일을 하였고, 먹고 살기 위해 일했다는 고단한 현실에 대해 표현하였다. ‘대학교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을 때 힘들었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는 대학 4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저는 인천에 와서 어학당에 다녔어요. 어학당에서 공부하는 동안 대학교에 입학해야 하는지, 사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적성에 맞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했어요. (연구참여자 F, 2018.10.17.)

연구참여자 F는 2009년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인천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학연수(D-4)를 하던 중에 공부보다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였다. 대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투자 비자(D-8)를 신청하여 창업을 하였다. 자동차 사업을 선택하기 전에 한국과 요르단의 경제 상황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으며, 현재는 무역 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어리다고 사업자 등록에 실패할 때마다, 비자가 발급 안 된다고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사업자가 안 되면 자동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2~3개월 동안 실패했을 때 사실은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I, 2018.08.01.)

연구참여자 I는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를 자퇴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도울 때에도 꿈을 잊은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을 하라고 하였다. 스무 살이 되지 않아서 나이가 어리다고 사업자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실망보다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대학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는 무슬림(Muslim)이기 때문에 부모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못내 아쉬워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학업과 사업,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최선을 다해 생활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서 대학 진학이 아닌 사업을 하면서 역량을 키우기도 하고, 부모의 뜻에 복종하며 자신의 꿈을 접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주민사업가들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인적 자본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 6) 고국으로의 귀환 결심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고국으로의 귀환을 결심하기도 하였다. 대학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가기보다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으며, 노동의 고단함과 문화 차이로 인한 직업적인 애로 속에서 고민하기도 하였다.

“25살이었는데, 중국에 들어가면 영양사 자격증을 따다고 해도 월급은 한국 돈으로 50~6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최소한 70~8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국에서 잘해 보자고 결심했어요. 여기저기 대학원에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참여자 C, 2018.07.13.)

연구참여자 C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영양사 자격증을 따고 중국에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할 경우 한국과 경제적 현실 차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고민을 한 결과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한국에서 꿈을 펼치기로 결심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도전을 선택하였다.

“한국 입맛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좀 짜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또 싱겁다고 하고, 맛이 있다고 하고, 맛이 없다고 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스물한 살인데, 손에 습진이 생기고, 몸이 피곤해서 피부염이 생겨도 일은 끝이 없었어요. 매일 울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끝까지 일해도 한국은 어려웠어요.” (연구참여자 D, 2017.07.04.)

연구참여자 D는 2004년 4월, 한국에 도착해서 동인천에 있는 아랍 식당 옆 건물에서 살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쉬지 않고 일했지만 120만 원을 받았다. 한국인들이 식당에 와서 음식 맛에 대해 말을 하면 식당 주인은 그때마다 맛을 바꾸라고 하였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의 입맛을 제대로 잘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05년 고향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요르단에서 온 사업가가 식당에 왔다.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외삼촌하고 같은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창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직장 생활의 고단함에 귀환을 고민하지만 더 크고 새로운 꿈을 위한 도전을 선택한다. 이처럼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 생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귀환을 고려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자기 계발을 통한 역량을 함양하고 있었다.



### 4.2.3. 현재 삶의 경험

이주민사업가들의 현재 삶의 경험에 해당하는 영역은 사업가의 윤리와 사업의 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사업가로서의 전문성 및 역량 함양, 한국의 문화 등 사회제도 평가, 한국에서의 가족 생활, 여가와 사교 생활로 구분할 수 있다.

#### 1) 사업의 원칙과 사업가 윤리

이주민사업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원칙과 사업가로서의 사회적 윤리 규범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을 하면서 기본이 되는 신뢰의 형성, 그리고 직원이나 사회적 관계의 인적 자본을 긍정적 자본으로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일부 무역 회사들이 세금 피하려고 불법으로 밀수를 해요. 중국 내 세금이 화장품은 150% 정도 되고, 유아용품은 60~80% 정도 돼요. 특히 기저귀, 생리대 같은 것은 세금 붙이고 나면 그 회사들은 이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화장품이 3만 원이면 중국에서 8~10만 원에 파는 거지요. 도매상 마진도 있어야 하고, 소매상도 마진이 있어야 하니까 실제 2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은 일부 사람들이 밀수를 하는 것 같아요. 불법으로 다른 경로로, 아니면 중국에서 짝퉁을 만들던가.....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하면 많이 남는 거지요. 사업은 서로 믿어야 해요.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해요.” (연구참여자 A, 2017.07.13.)

연구참여자 A는 일부 무역 회사들이 탈세 목적으로 불법 밀수를 자행하는 것을 비판했다. 사업은 믿음이 기본이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직면하면 분개했다. 연구참여자의 표정하고 억양에서 정직하고 단호한 성격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신뢰할 수 있었다.

“저는 한 업종을 선택하면 성공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 안된

다고 포기를 못 하거든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그만둘 수 있어요. 다른 업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 제가 정해놓은 기준을 스스로 만족해야 그만둘 수 있어요. 제가 선택한 일을 쉽게 포기하면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한 번 선택하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내 마음속에서 만족하는 상태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B, 2019.08.29.)

연구참여자 B는 선택한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스스로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하고, 한번 선택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만족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진행하는데 그 때 비로소 성공이라고 하였다.

“내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돈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을 끝까지 믿어야 해요. 직원들 중에는 10년 이상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직원 관리 등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거라서 걱정이예요.” (연구참여자 K, 2019.10.03.)

연구참여자 K는 사업을 하면서 10년 이상 같이 일한 직원들이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하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사업가로서의 윤리의식과 함께 책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 필요한 경영 능력의 검증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일부 한국인 사업자들의 정직하지 않은 사업 방식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사업가로서의 원칙과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사업가로서의 자기 관리 노력과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이주민사업가들은 신뢰를 자본으로 하되, 직원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 2)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원하고 있었다. 안정적인 정착은 사업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와 사업 운영을 위해 비자 변경이나 국적 취득을 희망하고 있었고,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 경우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한국은 법이 평등해요. 사람마다 다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좋았어요. 친하다고 법을 다르게 하고, 돈이 많다고 다르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사업하면서 업체 사장님들하고 일할 때도 친절하고, 다 도와주려고 하니깐, 외국 같지 않았어요. 고향처럼 한국은 사람들 성격이나, 음식, 문화 모든 것이 비슷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한국에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친구가 비자 변경하고 싶다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한다고 했어요. 국적 면접심사도 면제해 준다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8.27.)

연구참여자 A는 2007년에 이주해서 유학하고 취업해서 사업을 하는 현재까지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sup>18)</sup>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정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은 법이나 제도가 좋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고향하고 비슷한 한국 문화에도 익숙하고,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18) 2009년 법무부에서 이주민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 운영한 이후 2012년부터 이주민의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사회통합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3조의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 제21조, 국적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1086호),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관리 규정(예규) 등에 근거한다. 참여 대상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한 귀화자 제외)이며, 귀화 신청시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귀화면접심사를 면제받는다. 또한 영주자격 신청시 혜택은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기본소양 요건 충족 인정, 실태조사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 그 외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혜택은 가점 등 점수 부여,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

치안이 잘되어 있다는 것도 좋았다. 친구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대학원 졸업하고 무역 경영(D-9) 비자를 거주(F-2)비자로 변경하려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해서 공부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었고,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 필요한 법이나 정치같은 내용은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같은 교실에 비자(VISA)가 다른 학생들이 있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실제 생활할 때 필요한 경제, 문화 내용도 도움이 되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체험하고 경험하면 더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B, 2020.03.05.)

연구참여자 B는 무역 경영(D-9) 비자를 다양한 경제 활동이 가능한 거주(F-2)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2017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였다.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한 후에 체류 기간 5년 연장을 받아서 마음이 편하고 좋았다. 무역경영(D-9) 자격보다 거주(F-2) 자격은 경제 활동 범위와 업종 선택의 폭도 조금 더 넓어지고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 한국에 이주해서 어학연수를 하고, 대학하고 대학원에 다녔고 사업도 했기 때문에 한국어나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법이나 정치 같은 내용은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제, 문화 내용은 실제 현장에 가서 경험하고 체험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개인투자(D-9)였는데,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비자 변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처음에 성남에서 공부했어요. 2017년에 4단계에서 100시간 공부하고, 5단계에서 50시간 공부했어요. 그리고, F-2 비자 신청해서 변경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것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법이나 정치, 경제 관련한 내용은 중국하고 다르니까, 도움이 되었고, 사업할 때 경제 관련 내용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2006년 한국에 오자마자 배웠으면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초기에 배우면 한국 생활하는데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2020.03.01.)

연구참여자 C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인투자(D-9)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하고 싶어서 비자를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17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대학하고 대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궁금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그중에 법 제도, 정치, 경제 관련 부분은 중국하고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고, 경제 내용은 실제 사업이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06년 이주 초기에 의무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했었다면 한국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루에 백 톤, 아니면 이백 톤 전화 통화를 하니깐,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보통 하루에 600~700km를 운전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국인이 되려면 공부해야 해요. 한 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도 있고, 중학생도 있어요. 한국어 수준 차이도 있고, 하는 일도 다르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한테 한국에 언제 왔는지, 왜 왔는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하고, 사업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D, 2019.11.01.)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 지켜보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일해요. 우리 회사 한국인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면서 한국인들은 국민성이 근면하고 성실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착하고 평화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 직원들이 성실한 국민성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D, 2019.11.01.)

연구참여자 D는 2004년에 이주하였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에는 2015년 9월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2 단계부터 시작해서 2017년 3월까지 참여하면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사업 활동을 하다 보니 요르단하고 업무적인 통화도 해야 하고, 딜러나 직원과의 통화로 인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되려면 한국어하고 한국문화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다양한 이주민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관심을 가지며 질문을 하기도 해서 가르쳐주었더니 고맙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근면한 국민성 덕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였다. 바이어나 한국인 고객을 만날 때 어떤 예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새롭게 배웠다고 하였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한국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칭찬하며 국민성을 닦고 싶다고도 하였다. 이주 초기 한국어 교육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문법이나, 발음의 화석화로 인한 오류 수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었다.

“2012년에는 한국어하고 한국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참여했어요. 2018년에는 국적 신청을 하려고 참여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늙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고, 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기 전, 그리고, 공부하고 난 뒤에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고, 한국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설날, 추석 때 무엇을 왜 하는지,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지 이해했어요. 높임말, 반말이 장소, 상황에 따라 왜 다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E, 2020.02.01.)

연구참여자 E는 2003년 이주한 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어서 2012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단계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업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한국을 내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국적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2018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단계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 만나는 고객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한국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의 설날이나, 추석이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선물을 주고 덕담을 주고 받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 높임말, 반말이 사회적 장소나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배웠다고 하였다. 한국에 대한 이해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전, 그리고, 공부한 이후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소속감에 대한 안정된 균형,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에 대한 지식 습득의 유용한 결과를 경험했다.

“귀화 신청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한국어 문법하고 문화도 많이 배웠고요, 한국의 역사, 경제는 전혀 몰랐는데, 배워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외국인이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역사가 정말 필요해요.” (연구참여자 F, 2019.07.08.)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기 전에는 구글이나 영어로 된 사이트를 많이 봤는데, 공부하고 나서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자주 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만드는 것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주 하니까 재미있어서 NAVER나 Daum 블로그 활동도 해요. 인터넷에서 한국 뉴스 본 것을 이야기하면 폐차장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질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F, 2019.07.08.)

연구참여자 F는 2009년에 이주하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친구가 2012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2013년 3월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한국어하고 한국문화를 배웠는데 생활하면서 도움이 컸다. 한국의 역사, 경제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역사는 외국인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활하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걱정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2015년 7월 한국사회 이해 과정까지 역사를 포함한 정치나 경제, 제도 등에 대해 배우면서 사회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를 포함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해 제도적, 정치적 자본의 형성과 통합 과정을 보이고 있다.

연구참여자 F는 작은아버지가 한국에 정착해서 행복한 한국인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행복한 한국인이 되고 싶었다. 그때 친구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 경제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그중에 역사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정말 필요하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하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놀랐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똑같으니깐, 재미있고, 친하게 되었어요. 2013년 제 생일에 학생들하고 피자를 같이 먹고,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참여해서 상을 받은 기억은 지금도 행복하고 기억할 때마다 좋은 추억이에요. 공부하면서 선생님, 학생들과 놀러 가기도 하고, 걷기 대회도 갔어요.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법 교육을 받았는데, 한국 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

어요.” (연구참여자 G, 2019.01.11.)

연구참여자 G는 한국에서 정착하고 하고 싶고, 국적 신청을 하기 위해 2013년 3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어릴 적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은 새로운 사회 경험이었다. 다른 학생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법 교육에 참여하고 나서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2013년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서 상을 받은 기억은 생각할 때마다 좋은 추억이다. 한국어 공부가 끝나고 학생들과 놀러가기도 하고, 걷기 대회도 참여하였다. 2015년 4월까지 만 2년 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전문지식의 습득과 함께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과 소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도적 통합을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한국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직접 가서 샀는데, 요즘에는 회사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하니깐 시간도 절약하고 편해요. 또 한국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감도 생겼어요.”  
(연구참여자 H, 2019.11.11.)

연구참여자 H는 2013년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한국어하고 법 제도나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 등에 대해 도움을 받았으며, 사업할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상담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빨리 한국인이 되고 싶었지만 나이가 어려서 국적 신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공부를 했어요. 정치, 경제는 키르기스스탄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라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잖아요. 평등하고, 어디에 가든 존중받는 느낌도 있고 한국은 정말 좋아요. 한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지만, 저처럼 어렸을 때 한국에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I, 2019.12.28.)

연구참여자 I는 2017년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단계

에 참여했으며, 2018년 한국사회 이해 과정까지 이수하였지만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다양한 이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배웠어요. 음식 문제는 힘들어요. 하지만 너는 삼겹살 먹고, 나는 동태찌개 먹으면 된다고 하면서 다르지만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기 전에는 한국어가 잘 안되니까 부끄러워서 한국어로 문자를 안 보내고, 영어로 보냈거든요. 한국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관계도 넓어지고 다양해지니까 사업도 잘 돼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써요. 사람들과 친해지면 한국 사람들이 저 때문에 파키스탄을 좋게 생각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요.”

(연구참여자 J, 2019.03.27.)

연구참여자 J는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어서 국적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고, 친구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2013년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국적 신청을 했고, 2018년 5월에 국적을 취득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처음 공부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공부하고 평가를 보고, 친구들도 사귀고 궁금했던 내용을 배우니까, 공부도 재미있고, 법교육은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법을 잘 몰라서 무조건 겁이 났는데, 이제는 한국어로 된 서류, 인터넷 이용할 때도 자신 있어요. 수출할 때 영어로 된 서류가 많아서 한글 쓰기는 일부러 시간을 많이 내야 했어요. 집이나, 자동차 매매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도 새롭게 배웠어요. 도로 이름을 몰라서 내비게이션 이용할 때 전화번호만 입력해서 갔는데, 이제는 주소 입력해서 다니니까, 생활이 편해졌어요. ”

(연구참여자 L, 2019.05.11.)

연구참여자 L은 2014년에 친구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00년에 이주해서 한국어 교육에 처음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그 전부터 국적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공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한국어하고 한국문화를 공부하면서 한국 법이나 질서에 대해 배운

것이 좋았고, 생활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다양한 나라에서 이주한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동안 사업을 하면서 업무나 생활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는 일요일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하면서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수용국 사회의 언어는 습득 능력 차이로 인해 생존을 위해 습득해야 하는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에서 공부한 내용은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라서 재미있고 즐거웠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평가에 응시하고 공부하면서 단계평가, 중간평가, ‘한국사회 이해’까지 이수하고 종합평가까지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공부하고 농담하고, 많이 웃었던 시간이라서 좋은 기억만 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 모임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하였다. 2015년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국적 신청을 했고, 2019년 4월 국적 취득을 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책이 너무 자세하고, 문화, 교육, 교통 같은 것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5단계 공부 시간은 너무 짧은데, 책은 좀 어려웠어요. 시간을 조금 길게 공부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해도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어요. 4단계까지는 100시간이라서 좋은데, 5단계는 50시간은 너무 좋은데, 짧아요.” (연구참여자 M, 2019.10.14.)

연구참여자 M은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2016년 한국사회 이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끝나고, 2016년 거주(F-2) 비자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기하고 기간은 다르지만 한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2개월에서 2년 여 동안 참여하였으며 비자(VISA)를 변경했거나,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주민사업가들은 기업체 견학 등 경제 현장 방문, 한국 문화 체험 등 현장 참여 수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이주 초기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 이수 제도가 있다면 한국사회 적응이 더 용이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과정 희망 사항을 정리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대상별,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정의 의무 교육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3) 사업가로서 전문성 및 역량 함양(직업기술, 대학원 등)

이주민사업가들은 사업가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 함양을 하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하는 등 자신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있었다. 사업 분야의 독창성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 능력 수준을 높이려고 하였는데, 고국으로 귀환한다고 하더라도 역량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2014~2015년에 중국인들이 의료관광을 한창 많이 오던 때였어요. 그래서 주 중에는 성형외과에서 일을 했어요. 석사 졸업할 때까지 성형외과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한국 사회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기억이 많이 있었어요. 원장님이 중국에 출장을 자주 가시니까, 통역도 하고, 동행도 하면서 비서처럼 일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C, 2018.07.13.)

“화장품 사업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사서, 저기에다가 팔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류 사업은 핵심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화장품 사업은 복제할 수 있지만 물류는 복제할 수 없고, 전문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분야예요. 한국이 OECD에서 자살률 1위인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배송이 지연되면서 그 당시 업무 스트레스가 아주 심해서 딱 죽고 싶더라고요. 죽으면 모든 게 편안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결이 되어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 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좀..... (웃음) 그 당시는 직장인들이 많이 부러웠어요.”

(연구참여자 C, 2019.07.03.)

연구참여자는 C는 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석사 과정(D-2)에 입학했

다. 특수대학원이라서 주말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성형외과에 가서 마케팅 관련 일을 하게 되었다.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사업가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좋은 기억이며 주로 중국 출장 등 업무에서 통역 관련 일을 하였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화장품 수출이 여의치 않자,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제 물류 사업을 시작했다. 화장품 사업은 기업체 방문하고 매입해서 수출하는 것이었다면 국제 물류는 운영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작년 설날 전에 날씨 문제로 택배 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아서 요청 받은 물품들이 국내 창고에 묶여 있었던 적이 있었다. 물류의 분실, 훼손은 배상을 하는데, 지연되는 것은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였다.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 문제가 잘 해결되어 편하게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물류 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주민의 경제 활동 도우미 제도, 심리 상담 등 지역사회 또는 정부의 행정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루에 200km 정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해요. 일주일에 1,200km 정도 한 달에 4,800km 정도 운전해요. 그래서 피곤해요. 1년에 144,4000km 정도 운전해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것은 없어요. 사업은 많이 피곤해요. 일주일에 2~3번, 6만 원씩 기름을 넣어요. 그래도 일이 즐겁고 그래서 일을 해야 해요. 월급으로 300만 원 받는 것보다, 사업을 해서 200만 원 버는 것이 더 좋아요. 돈이 적어도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고, 생각하는 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아요. (연구참여자 F, 2020.02.25.)

연구참여자 F는 보통 하루에 몇백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일주일에 2~3번 주유를 한다. 운전도 피곤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지만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업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경제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행복하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생각하는 만큼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역량



함양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은 다 좋아요. 소통이 잘되고 편해요. 그런데, 폐차장 사람들은 좀 무식하고...안 좋아요. 말을 하면 듣는 척을 안 해요.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폐차장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하면 무시해 버려요. 외국인하고 사업하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차별보다 저를 무시하니까 화가 나요. 00폐차장은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저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고, 아는 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가고 절대 다시 안 가요. 하지만 사업을 잘 하려면 차별하고 무시하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 인간관계 잘 하는 방법, 사업 역량을 키우는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I, 2019.04.16.)

연구참여자 I는 사업을 잘 하려면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폐차장 등에 방문할 때면 차별보다 무시하고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것에 상처를 입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소통이나, 대인 관계, 사업 역량을 키우는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주민이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매일 공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혼보다 일단 식당 운영을 잘하고, 한국어를 더 능숙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가게 운영이 안정되면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요. 지금은 한국 손님들이 오면 생활 한국어만 배울 수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할 때 필요한 단어나 고급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서 오래 산 외국인들이 고급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센터가 많으면 좋겠어요. 중급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센터는 있는데, 고급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센터나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해요.” (연구참여자 M, 2020.01.15.)

연구참여자 M은 결혼보다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은 이유는 사업을 하거나 일상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어를 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더 배워서 역량을 함양하면 베트남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사업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반복되는 경쟁이라서 어려운 상황은 계속하여 생길 것이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사업가로서의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동등한 기회를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과 역량의 함양을 통해 사회적 기회를 창출하고, 전문 자본을 형성하고 있었다.

#### 4) 한국의 문화 및 사회제도 평가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의 문화와 고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사업 분야에 따라 한국의 문화 및 제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제도와 가치에 대해 공유하고 있었다.

“어렵지만 견뎌야 해요. 중국 바이어가 한국에 오면 최소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만나줘야 해요. 요즘에 OO에 아울렛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구경 시켜주면 돼요. 예전에 OO에는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 OO에 자주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통역을 해준 적도 있어요.” (중략)

(연구참여자 A, 2018.08.27.)

“저는 술을 잘 마시는데, 술을 함께 마시지는 않아요. 술까지 마실 정도로 접대를 하지는 않아요. 저는 별명이 신데렐라예요. 한국 사람들 만나도 11시 반이 되면 꼭 집에 가요. 중국에서 아주 큰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일반 중소기업들은 뒤에서 돈을 주든지, 술을 마셔주든지 한국에 오면 얼마나 대접을 잘 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힘들어요. 중국에 돌아가서 나한테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잘 해주어야 해요. 이번에 잘 해주면 중국에 가서 나한테 물건을 주문할 수도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A, 2019.07.20.)

연구참여자 A는 사업의 어려움에 대해 한국 사업가들하고 상담도 하고, 활로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서 바이어가 오면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의 한국 일정에 동반하면서 통역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한다고 하였다. 제주도 일정에 동행을 한 적도 있으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바이어의 통역을 주로 도와주는데, 사업 활동에 바이어는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이 사업을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접대라고 하였는데, 본의 아니게 상황을 이어가기 위해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바이어를 접대하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귀가하는 습관 등 여성 사업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중국과 문화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문화 차이를 별로 못 느끼면서 힘들지 않게 살았어요. 지금은 물류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세관, 한국에 있는 중국 회사, 중국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 고객이에요. 지금은 한국 사람, 한국 회사하고 관계는 거의 없어요. 예전 화장품 사업할 때는 관계가 많았는데, 중국 전문 수출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중국 회사라서 한국 기업이나, 사람하고 관계할 일은 거의 없어요.”

(연구참여자 B, 2019.12.02.)

연구참여자 B는 2006년에 이주해서 13년 동안 중국하고 한국의 문화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화장품 사업을 할 때는 한국 회사, 그리고 한국인하고 관계가 빈번했지만 국제 물류를 시작하고 한국인하고의 관계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국제 물류는 중국에 있는 세관,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국회사, 중국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인 사업가들이 주 고객이라고 하였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사업 업종에 따라 한국 사회 구성원과의 네트워크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주민사업가의 업종이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수용이나,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생활을 100점 만점에 점수로 하면 90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오랫동안 살았어도 문화 차이가 있어요. 그게 10점이고요.(웃음)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빨리빨리’,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거든요. 저는 여유있게 사는 게 좋은데, 한국의 ‘빨리빨리’는 항상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중국과 한국은 유교 사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이 중국보다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 본 못 것을 한국에서 봤어요. ‘의리’ 같은 것,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은 중국에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의, 예절은 한국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교 사상이 한국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유교 사상이 왜 빨

리 사라졌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연구참여자 C, 2019.12.27.)

연구참여자 C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이주민이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고, 여유가 없는 한국인의 일상을 꼬집었다. 하지만 한국인의 의리나,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담겨있는 예의나 예절 문화를 보면서 중국 문화에 대해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한강의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이주민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동차가 무사고 500만 원, 사고 200만 원, 사고가 많은 차량 100만 원이에요. 한국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와서 무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무사고 500만 원을 보냈는데, 폐차해야 할 차량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구속되었는데, 나한테 사기를 친 것 때문이 아니고,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구속되었어요. 우리는 폐차장에 가기도 하고, 중고차를 사고, 딜러 일을 해요. 한국에서 폐차장, 딜러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낮은 직업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일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요.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연구참여자 D, 2017.07.04.)

연구참여자 D는 수출할 중고차를 매입할 때는 경매장에서 낙찰을 받기도 하지만 한국인 중고차 딜러(dealer), 또는 폐차장을 통해 매입하기도 한다. 인적 자원의 형성은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거나, 거래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적 자원 형성이 긍정적인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 중고차 딜러가 무사고 차량이 있다고 해서 계약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중고차를 받고 보니 폐차해야 할 차량을 보낸 것이었다.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몇 번씩 방문해서 조사를 받는 등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를 악용하는 일부 딜러들 때문에 매입하고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하지만 종종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기를 친 한국인 딜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보니, 연구참여자가 아닌 한국인에게 같은 사기를 쳐서 구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씩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적 자원 중에는 교육 수준이 낮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 사회 구성원 중에 일부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주민사업가의 긍정적인 인적 자원 형성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친구들이 문제가 있을 때 통역하기 위해 경찰서에 갈 때마다 한국은 친절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도 살았지만, 한국이 더 잘 되어 있고, 사람을 존중해줘요. 한국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은행이나, 구청에 가도 질서를 잘 지키고, 공공기관에 갈 때마다 법이 잘 되어 있고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는 자기 차에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데, 우리나라에는 내 차에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 전화번호를 친구한테도 잘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G, 2020.01.31.)

연구참여자 G는 고향에서 온 이주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서에 가서 통역을 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한국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완전하고 또 안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업을 하면서 러시아에서도 거주했었지만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은행이나 구청의 시스템은 경험할수록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있고, 법 제도 또한 국민들이 생활할 때 안심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 한국인의 일상적인 문화는 타인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차에 전화번호를 적어놓을 경우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친구에게도 전화번호를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의 치안이 잘 되어 있고, 사회의 신뢰도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등 시민의식 향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거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하고 사업하는 친구들, 바이어들도 그 한국 사람한테 돈을 보냈어요. 영수증 이런 것들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계좌로 입금할 때는 현금으로 하니까 영수증을 안 받았어요. OO 회사가 돈을 달라고 하니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가 안 줬다고 했대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는 OO회사가 돈 달라고 하면 나중에 준다고 하라고 했어요. 지금 줄 수 없어서 받아준다고 덮어달라고 했나 봐요.” (연구참여자 H, 2018.10.18.)

“나도 한국사람이지만 사업하면서 한국인한테 돈 주고 계약서가 없어서 당한

적이 있다. 조심해라. 무조건 계약서 쓰고, 계좌 입금하면서 사업하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약서 쓰고, 조심하면서 해요.”  
(연구참여자 H, 2019.08.06.)

연구참여자 H는 사업을 할 때 물건을 받고 대금을 주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서 소송을 당했지만 증인이 되어 준 사람들이 있어서 재판에서 이기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H는 한국인 사업가가 돈을 주면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말을 명심하고 있다고 했으며,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이용하는 것은 안 좋다고 하였다.

“한국인 형님은 계산도 정직하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무엇이든 아주 빨리 도와줘요. 국세청 관련 발급 서류 등등 사업을 하거나 생활할 때 필요한 것 또는 한국의 법이나 제도 등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제일 먼저 도와주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요.” (연구참여자 J, 2019.03.27.)

“제가 중고차를 매입해서 수출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업체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 모두 고맙고 감사하지요. 첫째, 폐차장이나 업체에서 중고차를 우리한테 파는 분들, 둘째, 견인하고 운송해주는 견인 기사님들, 셋째, 세차하고, 광택을 내주는 업체분들, 넷째, 공업사에서 판금, 도색해 주는 분들, 다섯째, 카센터에서 차를 수리해주는 분들, 여섯째, 세관에서 일하는 분들, 일곱째, 선사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연구참여자 J, 2019.03.27.)

연구참여자 J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의 고마움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H는 중고차 수출은 한국 사람들과도 경제 활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대상 국가에서 분쟁이 나거나, 경제 불황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는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였다.

“식당을 시작할 때 옆에 있는 식당 사장님들이 제가 식당 운영을 못 할 거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몇 개월 있다가 그만두는데, 외국 사람이 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바로 옆 식당 사장님은 장사하면서 모르는 일, 세금하고 월세 내는 것 등 많은

것을 도와주셨어요. 식당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 많이 힘든데, 처음 6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잘 극복했어요.”

(연구참여자 M, 2020.01.15.)

연구참여자 M은 입주한 상가나 주변 상인들하고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에 이주해서 다녔던 회사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회사 사장님하고 직원들은 식당에 자주 방문해서 식사를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OO동 집 근처 동네에 세탁소 할머니도 딸하고 자주 방문한다고 하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을 지지하고 이해해 주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정서적 포용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의 과정을 보이고 있었다.

## 5) 한국에서의 가족 생활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 한국에서 양육하던 자녀가 고향으로 이주할 경우 받게 될 문화 차이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하여 부인이 자녀들을 고향에서 양육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결혼하고 가족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자녀들과 살고 있기도 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 사회와 소통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자녀를 고향에 있는 학교에 일정기간 보내서 교육하기도 하고, 외국인학교에 안 보내고 한국인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혼자가 아니고, 부모님, 부인, 아이들도 있어서 생각도 해야 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는 사업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가족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중략) 부인하고 5살, 3살 아들은 청도에 있고, 부인은 아이들이 있어서 계속 중국에 살 것 같아요. 아들이 청도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몇 년 후에 완전히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이 중국 학교에 다니게 되면 문화 차이가 나서 힘들 것 같아서 청도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2019.08.29.)

연구참여자 B는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삶의 중심이 사업이었다면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족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아이들이 중국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문화 차이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중국 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이들이 서울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몇 년 후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문화 차이로 인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부인하고 아이들은 중국 고향에서 생활하고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국이나, 중국이든 상관 없을 것 같지만, 현재 회사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확장을 진행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한국인으로 키울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하면 한국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업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인학교에는 절대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한국 학교에 보내고, 한국 아이들하고 똑같이 키울 거예요. 영어를 쓰면서 한국어를 못하면 국적이 있어도 외국인이에요.” (연구참여자 E, 2020.03.02.)

연구참여자 E는 자녀들을 한국 학교에 보내고, 한국 아이들처럼 교육시켜서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고 하였다. 한국 대기업에 취직하고,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학교에 보내지 않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으로 키우겠다고 하였다.

“한국 텔레비전(television)은 가끔 봐요. 보통 아침에 일하러 가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밥을 먹고 씻고 자요. 피곤해서.....(웃음). 우리 가족은 다섯째 작은아버지 가족하고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들은 같이 놀고, 우리끼리 식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OO에서 만나



서 밥 먹어요. OO공원에서 만나서 먹기도 하고요. 우리 집에 와서 바비큐 (barbecue)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부인하고 홈플러스, 이마트에 다니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F, 2019.07.08.)

연구참여자 F는 2015년에 요르단에 가서 부모님이 소개해 준 지금 부인하고 결혼해서 딸들이 4살, 2살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하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반적인 생활이지만 한국 텔레비전을 가끔 보는 것 이외에 가족이 한국 인들과 교류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작은아버지 가족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밥을 먹고, 대형마트에 가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평범한 일상이다. 부인하고 아이들이 한국어나 문화적응에 필요한 전문지식 획득 등 한국 사회와의 소통 노력은 관찰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물건을 주문하고 돈을 보내고 물건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아봤으니까 한국어도 아니까 사업자도 낼 수 있고, 돈을 벌수도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일하면서 살 수 있고, 우리나라보다 좋고 편해요. 총각이었을 때 친구들과 추석 때 에버랜드에 놀러 갔을 때, 가족들하고 놀러 온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가족 데리고 와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008년 2월에 사업자 내고 2008년 여름 지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OOO가 4살이었어요. 같이 와서 여기에서 살고, 다음에 2010년에 아들이 태어나고, 2012년에 셋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연구참여자 H, 2018.10.18.)

연구참여자 H는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셔서 고향에 가서 결혼하고, 다시 한국에 왔다. 2007년 투자 비자(D-8) 발급 준비를 하고, 2008년에 비자를 받고 고향에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 결혼하기 전에 놀이공원에서 가족들의 행복한 일상을 보고, 자신도 한국의 가족처럼 살고 싶다고 다짐했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달에 형은 고향에 가서 결혼했고, 저는 회사일 때문에 먼저 한국에 돌아 왔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남자 23~25살, 여자 18살이 되면 반드시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해요. 형도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나도 100% 키르기스스탄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아서 슬퍼요. 내가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슬람이기 때문에...(중략) 우리 나라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

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연구참여자 I, 2019.04.16.)

연구참여자 I의 아버지는 아직까지 국적이나 영주자격 신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비자 연장하는데 별다른 어려운 점이 없고, 가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고향에 다녀오는 것 말고 고향에 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무슬림(Muslim)이기 때문에 형처럼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는 것이 슬프다고 하였다.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국 아이들이 같이 잘 안 놀아줘요. 한국 부모들이 ‘야! 빨리 와. 왜 외국인하고 노는 거야? 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야, 너는 외국인이니까, 저기로 가서 놀아. 여기는 한국 사람만 노는 거야’ 라고 했어요. 아들을 1년에 한두 번씩 고향에 보내서 한 달씩 있다가 오게 해요. 아들에게 파키스탄 언어도 배우고, 친구도 많이 만들라고 해요. 나중에 커서 한국이든, 파키스탄이든 선택해서 살 수 있게 해 주고 싶어요. 한국이 앞으로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J, 2020.03.08.)

연구참여자 J는 한국 여권이 생기고, 파키스탄 영주권이 생기면서 파키스탄 국적의 부인하고 다문화가정이 되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차별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파서 1년에 한두 번씩 한 달 동안 고향에 보내고 있다. 귀화한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문제는 계속 되고 있었다.

“이슬람에서는 누구의 아이인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다 예쁘게 생각해요. 저는 아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와주고 싶어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든, 파키스탄 여자하고 결혼하든 알아서 할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들의 선택을 믿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국적은 상관없어요.”  
(연구참여자 K, 2019.01.21.)

연구참여자 K는 사업차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가 형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낳은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어서 홀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2012년 현재 부인하고 결혼하게 되었다. 그들은 2015년 한국에 왔고, 둘째 아들은 OO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알고 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의 첫째 아들은 C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도와주고 싶고,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하였다.

“2009년에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서 힘들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생활 속 모든 것들이 달랐어요. 혼자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 8시까지 꼭 들어가야 하고, 사업이 안 되면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자기 스타일, 자기 나라 문화가 있고, 생활방식을 서로 맞춰줘야 하니까 조심스러운 게 많았어요.” (연구참여자 L, 2018.02.06.)

연구참여자 L은 2008년에 현재의 한국인 부인인 여자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연애하다가 2009년에 결혼하였다.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자체가 문화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가족 결합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제도에 대한 기초 지식 등 가치를 준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별을 경험하는 자녀를 걱정하여 고향에 보내기도 하고, 무슬림(Muslim)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 상대를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 슬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이주민사업가들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 속에서 나름대로 한국사회와 소통하고 있었다.

## 6) 한국에서의 여가와 사교 생활

여가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모든 활동을 하는 시간이며, 자기개발, 휴식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 그리고 행복추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박수정·윤채빈·김민규, 2011). 이주민사업가들은 불규칙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자신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여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끊임없는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만 생활에 변화를 주

지는 않았다.

“우리는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요. 눈뜨면 출근하고, 일이 끝나야 집에 갈 수 있고 퇴근할 수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기타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빠서 취미 생활할 시간이 없어요. 회사 직원은 3명인데, 중국 사람들이고,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의사소통 때문에 중국인 직원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직원이라기보다 형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일이 많을 때는 밤을 썰 때도 있고, 일이 없을 때는 하루 종일 놀 때도 있어요. 한국인 직원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중국인 직원들은 이해를 잘 해주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C, 2019.07.03.)

연구참여자 C는 취미로 밴드 활동을 하는 기타리스트였다. 하지만 국제 물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 취미 생활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근무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을 고용해야 했고, 근무 시간에 맞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국인 직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인 직원들이 회사를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은 가족이라고 표현될 만큼 팀워크가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여가 생활이나, 한국 사회에서 사고 생활을 할 시간이나 환경이 주어지지 않다고 하였다.

“OO대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는데, 나한테 술을 안 먹는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술 안 먹고 잘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술 안 먹는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아이는 한국 사람처럼 살지만 아랍어를 잘하면 좋겠어요. 종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잘해야 해요.” (연구참여자 F, 2020.02.25.)

연구참여자 F는 무슬림(Muslim)이라는 것을 한국 친구들이 알고 있다. 2009년에 이주하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 술을 안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국 사람들 중에도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슬림인 자신에게 술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다고 하였다. 한국인들이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친구들도 만나면서 일상생활을 하듯이 자신도 그렇게 평범한 한국인처럼 살고 싶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녀들이 아랍어를 배워서 이슬람교를 잘 이해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존중받고 싶고, 보통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사회적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면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사업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사무실에서만 만나고, 따로 만나지는 않아요. 한국은 사업 거래하고 하는데, 술 마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술을 안 마시니까, 그냥 사무실에서만 만나요. 거래하는 한국 사람들도 술을 안 마시니까 재미없다고 해요.” (연구참여자 H, 2020.03.03.)

연구참여자 H는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니까 재미없다고 한다고 하였다. 사무실에서만 만난다고 했으며, 고향에서 온 사업을 하는 친구들과 모스크(mosque)에서 기도할 때마다 만난다고 하였으며, 어릴 때 고향 시장에서 이모하고 사업을 하던 동업자인 친구의 아들하고는 한국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저는 돈 만드는 기계예요. 살면서 돈이 필요하니까요. 아버지는 컨테이너를 사서 외국에 수출하는 사람들에게 팔아요. 아버지는 돈만 모으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도 사는데..... 나는 아버지가 돈을 잘 벌 수 있게 도와주는 일만 해요. 돈만 벌면 뭐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해요. 사람은 왜 살아요? 돈, 돈, 돈..... 살아야죠. 저는 아버지가 돈, 돈 하는게 스트레스예요.” (연구참여자 I, 2019.04.16.)

연구참여자 I가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이고, 한국에서 살게 된 이유인 아버지가 국적을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이며,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싸운 적도 있지만 결국 소용이 없어서 그냥 아버지의 말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여가 생활이나 사교 생활이 없는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

로 인해 자신의 취미 활동이나, 특별한 사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자신을 위한 여가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 활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성향과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역동성과 함께 여가 선택의 문제는 사회문화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수정·윤채빈·김민규, 2011). 하지만 이주민사업가들은 불규칙하고 바쁜 사업 활동 속에서 한국 사회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가나 사교 생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 선택하지는 않았다.



#### 4.2.4. 미래 삶의 계획

이주민사업가들의 미래 삶의 계획에 해당하는 영역은 한국에서의 안정된 환경과 윤택한 생활, 사업의 확장과 도전, 자녀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안정된 환경과 윤택한 생활

이주민사업가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주 초기 한국 사회에서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으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혜택을 돌려주고 싶다고 하였다.

“우리 집안, 부모님, 삼촌들도 한국 국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국적을 바꾸라고 하셨어요.”(중략) 저는 유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지만 사람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중국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고, 한국에서도 그냥 이렇게 살고, 사람은 그냥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은 거니까요.”(중략)

(연구참여자 A, 2018.08.27.)

연구참여자 A는 부모님, 그리고 집안에서는 한국 국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고,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국적을 바꾸라고도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선택을 지지해 준 가족의 믿음에는 대한민국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표현하면서 국적을 바꾸는 막중한 선택에 대해 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인 또는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명확하고, 구성원으로서 가치에 동의하는 사회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하였다.

“저는 차를 사기 위해 지방에 많이 다녔어요. 충청남도 OO시에 갔다가 멋있는 경치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 싶었어요. 돈을 모아서 땅을



삐어요.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고 어어요. 가족하고 다 같이 살고 싶어요. 부모님하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살 거니까, 집을 잘 지어야 해요.” (연구참여자 D, 2020.01.19.)

“처음 한국에 와서 힘들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한국에 도움을 주어야 해요. 어렵고 힘든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D, 2020.01.19.)

연구참여자 D는 2017년, 지방에 대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집을 지으면 가족하고 거주하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한국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고 하였다.

“지난번 국적 신청이 불허 되었는데, 한 번 더 신청하고 싶어요. 한국 국적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지금까지 잘 살았기 때문에 나도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 식당이 7개인데, 더 많이 개업해서 체인점을 크게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G, 2020.03.04.)

연구참여자 G는 앞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고 하였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사업을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더 크게 키우고 싶다고 하였다. 식당도 더 많은 도시에 개업해서 체인점으로 확장하고 싶다고 하였다.

“어려운 사람들이 연락하면 제가 도와주어야 하니까,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해요. 사업이 잘되면 나만 잘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K, 2020.02.08.)

연구참여자 K는 파키스탄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면 도와준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산재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아프거나 돈이 없을 때 수술비나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김포, 수원, 제주에 운영 중인 이슬람 기도실의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업이 잘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하고,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였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더 많이 살았어요.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고, 오랫동안 살면서 마음을 두고 있고, 정이 많아지고, 깊어진 곳인 것 같아요. 한국은 제 2의 고향이에요.” (연구참여자 L, 2020.02.23.)

“저는 강원도나 강화도 같은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부인과 같이 가서 쉬고 월요일에 일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원봉사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고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 열심히 살면 나중에 시골에 가서 사는 꿈을 이룰 수 있지만, 지금 열심히 안 살면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연구참여자 L, 2020.02.23.)

연구참여자 L은 2019년에 국적을 받으면서 한국인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고향은 태어난 곳보다 오랫동안 마음을 두고 살면서 정이 깊어진 곳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한국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부인과 행복하게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원봉사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경제 활동을 통해 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였다. 국적 취득을 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하였다. 고국에서 온 자신과 같은 이주민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정서적 지지를 통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다.

## 2) 사업의 확장과 도전

이주민사업가들은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였고, 국적 신청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였다. 이주민사업가들은 사업의 안정적인 확장과 미래에 대한 도전은 안정적인 정착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민사업가에게 안정된 정착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일 수 있다.

“국적이 바뀌면 생각이나, 생활 모든 것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인생 계획도 국적이 바뀌기 전하고 국적이 바뀐 후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 계획도 하나부터 다시 생각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있어요. 경제 활동을 한국에서 하든, 중국에서 하든 체류 제약이 없어졌으니까, 정말 편하고 좋아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 활동이 편하고, 수익이 많은 곳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국적을 받았다고 한국에서만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중국 시장이 크니까,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한국 국적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 거예요.” (연구참여자 A, 2020.02.12.)

연구참여자 A는 2019년 가을부터 중국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며 물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중국을 왕복하면서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국인이 되고 나서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씩 수정하면서 새로운 삶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한국인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

“1년 전에 중국 법인을 만들었고, 앞으로 5년 계획을 세워서 중국 법인으로 이전하고 키워갈 예정이에요. 한국 법인하고 중국 법인으로 넓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일부분 업무는 중국 쪽에서 하고 있고, 중국 창고도 관리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커가고 있어서 제가 같이 있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국제 물류를 하고 있는데, 중국쪽 국내 물류도 해야 해서 앞으로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많이 커지고 성장하면서 중국 국내 택배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사업도 바빠질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는 1년 전에 만든 중국 법인으로 앞으로 5년 계획으로 사업을 이전하고 있으며 한국 법인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중국에 있는 부모님하고 부인, 아이들하고 그동안 떨어져서 지냈는데, 가족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크다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왕복하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나이가 들수록 꿈이 없어지고, 현실적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을 버는 것은 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할 때, 물

론 중국에도 건강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 병원에 갈 때, 걱정없이 치료할 수 있게 내가 자신 있게 치료해 주고,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돈을 버는 이유이고 꿈이에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집, 좋은 차보다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2020.04.01.)

“지금 하고 있는 물류 사업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중국에 지사를 내고, 한국하고 중국에서 물류 사업을 크게 키우고 싶어요. 중국은 인구도 많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C, 2020.04.01.)

연구참여자 C는 치열하게 살았던 지난날에 꿈꾸었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한국하고 중국에 지사를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꿈을 이루었어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나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도 크게 키우고 여러 나라에 지사를 두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E, 2020.03.02.)

연구참여자 E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가가 꿈이었는데, 한국에서 꿈을 이루었으며 사업을 확장해서 여러 나라에 지사를 두고 싶다고 하였으며, 한국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폐차장을 크게 만들어서 바이어들이 한국에 와서 부품사거나 할 때 조금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사업을 크게 하려면 땅도 사야 하고, 건물도 사야 하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살 집도 사야 해요. 그런데, 외국인이면 내일이라도 강제 추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면 불안해서 한국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투자했는데, 강제 추방되면 어떻게 해요. 국적 받아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이 꿈이고, 계획이에요.”  
(연구참여자 F, 2020.02.25.)

“2017년에 국적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할 계획이에요. 제 인생은 한국에 다 있어요. 10년 동안 한국의 법, 질서, 문화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이고, 요르단에 가면 또 다른 외국인이에요. 요르단에서는 살 수 없고, 한국에서만 살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F, 2020.02.25.)

연구참여자 F는 앞으로 한국에 바이어가 왔을 때 편하고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에 폐차장을 크게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적 취득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10년 동안 한국의 법, 질서, 문화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사업 열심히 해서 크게 키우고 싶어요. 중국에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연동시키고 싶어요. 중국은 한국보다 통관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울 계획이에요. 중국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려면 기차로 보낼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하고 중국에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저는 이제 미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씩 미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구참여자 I, 2020.02.01.)

연구참여자 I는 국적을 신청하고 싶은 이유로 한국 국적의 필요성보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크다고 하였다.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는 비자 연장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중국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중국어를 배울 계획이다. 중국에 법인을 만들어서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계획하고 중앙아시아로의 수출 수단도 기차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싶고 미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저는 국적을 받고 나서 꿈이 생겼어요. 지금 회사를 더 크게 키워서 다른 나라에 지사를 만드는 꿈이 있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있어요. 파키스탄 남자인데, 결혼비자(F-6)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부인은 필리핀 사람이었는데,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국적 받고 이혼하고 다시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실장도 있어요. 다른 국적 외국인들을 더 채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팀으로 구성해서 다른 나라에 지사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저는 한 달은 한

국, 한 달은 다른 나라 지사, 또 한 달은 다른 나라 지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에요.” (연구참여자 J, 2020.03.08.)

연구참여자 J는 국적을 받고 나서 회사를 더 크게 키워서 다른 나라에 지사를 만드는 꿈이 생겼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이주민, 또는 자신처럼 귀화한 한국인들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주고 싶다고 하였다. 다른 나라에 지사를 만들어서 크게 확장하고 싶다고 하였다.

“2020년에 2호점 내고, 2~3년 후에 3호점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앞으로 10개 지점을 내는 것이 목표예요.” (연구참여자 M, 2020.01.15.)

연구참여자 M은 2020년, 2호점을 개점해서 바쁜 날을 보내고 있으며, 수도권에 지점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정착하고 싶지만 국적보다는 영주 자격으로 살고 싶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사업의 확장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있었다. 한국하고 고국에서의 법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였고, 사업 확장을 위해 외국어를 공부하는 등 미래를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 감정적 애착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 3) 자녀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바라기도 하였고, 무슬림(Muslim)이기 때문에 코란(Koran)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자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였으며, 사업을 확장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요르단에 파견을 갈 수 있으면 좋겠고, 한국을 위해 국제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국의 정체성, 그리고 다국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인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다국적 정체성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 2020.03.02.)

연구참여자 E는 자녀들이 한국인으로 자라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거나, 요르단에 파견을 가는 등 한국을 위해 국제적인 활동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정체성을 아이들도 가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작은아버지 아이들이 15~16살 정도인데, 요르단에 갔다가 오기도 하고, 한국에서 아랍어를 배우고 있어요. 요르단에 갔을 때 아랍어를 모르면 할아버지께 인사도 못 하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못하니깐, 아랍어를 꼭 가르쳐야 해요. 코란(Koran)도 꼭 가르쳐야 해요. 아랍어는 어려워요. 내가 아는 모로코 아버지와 한국인 엄마의 아들은 아랍어를 아주 잘해요. 아랍어를 배우면 코란도 잘 읽어요.” (연구참여자 F, 2020.01.29.)

연구참여자 F는 자녀 교육이 가장 어렵다고 했다. 작은아버지 자녀인 사촌 동생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요르단에 가기도 하면서 아랍어를 배우고 있다. 요르단에 있는 할아버지와 아랍어로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코란(Koran)도 꼭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자녀들이 아랍어를 잘하고 코란도 잘 읽기를 바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문화인 아랍어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이 아랍 문화의 정체성을 이어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첫째 아들은 열아홉 살이에요.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향에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와서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키르기스스탄 언어하고 문화도 알아야 해서 고향에 보냈어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대학에 가고 싶으면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OO식당 운영도 하고 있고, 차 수출도 배우고 있어요. 아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둘째 딸은 열일곱 살이라서 내년에 결혼시킬 거예요. OOO는 한국에 있다가 14살에 고향에 가서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G, 2020.03.04.)

연구참여자 G는 첫째 아들이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업을 시작했다며 잘 할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하였다. 둘째 딸은 열일곱 살인데, 14살까지 한국에 있다가 고향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결혼을 시킬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문화 보다는 고향의 결혼 관습에 따라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더 크게 키워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줄 거예요. 첫째 000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입학하고, 한국에서 의사가 되고, 둘째, 셋째 아들들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니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 해요. 그리고, 국적 신청 다시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H, 2020.03.03.)

연구참여자 H는 두 번째 국적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사업을 더 크게 키우고 싶다고 하였다. 첫째 딸은 공부를 잘하고 있고 의사가 꿈이며, 둘째, 셋째 아들들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였다.

“우리 아들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과학 과목을 좋아하고, 수학을 잘 해요. 우리 아들이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주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J, 2020.03.08.)

연구참여자 J는 아들이 수학하고 과학 과목을 좋아하고,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아들이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주고 싶다고 하였다.

“나이가 오십이 넘으니까, 욕심이 없어져요. 첫째 000가 공부 잘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둘째는 중학교 2학년인데,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커서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000가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내 사업을 이어서 한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사업을 크게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K, 2020.02.08.)

연구참여자 K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첫째 아들하고,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둘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하였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

을 더 크게 키워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이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하였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면 좋겠다고 하였고, 고국에 있는 부모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코란(Koran)하고 아랍어를 잘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자신의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까지 사업을 키우고 싶다고도 하였다. 또한 고국의 언어와 문화를 포함한 정체성을 자녀들이 물려받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결혼 관습을 계승하여 자녀의 결혼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다양한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사회통합 경험에 관해 이주시기별 생애사별 주제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전 삶의 경험에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전후, 한국의 경제적인 번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초국적 이주를 하였으며, 가족이나 자신의 초국적 이주 경험이 있기도 하였다. 또한 이주 전에 부모 또는 자신의 사업 운영을 경험한 후에 이주를 하기도 하였다.

이주 초기 삶의 경험에서는 다양한 목적의 이주 유형만큼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포함한 한국문화와 적응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사업 활동과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국으로의 귀환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현재 삶의 경험에서는 사업가로서의 원칙과 윤리 규범을 준수하면서 사업의 전문성 및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비자를 변경하기도 하고,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의 문화나 사회제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인적 자본을 통한 문화적 동화를 보이기도 하였고,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국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하기도 하였다. 사업 활동으로 바쁘다 보니 대부분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여가나 사교 생활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래 삶의 계획에서는 안정된 현재 생활의 영위를 원하고 있었으며, 사업의 확장과 미래에 대한 도전에는 한국과 고국의 초국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공적 영역과 달리 사적 영역에서는 고국의 관습을 따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4.3. 사회통합 경험 사례 간 분석

#### 4.3.1. 사회적 지위 및 배경 변화

인간은 사회 속에서 개인 또는 집단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이때 개인마다 주어진 사회적 위치에 따라 상호작용의 기대되는 행동양식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적 지위는 어떤 집단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이고, 그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방식을 역할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집단에 속할 수 있고, 개인의 지위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위는 일의 형성, 의미 및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관적인 해석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Rosso et al. 2010). 개인은 객관적인 일의 특성보다 자신의 일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하다(Baumeister, 1991).

따라서 사회적 지위는 자산 자체가 아닌 사회적 도구로서 사회적 가치(instrumental social value)일 수 있으며, 집단의 위치에 따라 지각된 사회적 비교 및 지위는 달라질 수 있다(Leary et al., 2014).

연구참여자 13명의 사회적 지위 및 배경 변화에 대해 다음 <표 IV-22>와 같이 분석하였다.

<표 IV-22> 이주 전 직업과 이주 이유

구분	직업	이주 이유
A	고등학생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 일본에서 찾지 못했던 자유를 찾기 위해 선택한 한국 유학
B	고등학생	미래에 대한 자유로운 도전, 역사적인 감정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 유학을 선택
C	고등학생	역사적인 감정 영향으로 선택하지 않은 일본, 새로운 도전을 위한 한국 유학
D	요리사	한국에서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던 외삼촌으로부터 전해 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E	고등학생	한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던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
F	고등학생	작은아버지는 한국에서 자동차를 수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요르단에서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던 사업할 때 유학하기 위해 한국행

구분	직업	이주 이유
G	사업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 판매하다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주
H	사업	중국에서 의류, 농기계 수입 판매하다가 한국 경제 발전 이야기를 듣고 이주
I	초등학생	한국에서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한국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연구참여자에게 한국어를 배워서 사업을 도우라고 하여 이주
J	무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택시 사업을 하다가 한국 산업연수생 모집 기사를 보고 이주
K	사업	사업을 하던 아버지를 도와 사업을 하던 중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하려다가 한국에 정착
L	무직	고등학교 졸업 후에 외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한국 산업연수생 모집 기사를 보고 이주
M	관광 가이드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여행사에서 관광가이드를 하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 유학 자격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하고, 근로자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이주

연구참여자들은 위의 <표 IV-22>와 같이 대개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고등학생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19세 전후의 이주 시기를 알 수 있었다. 이주하기 전에 가족이나 본인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이주 전 가족의 초국적 이주 경험하고 사용 언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 5명은 가족의 초국적 이주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 가족의 초국적 이주 경험이 있다고 한 연구참여자는 8명이었다. 초국적 이주 시기는 주로 1940년 중·후반에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유년 시절에 이루어졌으며, 전쟁, 종교 등 정치·사회적 또는 유학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13명의 국가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공용어와 민족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해서 2~6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음 <표 IV-2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V-23> 이주 전 가족의 이주 경험과 사용 언어

구분	성별	나이	이주 년도	출신국	한국으로 이주 전 가족의 초국적 이주 경험	사용 언어
A	여	38	2007	중국	가족의 초국적 이주 배경 없음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영어, 한국어
B	남	34	2006	중국		중국어, 영어, 한국어
C	남	34	2006	중국		
D	남	38	2004	요르단	가족의 초국적 이주 배경 없음	아랍어, 영어, 한국어
E	남	35	2003	요르단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아버지가 대 학교 때 요르단으로 초국적 이주하 였고, 연구참여자는 사우디아라비 아에서 출생하여 요르단으로 초국 적 이주	아랍어, 영어, 한국어
F	남	30	2009	요르단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할아버지가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 때 요르단 으로 초국적 이주	아랍어, 영어, 한국어
G	남	42	2002	키르기스스탄	소련 시절인 1946년~1949년 우즈베 키스탄 지역에서 살던 할아버지가 키르기스스탄 지역으로 이주	키르기스어, 러시아어, 한국어
H	남	43	2000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어, 아랍어, 말레이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I	남	23	2006	키르기스스탄		
J	남	49	1999	파키스탄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살던 할아버 지, 할머니, 아버지가 1947년 인도, 파키스탄 분리 독립 때 파키스탄으 로 초국적 이주함.	우르드어, 펀자브어, 영어, 한국어
K	남	52	1999	파키스탄	터키에서 살던 할아버지가 아프카 니스탄으로 초국적 이주했다가 다 시 파키스탄으로 초국적 이주하여 정착	우르드어, 파슈투어, 영어, 한국어
L	남	43	2000	파키스탄	인도에 펀자브 지방에 살던 할아버 지, 할머니가 1947년 인도, 파키스 탄 분리 독립 때 파키스탄으로 초 국적 이주함.	우르드어, 펀자브어, 영어, 한국어
M	남	34	2011	베트남	가족의 초국적 이주 배경 없음	베트남어, 한국어

위의 <표 IV-23>과 같이 중국하고 베트남, 요르단 출신 연구참여자를 포함한 5명은 가족의 초국적 이주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요르단 출신 2명의 연구참여자는 전쟁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이유 또는 유학을 목적으로 한 가족의 초국적 이주 경험이 있었다. 1948년 전쟁으로 인해 할아버지가 팔레스타인에서 요르단으로 이주한 연구참여자 F는 자신이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체성을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E는 요르단에서 실제 4~5년만 거주하였고, 생애 가장 긴 시간을 한국에서 거주하였으며, 다국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출신 연구참여자 3명의 할아버지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USSR, 이하 소련(Soviet Union)) 시절인 1946년~1949년에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현재의 키르기스스탄 지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었다. 파키스탄 출신 연구참여자 2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슬림(Muslim)으로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거주하다가 1947년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되면서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였다. 연구참여자 K의 할아버지는 터키에서 살다가 아프카니스탄을 거쳐 파키스탄으로 2개 국가에 걸친 초국적 이주의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주민의 이주 전 가족의 초국적 이주 배경을 포함한 다민족 국가에서 공용어와 민족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주민의 다양한 이주 배경을 고려한 사회통합교육의 대상별 맞춤 교육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한국 내 거주 기간은 베트남 출신 1명 9년을 제외하면 12명이 10년 이상이며 20년 이상 거주한 참여자도 4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하기 전 다민족 국가에서 주류 민족이기도 하지만, 소수 민족인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이주 형태는 단독 이주가 가장 많았고, 미혼인 1명을 제외한 연구참여자 12명은 결혼, 가족 재결합 등을 통해 현재 가족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 종교는 연구참여자 9명이 이슬람교로 가장 많고, 중국 출신 3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베트남 출신 1명은 불교였다.

연구참여자의 이주 전 고국의 민족 배경하고, 이주 형태, 이주 초기와 현재 가족 형태하고 종교에 대해서 다음 <표 IV-2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IV-24> 이주 전 민족 배경 및 이주 초기 가족 형태와 종교

구분	성별	거주기간	현재국적	민족배경	가족형태		종교
					이주 초기	현재	
A	여	13	한국	한족	단독 이주	2020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	무교
B	남	14	중국	한족	단독 이주	고국에 가서 결혼하였으며, 고향에 부인과 아들 둘이 있음	무교
C	남	14	중국	한족	단독 이주	고국에 가서 결혼하였으며, 고향에 부인이 있음	무교
D	남	16	한국	아랍인	단독 이주	한국에서 러시아인 부인과 결혼하였음	이슬람교
E	남	17	요르단	아랍인	단독 이주	고향에 가서 결혼하였고 한국에서 부인과 2남 양육	이슬람교
F	남	11	요르단	아랍인	친척 방문	고향에 가서 결혼하였고 한국에서 부인과 2녀 양육	이슬람교
G	남	18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크인	단독 이주	고향에 가서 결혼하였고 한국에서 부인과 3남 4녀 양육	이슬람교
H	남	20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크인	단독 이주	고향에 가서 결혼하였고 한국에서 부인과 2남 1녀 양육	이슬람교
I	남	14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크인	부모 동반 이주	사업가 아버지에 의해 동반 이주하였고, 어머니, 형, 여동생과 가족결합하였음.	이슬람교
J	남	21	한국	편자브인	단독 이주	고향에 가서 결혼하였고 한국에서 부인과 1남 양육	이슬람교
K	남	21	한국	파슈툰인	단독 이주	첫 번째 한국인 부인과 이혼, 고향에 가서 첫사랑과 결혼하였고 한국에서 부인과 2남 양육	이슬람교
L	남	20	한국	편자브인	단독 이주	한국인 부인과 결혼하였고, 자녀는 없음	이슬람교
M	남	9	베트남	베트남인 (킨족)	단독 이주하였고, 미혼		불교

위의 <표 IV-24>와 같이 연구참여자 13명의 이주 기간은 9년 1명, 11~14년 5명, 16~18년 3명, 20~21년 4명이었다. 10년 단위로 구분하면 10년 이하 1명, 10년 이상 10명, 20년 이상 2명으로 연구참여자 13명 중에 12명이 이주한 지

10년이 지난 장기 체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적을 살펴보면 귀화한 연구 참여자 5명의 출신국은 파키스탄 3명, 중국 1명, 요르단 1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이주 전 고국의 민족 배경을 살펴보면 중국 출신 3명은 한족으로 중국 내 최대 민족이며, 요르단 출신 3명은 아랍인으로 요르단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 J, L은 편자브인으로 파키스탄 최대 민족이며 전체 인구의 56%, 연구참여자 K는 파슈툰인으로 아프카니스탄에서는 최대 민족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에서는 17%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M은 베트남인(킨(Kinh)족)으로 인구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키르기스스탄 출신 3명은 우즈베크인으로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키르기스인이 64.9%를 차지하고 있다<sup>19)</sup>.

이주 형태는 부모에 의해 동반 이주한 연구참여자 I를 제외하면 12명은 단독으로 이주하였다. 베트남 출신 연구참여자 1명은 미혼이고, 연구참여자 12명은 결혼, 가족 재결합 등을 통해 현재 가족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K, L은 한국인하고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었는데, K는 국적취득하고 나서 이혼한 뒤에 고향에 있는 첫사랑하고 재혼하여 아들 둘을 양육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는 국적 취득 후에 한국인하고 결혼하였다. 연구참여자 중국 2명, 요르단 2명, 키르기스스탄 2명, 파키스탄 1명은 고향에 가서 결혼한 후에 부인하고 동반 입국하여 가족 결합을 한 경우이다. 연구참여자 D는 한국에서 러시아 출신 부인하고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었고, 자녀는 없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출신 3명은 무교, 베트남 출신 1명은 불교이다. 다민족 국가에서 이주한 연구참여자의 민족 배경 및 이주 형태 및 가족 결합의 다양한 형태 또한 문화다양성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교육과정에서 생각해 볼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이주 전후의 학력 변화하고, 직업의 변화에 대해 다음 <표 IV-24>와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하기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가장 많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도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원을 졸업하여 학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 초기에는 대학생이거나,

---

19) 두산백과(2020).

요리사, 사업, 또는 이주근로자로 생활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현재는 국제물류, 식당, 중고차 수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표 IV-25> 이주에 따른 학력과 직업의 변화

구분	학력		직업		
	이주 전	이주 후	이주 전	이주 후	
				초기	현재(업종)
A	고졸	대졸	고등학생	대학생	국제물류, 수출, 중국 내 사업 병행
B	고졸	대학원졸	고등학생	대학생	국제물류, 중국 현지 법인 운영 병행
C	고졸	대학원졸	고등학생	대학생	국제물류, 중국 현지 법인 운영 병행
D	고졸	고졸	요리사	요리사	식당, 중고자동차 수출 병행
E	고졸	고졸	고등학생	사업	중고자동차 수출
F	고졸	고졸	고등학생	어학연수(D-4)	중고자동차 수출
G	중졸	중졸	사업	이주근로자	식당, 중고자동차 수출 병행
H	고졸	고졸	사업	이주근로자	중고자동차 수출
I	초등 재학	중등자퇴	초등학생	초등학생	중고자동차 수출
J	고졸	고졸	무직	이주근로자	중고자동차 수출
K	고졸	고졸	사업	이주근로자	중고자동차 수출
L	고졸	고졸	무직	이주근로자	식당, 중고자동차 수출 병행
M	대졸	대졸	관광가이드	이주근로자	식당

위의 <표 IV-25>와 같이 학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주하기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구참여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연구참여자는 1명, 중학교를 졸업한 연구참여자는 1명, 초등학교 재학 중인 연구참여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이주 목적에 따른 학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유학을 목적으로 하였던, 중국 출신 3명 중에 1명은 대학 졸업, 2명은 사업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학력의 변화를 보였다. 초등학교 때 이주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말레이시아에 유학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자퇴를 하였다. 나머지 요르단 출신 3명, 키르기스스탄 2명, 파키스탄 3명, 베트남 1명은 취업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학력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전 직업은 고등학생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 활동 중이었던 사업가 3명, 취업준비생 2명, 그리고, 요리사, 초등학생, 관광가이드가 각각 1명씩이었다. 이주 초기에는 이주근로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 3명, 그리고, 요리사, 사업가, 어학연수(D-4), 초등학생이 각각 1명이었으나, 초기 이주 목적을 달성하고 현재는 국제 물류 사업 3명, 중고차 수출 사업 6명, 식당하고 중고차 수출 사업 병행 3명, 식당 1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13명은 이주 초기부터 현재까지 1~4회 체류자격(VISA)을 변경하였다. 연구참여자 9명은 1~2회 귀화 신청을 한 경험이 있었고, 3명은 귀화 신청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I는 나이 때문에 귀화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귀화를 해서 한국인이 된 연구참여자는 파키스탄 출신 3명, 중국, 요르단 출신 각 1명이었다.

연구참여자별 체류자격(VISA)의 변화된 양상은 다음 <표 IV-26>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V-26> 이주 후 체류자격(VISA)의 변화

구분	출신국	체류자격(VISA) 양상 변화	과거 귀화 신청 횟수	현재 귀화 신청 여부	현재 국적
A	중국	어학연수(D-4)→유학(D-2)→특정활동(E-7) →기업투자(D-8)→한국인	1회	-	한국
B	중국	어학연수(D-4)→유학(D-2)→개인사업(D-9) →거주(F-2)	계획 없음	계획 없음	중국
C	중국	어학연수(D-4)→유학(D-2)→개인사업(D-9) →거주(F-2)	계획 없음	계획 없음	중국
D	요르단	특정활동(E-7)→기업투자(D-8)→한국인	1회	-	한국
E	요르단	단기방문(C-3)→기업투자(D-8)	1회	신청중	요르단

구분	출신국	체류자격(VISA) 양상 변화	과거 귀화 신청 횟수	현재 귀화 신청 여부	현재 국적
F	요르단	어학연수(D-4)→기업투자(D-8)	1회	준비중	요르단
G	키르기스스탄	관광→불법체류→비전문취업(E-9)→단기방문(C-3)→기업투자(D-8)	1회	준비중	키르기스스탄
H	키르기스스탄	관광→불법체류→비전문취업(E-9)→단기방문(C-3)→기업투자(D-8)	1회	준비중	키르기스스탄
I	키르기스스탄	동반(F-3)→개인사업(D-9)	-	준비중	키르기스스탄
J	파키스탄	비전문취업(E-9)→불법체류→기업투자(D-8)→한국인	1회	-	한국
K	파키스탄	관광→불법체류→비전문취업(E-9)→결혼이민(F-6)→한국인	1회	-	한국
L	파키스탄	비전문취업(E-9)→기업투자(D-8)→결혼이민(F-6)→한국인	1회	-	한국
M	베트남	비전문취업(E-9)→특정활동(E-7)→거주(F-2)	계획 없음	계획 없음	베트남

위의 <표 IV-26>과 같이 연구참여자 중에 유학을 목적으로 이주한 중국 출신 3명의 체류자격(VISA)은 어학연수(D-4)로 시작해서 유학생(D-2)으로 변경되었다. 연구참여자 A는 무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2013년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하였다. 사업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정착해야겠다고 결심하였으며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귀화 신청을 하였고, 2017년 한국인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B, C는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2014년 개인 사업(D-9) 자격으로 변경하였다.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VISA)를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2016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017년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요리사로서 특정활동(E-7) 자격으로 활동하다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7년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하였고,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7년 3월에 국적 신청을 하였으며 2018년 귀화하여 한국인

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E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03년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이주하였고, 2008년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하였다. 2012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사업 일정으로 중단하였다가 2018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단계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다. 2019년 ‘한국사회이해’ 과정까지 이수하였고, 12월에 국적 신청을 하였으며 2020년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구참여자 F는 유학을 목적으로 이주해서 이주 초기 어학연수(D-4)를 하다가 전공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하였다. 귀화하여 한국에 정착해야겠다고 결심하고 2013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단계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2015년 7월까지 이수하였다. 2016년에 국적 신청을 하였는데, 2017년 2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후에 다시 국적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G, H는 각각 2002년, 2000년에 관광 목적 단기방문(C-3) 비자로 이주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체류 기한을 넘기게 되면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다. 2004년 불법 체류 근로자들에게 비자(VISA)를 변경해주는 정책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으로 중고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6개월 정도 후에 단기방문(C-3) 비자로 변경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2년, 연구참여자 H는 3년 동안 한국하고 키르기스스탄을 왕복하면서 사업 활동을 하다가 2006년 기업투자(D-8) 비자로 변경하였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2013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015년 4월에 이수하였다. 그해 7월에 국적 신청을 하였는데, 2차 면접에서 불합격하여 2020년 다시 국적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I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2006년 가족동반(F-3) 자격으로 이주하였다.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사업을 하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2017년 무역경영(D-9) 자격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7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단계에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국적법」 제 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인 「민법」상 성년이 되면서 국적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J는 1999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이주하였으나, 월급 등 현



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다. 2002년 자진 출국하면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정책에 따라 고향에 다녀오면서 2005년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적 신청을 해야겠다고 준비하던 중에 2013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2015년 7월에 이수를 하였다. 그 해 국적 신청을 하였고, 2018년 5월에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K는 1999년 일본에 가기 위해 관광 목적 단기방문(C-3) 비자로 이주하였으나, 친구들이 일본으로 가는 바람에 혼자 한국에서 체류 기한을 넘기게 되면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다. 2002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2004년 한국인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하였고, 2007년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8년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었지만 얼마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파키스탄에서 다른 남자와 이혼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던 첫사랑하고 결혼하였다.

연구참여자 L은 2000년에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이주하였고, 4년 10개월 후에 비자가 만료되어 고향으로 갔다가 2006년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재이주하였다. 2009년 한국인하고 결혼하였고,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2014년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5년 이수하고 그 해 국적 신청을 해서 2019년에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M은 2011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이주하였다.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하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자(VISA)를 변경하게 되었다. 얼마 후에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자(VISA)를 변경하기 위해서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16년 ‘한국사회이해’ 과정까지 이수하고, 한달 후에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였다.

연구참여자 13명의 다양한 삶처럼 비자(VISA)의 변경 또한 1회에서 4회까지 변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귀화해서 한국인이 된 연구참여자도 5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초기 이주 목적에 따라 비자(VISA)의 유형은 달랐지만 이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자(VISA) 만료로 인한 불법 체류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는 4명이었고, 이들의 공통점 또한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



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시행에 있어서 이들의 경험이 세부적인 논의점을 남기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4.3.2. 이주와 사업의 계기

연구참여자의 이주에 따른 학문적 경험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경험한 전문지식과 그로 인한 인적자본의 경험은 다음 <표 IV-27>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V-27> 이주에 따른 사업의 계기와 경험

구분	학문적 경험	전문지식 경험	인적자본 경험	
A	-서울 00어학당 1년 동안 한국어 교육, 00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조선족만 사업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류였음.	-고향과 비슷한 한국문화 (한국 사람들은 성격도 밝고, 속이지 않고, 솔직함) -수술을 통해 한국 법제도 시스템 투명성 신뢰	-출입국.외국인청 착오로 인한 비자발급후에 연장이 문제되었을 때, 회사 사장님의 도움으로 연장됨. -출입국.외국인청 이용 피로감 호소
B	-서울 00어학당 1년 동안 한국어 교육, 00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대학교 1학년때 식당 동업자에게 사기 당하고 해결하면서 인간관계, 문제해결 방법 배움	-중국에 있었다면 몰랐을 국제 무역이나 시장흐름에 대한 감각을 배웠음	-사기피해 해결할 때 일숫돈 이모, 위장결혼한 한국인 남편, 조선족 친구 덕분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식당 매각함
C	-인천 00어학당 1년 동안 한국어 교육, 00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대학원 다닐 때 성형외과 마케팅 직원으로 중국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익힌 국제무역 감각	-어학연수생 20명 중에 19명이 돈 때문에 불법체류를 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준 어학당 중국인 형님들	-한국에 이주한 자체만으로,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이고, 삶의 한계에 대한 도전일 만큼 경험의 소중한 감사함
D	-한국어 교육 등 학습 경험에 노출된 적 없음.	-요리사 시절 만난 요르단 사업가를 통한 상담과 조언	-사업 초기 한국어를 몰라서 사기를 당했지만 해결책이 없었음	-식당 개업할 때 행정기관 제출서류에 도움을 준 한국 지인, 요르단 사업가 친구들
E	-서울 00어학당 1년 동안 한국어 교육 받음.	-아버지 거래처 수원 사장님 도움으로, 어학당 입학 등 초기 정착 및 사업 관련 전폭적 도움 받음.	-수원 사장님 도움으로 사업이 안정되고, 수원 사장님 회사의 요르단 지사 설립 및 운영에 아버지하고 도움을 줌.	-창업 준비 및 인천에 법인 설립하고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 수원 사장님, 회사 직원들
F	-인천 00어학당 1년 동안 한국어 교육	-사업하던 작은 아버지의 조언과 도움으로	-사업 초기 작은 아버지하고 2년 정도 같이 사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역사, 경제 공부를 하고

구분	학문적 경험	전문지식 경험	인적자원 경험	
	받은 후에 2013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2년 정도 참여함	로 안정적인 시작	업을 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적은 없음.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음
G	-한국어를 공부하면 욕설, 차별하는 말을 듣고 상처받을까 봐 일부러 배우지 않음.	-불법체류를 하다가 비전문취업(E-9)자격변경하고, 중고차 매매단지 방문후에 단기방문(C-3)으로 변경하여 사업 시작	-관광으로 입국한 후에 2년 동안 불법체류를 하였음. 차별, 욕설을 알아듣지 못하고, 손짓을 보고 일을 하다가 욕설을 알아듣고도 '욕설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함	-한국에 입국하던 날 같은 비행기로 온 키르기스스탄 결혼이민자 남편이 수원까지 데려다 주고 사주었던 피자의 따뜻함. 2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던 기회의 땅.
H	-한국어 교육 등 학습 경험에 노출된 적 없음.	-한국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사업등록 등 절차를 혼자 해결했고, 가족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싫어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의 욕설	-외국인이라고 격려해주고, 밥 잘 먹고, 건강하라고 했던 좋은 사람들
I	-8살에 이주해서 어린이집에 1년 다니고, 초등3학년 편입	-사업자 등록은 여러 이유로 늦어졌고, 그때마다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청년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가면 혼자였기 때문에 한국문화만 경험해서 한국인이라고 생각함.	-무슬림이라서 학교 식당에서 매일 음식을 따로 만들어 주었던 배려와 감사함
J	-한국어 교육 등 학습 경험에 노출된 적 없음.	-사업 시작 초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공단 폐차장에 무조건 매일 방문해서 거래를 하기 시작	-산업연수생 시절 회사 사장님은 파키스탄에 가서 회사를 만드는 큰 꿈을 가지라고 용기를 주었음	-1980년대 이주노동자였던 경험이 있었던 회사 사장님의 충고와 조언은 인생 멘토 같은 존재
K	-한국어 교육 등 학습 경험에 노출된 적 없음.	-성공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국 법 제도에 대해 도움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음	-사업 시작하고 자주 경험한 사기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함	-행정기관 또는 수출서류에 실수를 할 때 친절하게 안내해준 고마운 사람들
L	-한국어 교육 등 학습 경험에 노출된 적 없음.	-친구하고 친척들이 서울하고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	-산업연수생 시절 한국음식을 한 번 먹었을 정도로 한국인과 교류가 많지 않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게 됨	-4년 10개월 연수생 시절 한 회사에서 일할 정도로 회사 사장님, 직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로 재미있게 생활함
M	-인천 000센터에서	-서울 00센터에서	-한 회사에서 5년 일하는	-인천 회사를 소개해 준

구분	학문적 경험	전문지식 경험	인적자본 경험	
	한국어 교육 받음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1년 참여함.	이주민의 경영, 창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방문해서 준비하고 식당 창업함	동안 사장님은 힘든 일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 주었고, 주말에는 한국 인직원들과 축구, 여행도 하는 등 재미있고 즐겁게 생활하였음	친구 고모, 회사 사장님, 비자 변경할 때 도와준 000센터 관계자 덕분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되었음

연구참여자들은 위의 <표 IV-27>과 같이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기도 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면 차별하는 말을 듣고 본인이 상처받을까 봐 일부러 배우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전문지식 경험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습득하거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조언과 도움을 듣고 안정적인 시작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인적자본 경험은 사기 피해 해결을 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으로 인해 어려움, 또는 피로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별 사업 활동의 다양한 경험은 다음 <표 IV-28>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V-28> 연구참여자별 다양한 사업 활동 경험

구분	합법적 경험	사회적 위치 경험	사회적 수용 경험	경제적·제도적·정치적 자본 경험
A	-출입국 비자연장 과정의 어려움	-중국내 사업 활동 어려움	-사업 활로책 노력 및 바이어 방문 통한 통역 등 지원	-탈세 목적을 위한 불법 밀수에 대해 분개하고 비판함
B	-한국인 친구와 동업후에 사기당함	-비자변경으로 원활한 활동 범위 확대	-동업자 K와 원활한 운영방식으로 수익 증대	-한국인, 중국인 통한 사기, 배신으로 인한 제도적 자본 필요
C	-물류 배송 지연 보상 관련 행정서비스 부재로 어려움	-거주(F-2) 비자 변경으로 사업활동 범위 확대	-동업방식 수익 증대 지원 필요	-물류 배송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제도적 문제 발생
D	-출입국 비자연장 어려움으로 코트라에서 연장	-사회통합교육참여로 전문지식 획득 기회 부여	-회사, 식당, 고객 등 상호 호의적 관계 활성화	-비즈니스 서포팅센터 필요
E	-소통하는 법의 평등	-다국적 직원들의	-직원 수용 자본 만족	-직원 횡령으로 인한

구분	합법적 경험	사회적 위치 경험	사회적 수용 경험	경제적·제도적·정치적 자본 경험
		다양성 존중 및 연대 경영		제도적 자본 필요성
F	-출입국 비자연장 과정 어려움	-사회통합교육 참여 만족 위치 확보	-구성원 수용으로 위치 확보	-경제적 자본 노력에 성과 만족
G	-공공기관의 권리 존중	-사회통합교육 다양성 자산	-식당, 회사 관계 노력	-제도적 자본 활용
H	-권리 경험 믿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위치확보	-수용 관계 다양한 지원	-한국인과 소송 경험
I	-공정한 권리 실현	-전문지식 다양한 확보	-수용의 만족	-제도적 자본 노력 필요
J	-공공기관 이용 권리	-전문지식 활용의 기쁨	-미래 향상 기회	-경제적,제도적 자본 노력
K	-권리 존중 경험	-국적 취득이 주는 행복	-순응과 적응 하모니	-자본 실천을 통한 경험
L	-공공기관 방문	-사회통합교육 혜택 만족	-다양한 사회적 수용에 기대	-경제적·제도적 자본 확대
M	-권리는 실천	-거주(F-2) 비자 변경으로 사업활동 범위 확대	-주변상인 등 관계 원활	-제도적 자본은 자원

위의 <표 IV-28>과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해서 비자 연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공정한 권리의 실천에 관련한 경험들이 있었다. 사회적 위치 경험은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해서 전문지식 획득의 기회를 부여받기도 하고, 다양성, 또는 국적 취득이 주는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 4.3.3. 정체성과 시민의식

연구참여자별 사업 활동 경험에 나타난 정체성과 시민의식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IV-29-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V-29-1> 사업 활동 경험에 나타난 정체성과 시민의식

구분	사회적 네트워크 경험	문화적 자본 경험	사회적 자본 경험
A	-중국인에게 사기 당한 경험	-고국 문화적 자본보다 상호작용 원칙 중요	-중국, 한국 사업가 네트워크 노력
B	-국제물류 특성상 한국인과 관계하지 않음	-동업자, 회사 직원과의 문화적 공감으로 자본 형성	-한국, 중국 2개국 사회적 자본 풍부
C	-화장품에서 국제물류 업종 변경 후에 중국 중심 네트워크로 한국 네트워크 부재	-동업자, 회사 직원 같은 문화적 자본 풍부	-중국인 동업자, 직원, 세관, 업체, 가족 등의 사회적 자본 형성
D	-거래 사기 등 부정적 네트워크 발생하여 손해	-고국, 다국적 직원, 거래처 등 문화적 자본 풍부	-거래처, 직원 등 사회적 자본 형성 노력
E	-한국 내, 직원, 고객 등 네트워크 다양	-고국에 있는 파트너(형제), 다국적 직원, 거래처 등 문화적 자본 풍부	-고객, 업체, 바이어 등 사회적 기회 및 자본 다양
F	-지역사회 내 다양한 업무조력 네트워크	-고국에서의 무슬림 문화를 한국에서 친척, 작은아버지와 연대	-고국, 지역사회, 민족 간 상호작용
G	-지방, 지역 간 조직된 네트워크	-자녀들 결혼은 고국의 무슬림 문화를 이어받음	-고국에서 온 근로자들을 지역 연결망으로 지원
H	-지역, 업종, 민족 간 네트워크 확산	-회사, 자녀 교육, 고국 자본	-다양한 사회적 자본 만족
I	-친구, 지역, 바이어 관계 풍부	-한국인 친구, 문화 등 상호작용	-정기적인 자본의 행사 다양
J	-고국, 지역사회 네트워크 만족	-한국 문화 자본에 공감	-사회적 네트워크 확대 노력
K	-지역 사회와 상호작용 만족	-문화적 자본 형성에 주력	-초국적, 사회적 자본 연결
L	-공공기관, 지역사회 활발한 관계 형성	-식당, 회사를 통한 풍부한 자본	-사회적 관계 자본 만족
M	-공공기관 및 상인회 활동	-다국적 문화적 공감으로 문제 해결	-지속적 자본 형성 노력

위의 <표 IV-29-1>과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국제물류 특성상 한국인과 관계하지 않는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도 있었고, 지방, 지역의 네트워크 다양성 및 상호작용 만족에 대한 경험도 있었다. 문화적 자본 경험은 동업자, 회사 직원과의 문화적 공감으로 인한 자본 형성, 그리고, 회사, 자녀, 한국인 직원과의 상호작용 및 자본 형성에 공감하거나, 주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에 따라서 사업 활동 경험을 통해 정체성의 다양함 또는 시민의식, 소속감은 <표 IV-29-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IV-29-2> 사업 활동 경험에 나타난 정체성과 시민의식

구분	자아 의식	시민 의식	소속감
A	-한국인 남편, 그리고 나도 한국인	-소속 사회의 가치에 동의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B	-나는 중국인	-중국, 한국을 연동하는 사업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가려 해
C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	-중국, 잠재적 성장 가능성	-한국은 나의 제2의 고향
D	-한국은 나에게 도움을 주었어	-나는 한국인, 도움주고 싶어	-집을 지어서 부모님과 함께
E	-한국의 정체성이 있어	-우리 자녀들은 한국 학교에	-나도, 자녀들도 한국인
F	-국적이 바뀐다고 해도 나는 나	-한국의 법, 질서에 익숙해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인
G	-한국을 돕고 싶어	-한국에 좋은 일 하고 싶어	-나도, 자녀들도 한국인
H	-아이들의 꿈은 한국인	-아이들의 꿈은 현실에서	-한국인의 아버지
I	-국적보다 한국이 좋아	-아버지는 돌아가지만 나는 한국인	-8살부터 한국인이었어
J	-아들의 꿈은 과학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도움	-나는 진짜 한국인
K	-아이들의 나라 한국	-어렵고 소외된 사람 돕고 싶어	-죽어서도 한국인
L	-정이 깊은 나라	-자원봉사하고 싶어	-한국은 제2의 고향



구분	자아 의식	시민 의식	소속감
M	-한국이 좋아	-한국은 기회의 땅	-베트남으로 가려 해

연구참여자는 위의 <표 IV-29-2>와 같이 한국인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한국 사회의 가치에 동의하고 한국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고국에 대한 시민의식 및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은 제2의 고향이며, 한국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고 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 4.4. 소결

4장에서는 이주민사업가 13명의 생애시기별 사업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주민사업가 13명 중에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연구참여자 5명은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이주하였다. 1993년 12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sup>20)</sup>를 도입한 이후에도 인력난이 계속되자 사업주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업체를 이탈하는 연수생의 수가 많아지던 시기였다. 실제 연구참여자 G, H, K는 관광으로, L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였지만 불법 취업과 체류를 경험하였고,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류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둔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각국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주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 D, F는 삼촌, E, I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또는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G, H는 고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중국하고 한국을 오가며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들에게서, J, K, L, M도 언론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주하게 되었다.

반면에 연구참여자 A, B, C는 중국하고 일본의 오랜 역사적 감정으로 인해 일본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감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는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다가 ‘중국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B는 부모님의 반대로, C도 역사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로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

20) 한국이민정책의 이해(2011), 정기선.

1980년 대 중반 이후 3D 업종에 외국인이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계속되자 정부는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 12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서 사업주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불법취업자의 임금이 높은 것을 알게 된 연수생의 업체 이탈 사태가 빈발하게 되자 정부는 2000년 4월, 연수취업제를 시행하여, 산업연수생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2년 12월부터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관리제를 도입하였고, 2003년 8월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다.

연구참여자 B, D, G, L, M은 과거에 식당 운영을 경험했거나, 현재 식당 운영을 하고 있다. B는 유학 생활 4년 동안 중식당을 운영하였지만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연구참여자 D는 아랍 식당을, G는 키르기스스탄 할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L은 2015년에 식당을 운영하다가 매각하고, 2018년부터 파키스탄 할랄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연구참여자 M은 베트남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식당을 운영하게 된 이유로는 고국 음식 문화에 대한 익숙함으로 창업이 생각보다 용이했을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이들의 고국 음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새로운 음식,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한국인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욕구도 커지기 때문일 수 있다.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연구참여자들은 무슬림(Muslim)으로 자녀들이 아랍어하고 코란을 배우고 익혀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 존중받고 싶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사업 분야는 다양하지만, 연구참여자 M을 제외한 12명은 모두 한국 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물류 사업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A, B, C는 중국으로 유아용품, 화장품을 수출했으며 물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D, E, F는 요르단,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아프리카, 중동으로, G, H, I는 중앙아시아로, J, K, L은 파키스탄, 아프리카, 캄보디아, 도미니카, 칠레 등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각 나라에 중고자동차하고 중고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국적을 1회 이상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B, C, M은 국적 신청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차별배제모형에 구분되어진 연구참여자의 한국 국적 취득은 사회통합 정책 모형에 논의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고국과 이주한 국가의 문화에 동시에 접촉하면서 동시에 통합되는 다중통합(Mehrfachintegration)은 노동이민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Esser(2001)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민으로 한국에 이주해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이들의 사회통합 의지는 노동이민에서도 다중통합(Mehrfachintegration)이 가능하다는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 이주민사업가 13명 중에 연구참여자 I는 아홉 살에 한국에서 중고차

수출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따라 이주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시기는 20대 전반이 가장 많았고, 10대에 이주한 연구참여자 E, F는 요르단 학교 제도에 따라 한국보다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사업을 선택하였지만, 연구참여자 I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라는 뜻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도, 영어를 배우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유학을 다녀온 것도 모두 아버지의 뜻이었다.

연구참여자 I, M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연구참여자 B, C, E, F, H, J는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고국에 가서 자국민과 결혼을 한 후에 이주하였으며, 연구참여자 A는 한국인하고 D의 부인은 러시아인이며 한국에서 만나서 결혼하였다. 연구참여자 K, L은 한국인하고 결혼한 후에 국적을 취득한 점은 같지만 K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고향에 가서 어렸을 때 사귀었지만 남편과 사별한 첫사랑하고 결혼을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고,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자신의 아이로 키우고 있다.

연구참여자 A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취업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한국에 유학을 왔고, 국적 취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다른 연구참여자와 다른 점이다. 연구참여자 D는 요리사로 이주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에 식당 운영을 병행하다가 추가로 창업하여 2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E는 요르단 국적이지만 아버지가 대학교 때 요르단으로 이주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서 열세 살 때까지 거주하다가 요르단으로 이주한 지 4년 만에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생애 가장 오랜 시간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가치관하고 정체성이 자신과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F는 할아버지가 팔레스타인에서 1948년에 요르단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는데, 자신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면서 또 요르단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주민사업가 13명 중에 연구참여자 A, B, C는 한족이며 고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래에 도전하는 삶의 방식으로 유학을 선택했고, 역사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여 양국 국민의 감정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D, E, F는 아랍인이며 요르단 공용어인 아랍어를 사용하고, 영어를 병행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주하기 전에 삼촌하고 아버지가 한국을 오고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 및 이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E는 아버지가 팔레스타인에서 요르단으로 이주해서 정착하였고, 연구참여자 F는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 때 할아버지가 팔레스타인에서 요르단으로 이주했으며 두 명 모두 디아스포라(Diaspora)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G, H, I는 우즈베크인이며, 할아버지가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키르기스스탄 지역으로 이주하여 아버지를 낳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키르기스스탄 공용어인 키르기스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러시아어로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G는 러시아를 오고 가면서 농산물 수출 사업을 한 경험이 있었고, 연구참여자 H는 고향에서 의류, 농기계 등을 수입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J, K, L은 파키스탄 공용어인 우르드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랜 영국 식민지 지배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어로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참여자 J, L은 편자브어<sup>21)</sup>를 사용하고 있고, K는 파슈토어<sup>22)</sup>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인종적 특징은 J는 인도 아리아계이고, L은 편자브인, K는 파슈툰족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M은 공용어인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종적 특징은 베트남인(킨(Kinh)족)이라고 하였다.

이주민사업가 13명 중에 연구참여자 A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졸업해서 취직했는데, 중국인이 일본에서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무렵, 한국 교수님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유학을 오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B, C는 일본하고 역사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D는 고향에서 요리사로 일하다가 한국의 식당에 일자리가 있다는 삼촌의 소개를 받고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E는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버지가 열여덟 살에 요르단으로 이주하

---

21) 위키백과(2020). 인도의 편자브 주와 파키스탄 편자브 주에서 사용되는 공용어.

22) 위키백과(2020).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사는 파슈툰족이 쓰는 언어.

였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을 거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하면서 연구참여자를 낳았고, 다시 요르단으로 이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F는 할아버지가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 때 요르단으로 이주하였고, 아버지는 요르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는 팔레스타인에 가 본적이 없지만 스스로를 팔레스타인 사람인 동시에 요르단 사람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아버지가 러시아하고 무역을 하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사업을 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 H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의 시장에서 이모하고 중국에서 의류, 농기계를 수입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I는 한국에서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한국어가 부족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8살이던 연구참여자를 한국에 데려오게 되면서 이주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J의 아버지는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트랙터,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만큼 기계, 수리, 운전에도 관심이 있었고, 재능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K는 할아버지가 파슈툰족으로 터키에서 살다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였으며 아버지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나셨고, 목재 관련 사업을 하셨다. 연구참여자는 목재 사업을 도와서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가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왔다가 머무르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L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고 한국에 이주근로자로 이주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M은 고등학교 때 취미가 요리하고 여행이라서 여행을 마음껏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대학교 관광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하다가 한국어 공부를 위해 유학을 준비하였으나, 시험에서 불합격하고 이주근로자로 올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A, B, C는 한국에 유학을 하기 위해 이주하였기 때문에 일반연수



(D-4)비자를 받고, 한국 생활을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 B, C는 이주 첫 날부터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식당 운영을 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법을 위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관계, 사기, 문제 해결 능력 등의 경험을 통해 사업 운영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A, B, C는 이주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연구참여자 D, E, F, G, H, I, J, K, L은 무슬림(Muslim)으로 이주 초기 음식 문화로 인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D는 요리사였기 때문에 식당에 찾아오는 한국인들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E는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음식은 아예 먹지 않았고, 채소만 먹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I는 음식을 먹지 못하자 초등학교 식당에서 조리하는 분들이 음식을 따로 만들어주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J는 이주 초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식당 음식 냄새도 힘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주 초기 몸무게 10kg이 빠졌다고 했는데, 주말에 기숙사 식당 아주머니들이 없으면 고향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K도 이주 초기 2년 동안 밥에 우유를 넣고, 설탕하고 소금을 넣어서 먹으면서 고생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G, H, K는 관광 비자로 이주한 후에 불법 체류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주 초기 노동 현장에서 욕설이나 차별의 표현 언어를 경험해야 했고, 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를 일부러 배우지 않거나,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는 노동을 하면서 현장 어휘를 익히면서 배웠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차별하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게 될까봐 일부러 배우지 않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H는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J, L, M은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제도로 이주하였는데, J는 회사에서 월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불법 체류를 경험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L은 산업연수생으로, 연구참여자 M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근로자로 이주하였는데, 두 연구참여자는 한 회사에서 4년 10개월을 일할 만큼 이주 초기 어려움에 대한 표현보다는 한국인 직원,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이주 전 고향에서 비빔밥 등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향에 있는 것처럼 편했다’고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이주하고 1년이 지나고 동업자(조선족 이모)하고 중식당을 인수해서 4년 동안 운영하였다. 동업자(조선족 이모)가 위장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명의였던 식당이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문제를 해결하고 식당 운영 흑자 매각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F는 작은아버지가 한국에 이주해서 정착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참여자보다 이주 초기 삼촌의 도움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I는 여덟 살에 한국에 이주하였고, 아버지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었다. 여덟 살에 아버지는 일하러 가서 없고, 집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친구나, 텔레비전을 통해 한국문화에 비교적 단시간에 익숙해졌다고 하였다. 인터넷 회원 가입이나, 말레이시아에 유학을 갔을 때도 ‘한국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한국인에 대한 정서적 동화나 애착이 높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J는 산업연수생으로 취업한 첫 번째 회사 사장님이 19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주근로자로 일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주 초기 차별 등에 노출된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고, 사장님의 생활 방식이나 절약에 대한 습관 등은 한국 생활,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도 지켜지고 있을 만큼 인생에 좋은 멘토(mentor)를 만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이주민사업가 13명의 연구참여자 A, B, C, D, E, F, G, H, I, J, K, L은 이주 전 고국에 물품을 수출을 수출하고 있거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 B, C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회사가 위치해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에 화장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등 각종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국제 물류를 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을 위해 1년 전부터 중국 법인을 설립했으며 기존 한국 법인하고 시스템을 연동해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 D, E, F, G, H, I, J, K, L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회사가 위치해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 전 고국, 또는 세계 각 나라에 한국의 중고차<sup>23)</sup>하고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

23) 브릿지경제, 2020.02.04., 인천 지난해 중고차 42만대 수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기록,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204010001206>,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한국의 주요 수출품 중에 자동차는 세계 각국에 꾸준히 수출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자동차와 비교하여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한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의 중고차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바이어(buyer)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 조금씩 들어서기 시작한 인천 중고차수출단지 2011년에 송도유원지가 폐장되면서 송도 인근 약 13만 평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약 350여 개 수출업체가 입주해 있고, 연간 25만여 대의 중고차를 리비아, 요르단, 도미니카공화국, 캄보디아, 예멘, 칠레, 캄보디아, 시리아, 이라크 등지로 수출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1조4000억 원이다. 인천 송도 중고차수출단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 바이어들의 접근성이 높다. 또한 중고차 매물이 풍부한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서해 유일 정온수역의 유지로 24시간 하역작업이 가능한 인천항이 근처에 있다는 장점도 있다.<sup>24)</sup> 그리고, 한국 자동차는 독일, 미국처럼 좌(左)핸들을 채택하고 있는데, 전 세계 242개국 가운데 166개국은 핸들(handle)이 왼쪽에 있다. 반면에 영국, 일본을 포함한 74개국은 우(右)핸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 가능한 국가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연구참여자 D, E, G, H, I, J, L은 사무실은 인천하고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바이어의 방문 등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나, 수출대기 중고차를 보관하기 위해서 송도 중고차수출단지를 이용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F, K는 수출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항 등에서 사무실하고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D, E, F는 요르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중동 지역, 아프리카에 중고차, 부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G, H, I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중고차, 부품을 주로 수출하지만 화장품, 생활용품도 수출하

---

2019년 전국 중고차 수출은 46만 9876대였고, 인천항에서만 중고차 41만9586대를 수출하였는데, 2012년 37만 3472대 이후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이다.

24) 국민일보, 2019.01.20., 연간 1조 4000억원 규모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합법화 대책 필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03901&code=61122012&cp=nv>

25) 오마이뉴스, 2017.09.13., ‘방향지시등’을 켜는데, 왜 ‘와이퍼’가 작동할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35956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35956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고 있다.

연구참여자 J, K, L은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의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아프리카에 중고차, 부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D, G, L, M은 이주 전 고국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D, G, L은 무슬림으로 할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M은 베트남 쌀국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D는 2개의 식당을, G는 7개의 식당을, M은 2호점을 5월에 개업할 예정이다.

연구참여자 A, D, J, K, L은 국적을 취득하였고, 연구참여자 A는 2017년, D, J는 2018년, K는 2008년, L은 2019년에 한국인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L을 제외한 A, B, C, D, E, F, G, H, I, J, L, M은 한국어하고 한국문화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 또는 비자 변경이나, 국적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L은 2008년에 귀화하였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에 시범 운영이 되었고, 2012년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비자 변경이나, 국적 취득을 위해 신청하지 않아도 되었다.

연구참여자 A, L은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며, 연구참여자 A는 2020년 2월에, 연구참여자 L은 2009년에 결혼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중국에 화장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등을 수출하고, 수입을 병행하면서 국제 물류 사업도 운영하였다. 그리고, 2019년부터 중국 인터넷 방송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 B, C는 화장품, 생활용품을 수출하다가 국제 물류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2019년부터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법인하고 시스템을 연동하기 시작하였고, 5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A, B, C, D, E, F, G, H, I, J, K, L은 이주 전 고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거나, 국제 물류 사업을 하는 등 고국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에 연구참여자 M은 수출이 아닌 쌀국수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베트남 직원들하고 일을 하는 등 고국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K는 한국인하고 결혼을 하였는데, 국적을 취득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 고향에 사업차 방문하여 한국에 이주하기 전 사귀었

던 여자 친구가 남편하고 사별하고 나서 연구참여자의 아이를 키우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첫사랑 여자 친구하고의 결혼이지만 법적으로는 국제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다.

연구참여자 D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요르단 국적이었고, 부인은 러시아 국적이었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법적으로는 부인하고 국제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한국 내 이주민사업가 13명 연구참여자들의 미래 삶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A, B, C는 한국 법인에서 하고 있던 국제 물류 사업을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한국 법인하고 연동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참여자 I도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중국어를 공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A, B, C, I는 중국 시장의 잠재적 성장에 무게를 두고 현지 진출을 통해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연구참여자 D, L은 시골에 집을 짓고 정착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귀향을 의미하지만 고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E, H, J, K는 자녀 교육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이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E는 한국식 자녀 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으며, 공무원이 되거나 요르단에 파견을 가는 등 국제적인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H는 첫째 딸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고, 아들들이 축구 선수가 될 때까지 끝까지 도와줄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J는 아들이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K도 두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첫째 아들이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을 크게 키우고 싶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D를 제외한 A, B, C, E, F, G, H, I, J, K, L, M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확장을 통한 경제적 성장을 희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A, B, C, I는 중국 진출 및 현지 법인화를 통해, E, J는 해외 지사 설립을 통해 사업 확장을 바

라고 있다. 연구참여자 F, G, H, K, L, M은 한국을 기반으로 사업체를 키워가고 싶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중국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계획하고 있지만 한국인하고 결혼하였고,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한국 사회 국민으로서의 의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 B, C, M은 한국에서의 사업이나 생활에 대해 법적, 영구적 정착이 아닌 잠정적 정착으로 결정한 듯하였다. 연구참여자 B, C는 중국에 부인하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안정적 삶을 위해 중국에서의 정착이 우선이고 한국을 왕복하는 미래 사업과 삶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M은 ‘영주권 신청’을 해서 베트남으로의 귀환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한국어를 잘하면 베트남에 돌아가서라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소속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구참여자 E, F는 10대의 나이에 입국하였고, 한국에 대한 정서적 동화 및 감정적 애착을 표현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E는 자녀들을 한국식 교육으로 키우고 싶다고 하였고, ‘고향’이라는 표현으로 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F는 자신이 태어난 고국에서의 삶에 대해 ‘또 다른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열 일곱 살 둘째 딸을 내년엔 결혼시키고 싶다는 계획은 이주 전 고국에서의 결혼 관습을 지키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I는 아버지가 2~3년 후에 자신에게 사업을 물려 줄 예정이라고 하였다. 여덟 살에 한국에 이주하여 한국문화에 익숙한 듯 보이지만 이주 전 사회에서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D, K, L은 한국 사회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다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L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사회통합의 대상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모든 이주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 활동을 통해 초국적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현상은 관찰되었지만 이들이 고국으로 영구 귀국하려고 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국 사회통합은 이주한 국가, 즉 한국 사회로의 통합이기도 하지만 고국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고국 사회에 대한 통합을 포함한 다중통합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V. 사회통합의 생애사적 경험과 의미

IV장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3명의 이주민사업가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삶의 경험, 한국으로 이주한 초기 삶의 경험, 현재 삶의 경험, 미래 삶의 계획을 생애시기별 이주시기별 사업의 경험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회통합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최현실, 2009). 이에 대해 Esser(2001)는 이주민이 수용국 사회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가지게 되면 수용국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나 사상에 맞게 표명하는 것을 동일시 또는 일체화(Identifikation)라고 하였다.

V장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사업가 13명의 사회통합 경험의 의미를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에서 제시하는 문화적응(Kulturation), 지위부여(Plazierung), 상호작용(Interaktion), 동일시 또는 일체화(Identifikation)의 네 가지 대분류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의미 단위는 전사록을 여러 차례 읽어 소주제인 의미 단위를 45개 도출하였고, 이를 다시 15개 주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제발견 범주는 4개였다.

주제는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대분류로 분석하기 위해 하위 범주인 중분류로 분류하였다. 다시 주제와 의미단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회통합의 생애사적 경험과 의미는 다음 <표 V-30>과 같다.

<표 V-30> 연구참여자별 사회통합의 의미

대분류	중분류	주제	의미 단위
문화적응	학문	배움의 기회	기회의 소중함
			젊음의 선택
			기회의 활용
	전공과 다른 학문	최선의 기로에 선 선택	
		상호문화 역량	
		지식 습득	



대분류	중분류	주제	의미 단위
	전문지식	전문지식 역량	다문화 역량 제고
			다문화감수성 함양
		전문지식 활용 문화적응	다양한 지식
			자기주도학습 성취의 희열
	인적자본	인적자본 활용	인적자본의 안정감
			인적자원 형성
다양성 존중			
지위부여	합법적 권리	합법적 권리	소통의 거버넌스 역할
			제도 개선과 개혁
			권리의 비용
	사회적 위치 · 매체	사회적 위치와 매체	의사소통의 관계성
			관계의 다원화
	사회적 수용	사회적인 수용	지속적 관계
			순응과 적응의 하모니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 자본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 자본	순응의 가치
다양한 연대			
다양성의 존중과 공존의 행복			
상호작용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	자발적 협력
			제도적 관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문화적 자본	모국문화는 문화적 자본	사회적 관계 맺기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문화적 공감능력
	사회적 자본 · 기회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기회	공감의 공유
			문화적 연대
			소통의 자본 극대화
동일시(일체화)	자아의식	다중정체성을 통한 일체화	지역연결망
			평등의 기회
			가치의 공감
	시민의식	한국 시민 되기	상호존중을 통한 공감
			제3의 정체성
			포용의 미래
			시민 참여
			가치의 내면화

대분류	중분류	주제	의미 단위
	소속감	한국 국적을 통한 소속감 찾기	지속적 일상의 익숙함
			한국사람 되기
			국가정체성

## 5.1. 문화적응

Esser(2001)는 사회통합모델에서 문화적응(Kulturation)은 자신에게 필요한 학문과 본인이 정한 전문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전문지식은 이주민이 수용국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며 필수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생활 속에서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 인지해야 할 법, 제도에 관한 지식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언어적 지식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은 이주한 직후부터 또는 어린 시절부터 수용국의 문화적응을 위해 사회적 요구나 필요에 따라 언어, 지식, 문화를 습득하다 보면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상황 혹은 문화적응이 비교적 쉽고 개인의 생활에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수용국 지역사회 주민, 주변 친구관계 형성은 문화적응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가능한 일찍 또는 어린 나이에 수용국 사회 구성원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용국 사회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용국 사회로의 소속감 결여는 문화적응을 방해할 수 있다.

### 5.1.1. 배움의 기회

Esser(2001)는 이주민이 수용국에 입국할 당시에 나이가 적을수록, 수용국의 언어습득을 포함한 인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통합인 적응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수용국 사회로의 소속감과 정서적 유대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스무살 전후 어린 나이에 이주하여 사업을 병행하면서 한국어를 포함한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사기, 배신을 당하면서 인생의 교훈을 얻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저는 어린 나이에 한국을 선택했어요. 한국에서 12년 동안 살았는데, 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가장 고마워요. 아마 중국에서 살았다면 공장에 다니면서 직원으로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유학 생활하고, 사업 운영을 병행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나이보다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생길 때, 주변에서 제일 신뢰하던 중국 사람이 배신했을 때가 두 번 있었는데, 세 명이 삼 년 전에 동업했을 때 그 친구.....(한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중략)  
(연구참여자 B, 2019.12.02.)

연구참여자 B는 한국에 유학생으로 이주하면서 젊음의 선택을 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쉬지 않았고,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중식당 운영을 시작하였다. 12년동안 유학과 사업 운영을 병행하면서 중국에서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소중한 기회였다.

연구참여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 큰 문제가 생기면 큰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기회를 활용하여 성숙해질 수 있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힘든 것은 신뢰를 배신당했을 때라고 하였다.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 솔직히 좋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좋아요. 음식, 문화, 사람 모든 것이 다 편해요. 한국에서 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

있어요. 한국은 치안도 좋고, 미국 등 서방보다 안전해요. 한국에 온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혼자 살다가 아플 때는 정말 힘들어요. 학교 다닐 때, 오래 전이었어요. 쉬는 날이었고, 학교도 공강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내년 봄이 되어야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주 슬퍼요.” (연구참여자 C, 2019.12.27.)

연구참여자 C는 스무 살에 이주한 한국은 치안이 좋고, 안전해서 좋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모든 것이 편하다. 음식이나, 문화 등 모든 것은 익숙해서 좋고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좋다고 하였다. 유학생이었을 때 몸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는 슬픈 기억은 지금도 슬프다고 하였다. 이주민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 도입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한국어 습득과 인적 자산을 확보할 수 있고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살 때 첫째 필요한 것은 한국어예요. 부인과 아이하고 병원에 가거나 할 때 한국어를 잘해야 하잖아요. 결혼하니까 아이들 관련한 것이 제일 필요해요. 시리아 친구(난민)한테서 새벽 2~3시에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통역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통역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 시리아 사람은 부인이 레바논 사람이에요. 아이가 계속 아프고 하니까 결국 레바논으로 아이를 보냈어요.” (연구참여자 F, 2019.07.08.)

연구참여자 F는 2009년 이주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라고 하였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병원에 갈 때 아픈 증상을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하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였다. 폐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리아 친구(난민)가 있는데, 최소한의 업무용 대화 이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새벽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통역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아랍어 통역을 해 준 적이 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전문지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인데, 사회적인 포용 접근으로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조세현, 김우선, 2013)

“한국어는 벽돌을 ‘하나, 둘’ 하면서 배웠어요. 일하면서 필요한 말만 배웠어요. 아파트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배웠고, 한국에 온 지 11년이 지나서

2013년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처음 배웠어요. 한국어를 처음부터 배웠으면 나는 지금까지 한국에 못 있었을 거예요. 스물 세 살은 젊기 때문에 화를 내고, 싸우고 고향에 갔을 거예요. 그 때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G, 2019.01.11.)

연구참여자 G는 이주 초기에 한국어를 일부러 배우지 않았는데,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욕설이나 차별하는 말을 알아듣게 되면 상처를 입는 것이 두려웠다. 그렇게 되면 한국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문화적응을 위한 학문과 지식 습득을 최소한의 기회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한국에 더 오랫동안 거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위 획득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가 중학교 때 친할머니가 가끔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일을 시키시면 할머니가 공부해야 한다고 못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는 대학에 갔을 것 같아요. 언젠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I, 2019.04.16.)

연구참여자 I는 이주 초기에 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일을 하라고 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친할머니가 한국에 오면 아버지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하였는데,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대학에 갔을 거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어린 시절 이주했기 때문에 문화적 자본과 인적자본 형성이 풍부하고 안정될 수 있었지만 학문과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권리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배움의 기회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한국어가 부족해서 세무서나 출입국·외국인청에 갈 때 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못해서 수수료를 주고 한국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그런데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나서 한국어를 많이 공부했고, 한국문화나 여러 가지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세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직접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요. 나도 내가 많이 신기하고, 기분 좋아요.” (연구참여자 J, 2017.10.30.)

연구참여자 J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어하고 한국문화에 대해 공부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세무서를 이용하기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서 신기하고 기분 좋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1999년에 이주했는데, 이주 초기에 학문이나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는 이주하고 13년이 지난 2013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언어, 지식, 문화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언어하고 지식 습득에 대해 만족하고, 문화 등 전문지식의 활용을 하게 되면서 생활 속에서 제도에 대한 지식의 활용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유학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초기 문화적응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포함한 전문지식 습득이 용이하였고, 양질의 인적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광 목적으로 이주하여 불법 체류 노동 현장에서의 한국어 등 전문지식은 배움의 기회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버지에 의해 교육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주 초기 문화적응은 배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는 매체의 다양성과 제도적 자본의 활용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사회적 매체 또는 제도적 자본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5.1.2. 전공과 다른 학문

Esser(2001)는 수용국에 이주한 이주민의 높은 교육 수준은 문화적응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장기 체류로 인한 문화적응의 긍정적인 영향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자신의 모국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간직하는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이주하면서 지식 습득을 위해 노력하였고,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업해서 근무하다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하였고, 이주 초기 학문 습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처음에 E-7비자를 받았을 때, OO사에서 회사를 처음 옮기고, 출입국·외국인청에 비자를 받으러 갔어요. 제가 국문과 졸업했는데,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전공하고 직장하고 안 맞는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무슨 회사를 다녀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방송국, 신문사, 통역, 번역 이런 직종들은 자격증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연구참여자 A, 2018.08.27.)

“한국은 외국에 있는 것 같지 않고 고향에 있는 것처럼 정말 편했어요. 어느 곳에 가도 좋았어요. 살수록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외국이라서 조금 그랬는데, 한국어도 점점 배워서 실력이 좋아지게 되고 한국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문화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살수록 좋아졌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8.27.)

연구참여자 A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유학(D-2) 비자로 변경했고,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업하면서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했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어를 배워서 학문과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참여자는 처음에 한국어도 한국문화도 어려웠지만 이주 기간이 길어지고, 학문을 하게 될수록 실력이 좋아지고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학문은 문화적응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저는 처음에 한국어를 배울 때 다 반말만 배웠어요. 왜냐하면 중고차 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길에서 배웠어요. 나쁜 말을 많이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하고 완전 달라요. 그런데,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면서 높임말을



다시 공부하고, 잘못 알고 있는 한국문화도 다시 바꾸고 배웠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사업가들이 사업할 때 필요한 정보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이어나 수출업체 사람들,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정보를 주고 받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D, 2019.03.29.)

연구참여자 D는 2004년 이주 초기에 한국어를 배울 때 대부분 일을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반말을 쓰는 환경에서 배웠다. 그래서 높임말을 써야 하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하면서 높임말도 공부하고, 한국문화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이주 초기에 문화적응에 필요한 학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전문 지식 습득에 대한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이로 인해 이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어의 높임말하고 예절 등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Chen & Starosta, 1999). 이처럼 이주민사업가들은 학문을 통한 상호문화 소통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Erll & Gymnich, 2010).

### 5.1.3. 전문지식 역량

이주민의 전문지식 획득이 지연되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가 어렵고 다양한 화제나 사건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용국 사회에서 문화적인 혹은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느끼려면 전문지식 역량은 무엇보다 필요하다(Esser, 2001).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감수성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적응과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

“사람은 원래 시간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매일 힘든 일

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매일 일만 생각하니까요. 지금도 일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일 끝나고 집에 가면 1시간은 하루를 정리하고, 1시간은 내일 계획을 세워야 해요. 새벽 3~4시에 집에 들어가도 꼭 2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요. 꼭 그렇게 해요. 식당하는 4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고, 그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2018.07.12.)

연구참여자 B는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면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퇴근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노력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나이가 어리지만 사업에 대한 애착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가로서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나쁜 일하면 부끄러워하고, 벌을 받는 정의가 있잖아요. 한국은 정의가 있는 나라예요. 한국의 학교하고 사회에서는 좋은 일을 해야 하고,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고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좋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내 나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우리, 우리, 우리 나라예요. 우리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연구참여자 D, 2019.11.01.)

연구참여자 D는 한국은 열심히 일하면 기회가 있다고 하였다.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정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학교나 사회에서 정의를 가르치는 교육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에 적극적인 다문화적 감수성을 의미 있게 표현하고 있다.

“김치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냄새가 아주 안 좋아서 어떻게 먹는지 이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김치를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조용하고 침착해요. 1년에 한 번씩 요르단에 갈 때마다 운전하면 경적 소리가 시끄럽고, 머리 아프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요. 한국 문화에 내가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19살 때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한 것 같아요. 지금은 요르단보다 한국이 더 편해요. 한국에서는 매일 하고 싶은 일을 하니 행복하고 좋아요.” (연구참여자 F, 2020.01.29.)

연구참여자 F는 어린 나이에 이주했기 때문에 한국문화를 빨리 수용한 것 같다고 하였다. 김치 냄새 때문에 어떻게 먹는지 이상했는데, 이제는 김치를 잘 먹는다고 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조용하고 침착해서 운전할 때 경적을 잘 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요르단에 갈 때면 경적 소리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문화에 빠르게 적응해서 편하고 좋다고 표현할 만큼 다문화감수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지식의 역량이나 인적자본을 활용한 문화적응에 성공해서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식당을 확장하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정말 많은 새로운 정보를 배웠어요. 사업가들은 새로운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M, 2019.12.12.)

연구참여자 M은 정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마케팅(Marketing)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업가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어느 나라에 가도 문화 차이는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문화 차이를 모를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차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문화 차이를 모르고, 고국하고 문화 차이를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전문지식 역량을 위해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고 있었다.

#### 5.1.4. 전문지식 활용 문화적응

연구참여자들은 수용국인 한국의 문화와 이주 전 고국의 문화 차이를 전문지식을 통해 개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한국문화에 유연한 적응 능력을 보이고 있었다.

“제 고향은 길림성 대련 위에 있는 장춘이에요. 하얼빈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고향에는 조선족이 많아요. 길림성 안 연변 자치구에 조선족이 많아서 냉면, 비빔밥도 많이 보고 먹어봤어요. 그래서 한국문화가 낯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와서 매일 비빔밥을 아주 많이 먹었어요. 정말 편해요. 중국에 가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게 더 편해요.” (연구참여자 A, 2017.06.25.)

연구참여자 A는 이주 전 고향에서는 중국동포(조선족)가 많아서 ‘비빔밥’ 등 한국 음식을 자주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이주 전에 반복적으로 경험한 한국문화의 긍정적인 경험이 이주 후에 빠른 문화적응 수용으로 이어졌다. 한국문화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의 수용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요르단 같은 경우는 싸울 때 무조건 때리는데, 한국에서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이 욕만 하고 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자동차, 부품 관련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거칠어요. 외국에 자주 다니고, 외국 문화를 알면 괜찮은데, 자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이런 경로사상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아랍보다 좋은 것 같고,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F, 2019.07.08.)

연구참여자 F는 요르단 바이어(buyer)가 한국에 오면 업체나 폐차장을 방문에 동행해서 물품 매입을 하기도 한다. 요르단은 다툼이 생기면 무조건 사람을 때리는데, 한국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연구참여자는 잘 알고 있었다. 폐차장 업주가 바이어(buyer)에게 욕설을 해서 요르단에서처럼 업주

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폐차장 같은 곳에 가면 욕설이나 차별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하였다. 물론 마트나 호텔 같은 곳에 가면 그런 경우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의 동생이 폐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해할 수 있다. 교육 수준이 낮거나, 외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한국은 경로사상이 있어서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말대꾸를 하지 않고, 공손해야 한다. 하지만 아랍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도 이상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면 똑같이 대응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연구참여자가 적극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해 학습하였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었던 성취의 희열이라는 아이러니일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2009년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한국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어른이 욕을 해도 참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관계성과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다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고 있었다(김영순, 2010).

“우리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린이집부터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 사람이 살면서 꼭 해야 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요. 그래서 한국인은 90%가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는 2010년에 한국에 처음 오셨는데, 한국이 안전하고, 좋다고 하시고, 저보고 한국 국적을 받아서 살라고 하셨어요. 밤 12시에 밖에 다녀도 안전하고, 학교도 안전하고, 다 평화로우니까요.” (연구참여자 G, 2019.01.11.)

연구참여자 G는 한국에서 자동차, 생활용품, 가구 목재 등을 수출하고 있다. 고향에서 수출된 물품을 받은 형은 수입된 가구 목재, 생활용품을 재가공해서 판매하고, 동생은 자동차하고 부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삼형제가 한국하고 고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한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한국은 어린이집부터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것과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인사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안정이 유지된다고 하였다. 2010년에 한국을 방

문한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신청하고 정착하라고 하는 이유도 한국 사회가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사장님이 이주노동자들은 첫째 음식을 잘 먹어야 한다고 했고, 둘째 옷을 자주 잘 세탁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회사에 오기 전에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지저분했다고 말했어요. 사장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샤워하기 전에 옷하고, 팬티를 빨아서 널고, 샤워하고,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놓고 자면 아침에 옷을 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매일 하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파키스탄에 가서 현대, SK같은 큰 회사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나라에 도움이 되고, 직원 채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J, 2018.12.25.)

연구참여자 J는 한국에 와서 처음 취업한 회사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주일씩 교대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음식이 맞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의 회사 사장님은 19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주노동자로 3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장님의 조언을 10여 년이 지금까지 수용하고 있으며 생활에 큰 가르침으로 기억하면서 적응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태국 친구들은 태국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면, 베트남 친구들은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서 먹기도 했어요. 다른 나라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도 해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나라 음식이라서 맛도 이상했는데, 자꾸 먹어보니까, 맛있었어요. 필리핀 음식도 괜찮았어요. 다른 나라 친구들이 베트남 음식도 맛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음식 냄새 때문에 힘들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맛이 있었어요. 러시아 친구들도 들어왔었는데, 음식 향 때문에 먹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같이 운동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먹기도 하고 금방 친해졌어요” (연구참여자 M, 2019.08.27.)

연구참여자 M의 회사에는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근로자들이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 음식 냄새나, 문화 차이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다 같이 모여서 규칙을 만들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하고 수용했던 문화 차이는 전문지식을 활용한 문화적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주민사업가들은 이주 초기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활용한 문화를 학습하기도 하였으며 구성원 상호 간에 요구하여 수용하면서 문화적응을 하였다.

### 5.1.5. 인적자본 활용

이주민은 수용국 사회에서 포괄적이고 다양한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는데, 실제 이주근로자들은 그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Esser, 2001). 인적자본 형성에 적극적인 관계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수용국 사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순 외(2019)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융합, 사회적 응집의 층위를 포괄하여 다양한 개인을 수용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에서 ‘시간 있을 때 밥 먹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업하면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시간 있을 때 밥 먹자’고 이야기를 해요. 밥을 먹은 계산은 내가 해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아주 친절하게 잘 해 줘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한테도 외국 사람한테도 시간 있을 때 밥을 먹자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나서 친구도 많아졌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연구참여자 D, 2019.03.29.)

연구참여자 D는 이주 초기에 학문과 전문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사업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간 있을 때 밥 먹자’는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전문지식의 활용을 통해 사회의 인적 자본을 활용하고 형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안정적인 인적 자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위의 획득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장님 회사 직원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서울에서 나는 아기처럼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하철 타고, 버스 몇 번 타야 하는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었어요. 2003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외국인도 많이 없었고, 생활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는데, 할랄 음식도 직접 만들어 주시고, 양고기도 구해 주시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배려해 주고, 많이 도와주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연구참여자 E, 2019.04.29.)

연구참여자 E는 무슬림(Muslim)이었기 때문에 할랄 음식이 아니면 먹지 못하였다. 2003년 이주 초기에 아버지 회사의 거래처 사장님은 할랄 음식도 직접 만들어주고, 양고기도 구해주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어린 나이에 홀로 이주해서 한국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음식에 대한 문제부터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사장님이나 직원이 연구참여자의 문화나, 종교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경험이었다.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한국 사회 구성원의 배려는 다문화 사회의 문화 다양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2001년에 처음 밖에 나와서 친구들과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몰라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한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하면서 책을 보면서 공부했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할 때 한국의 법 제도나, 문화, 생활 정보에 대해 공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보건소, 정부 기관에서 건강 정보 문자를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할 때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상담할 곳이 많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H, 2019.11.11.)

연구참여자 H는 2013년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할 때 법 제도, 생활 정보, 문화 등을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가족하고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00년 이주 초기 전문지식 습득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고 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한 학문과 전문지식의 습득에 만족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 한국 내에서 다양한 인적 자본 형성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한 명은 신도시에 살고, 한 명은 00동에 살아요.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노래방도 가고, PC방에도 놀러 가요. 제 친구는 매일 저에게 연락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 있어?’, ‘오늘 시간 있어?’ 매일 만나자고 해요. 우리는 칼국수를 좋아해서 00중학교 옆에 있는 칼국수 집에 자주 가요. 손칼국수라는 집인데, 왕만두, 떡국을 파는 곳이에요. 한국 음식 중에 참치찌개를 가장 좋아해요. 참치찌개라고 하면 고기가 없고, 김치참치찌개라고 하면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한국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긍정적이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I, 2019.04.16.)

연구참여자 I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군대에 갔다고 하였다. 매일 연락하고 만나서 노래방도 가고, PC방에도 갔다고 하였다. 한국 음식 중에 칼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자주 먹으러 갔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 친구들이 있어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이 된 것 같다고 하였다. 어렸을 때 이주한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적 자본으로 형성된 친구들과 지금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고 있었다.

“중고차 수출 사업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반 회사처럼 일을 하지 않아요. 지방에도 가야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월급으로 정해진 금액을 주면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하루에 차를 몇 대 사는지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해요. 우리 회사는 팀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팀원 중에 한 명이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팀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연구참여자 K, 2019.01.21.)

연구참여자 K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아프카니스탄에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경제 상황이 유동적이다.

연구참여자가 하고 있는 중고차 수출 사업은 다국적으로 팀을 구성해야 하고, 근무 시간,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이 수수료를 주는 등 조금 다르다고 한다. 또한 회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어서 팀을 조직하거나 인적 자본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식당 직원은 모두 베트남 친구들인데, 6명이에요. 직원 고용할 때는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직원 고용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원하고, 면접 보고 채용해요. 유학생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결혼이민자도 있어요. 제가 식당 개업하고, 1년 있다가 OO 씨가 회사 그만두고 우리 식당에 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주말에 아르바이트 직원도 쓰고 했어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식당 개업하고, 처음에는 5개월 정도 홀에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한국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썼어요.”

(연구참여자 M, 2020.01.15.)

연구참여자 M은 요리사나 직원들이 고향에 가거나, 퇴사할 때 식당을 생각해서 미리 의사를 전달해주기를 바라지만 직원들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근무환경 등을 생각하고 신경 써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 한국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적이 있었는데, 요리를 해 본 적이 없고, 주방에서 일을 해 본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리 경험이 있고, 주방 경험이 있는 베트남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사업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인적 자본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초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제 활동이다보니, 어려움도 보이고 있었다. 식당 등 특수한 인적자원 활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2. 지위부여

Esser(2001)는 사회통합모델에서 지위부여(Plazierung)는 이주민이 문화적응 단계를 통해 언어, 지식, 문화를 습득하게 되면 수용국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용국 사회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지위가 가능하다는 것은 합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권력이나 법의 행사권 등이 있으며 시민권이나 투표권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주민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수용국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가 더 원활하게 성립되고 미래 생활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문화적응 단계와 지위부여는 상호 간에 조건적 관계를 구성하며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주민은 지위를 획득한 이후에도 사회적 위치의 매체가 될 수 있는 전문지식, 예를 들면 수용국의 언어나 문화 프로그램, 학교 교육 등에 참여하여 노력을 할 수 있다. 이 때 수용국은 이주민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다양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더 확실한 사회적 위치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 상승은 단지 경제적 측면과 인적 자원 측면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제도적 자본, 예를 들면 법률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정치적 자본, 즉 개인의 관심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 5.2.1. 합법적 권리

이주민이 수용국 사회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사회적 위치의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며 사회 시스템에 일정 부분 흡수되어지는 것을 뜻한다 (Esser, 2001).

연구참여자들은 체류 연장을 위해 방문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의사소통이나 절차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해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권리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물질적 심리적 손실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회사를 만든 다음에 출입국에 비자 연장하러 갈 때마다 서류는 늘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요. 그런데 한 번만이라도 ‘잘 됐어요. 몇 일, 몇 일에 오세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어이없게도 출입국에 비자 연장하러 갔는데, 저를 보고 내년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어요. 서류가 너무 완벽해서 따질 게 없으니까, ‘내년에 뭐 할 거예요?’ ‘네?’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년에 또 사업할 거예요.’ 그랬더니, ‘내년 사업계획서 주세요.’ 종이 한 장 던지면서 ‘지금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1월에 뭐 하고, 2월에 뭐 하고.....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쓰고 제출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8.27.)

연구참여자 A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 방문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은 안정적 정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추가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였다. 한 번은 서류에 대한 추가 제출 요구는 없었지만 다음 해에 진행 예정인 사업의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연구참여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에서 부여된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이 체류기간의 연장허가(제25조)를 신청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통의 역할에 대해 피력하였다.

“작년에 어떤 친구가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사업 방식이나, 업무 기밀을 가지고 퇴사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생각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요. 가고 싶은 사람은 꼭 가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아요. 우리 회사는 K하고 내가 없으면 회사 운영을 못 하는 시스템이에요. 한 친구는 3~4개월 정도 일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몰래 차려놓고, 우리 사무실에도 다니다가 시스템을 배우고 그만두었어요. 사업을 하면 인간관계에서 실망하는 것도 있고,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그 친구와 저희는 선택이 달라서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B, 2019.12.02.)

연구참여자 B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가족처럼 존중하고 신뢰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2년 전에 입사한 한 직원은 6개월 동안 일하면서 국제물류 운영 방식하고, 업무 기밀 부분을 습득한 뒤에 퇴사했다. 그리고, 다른 직원 한 명은 2년 정도 같이 일을 한 중국인 유학생이었는데, 3~4개월 정도 근무하고 자신의 회사를 창업하였다. 국제물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사했던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사업을 하면서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고 하였는데, 사업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꺾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개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은 배신이 될 수 있고,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견고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처음에는 출입국 가서 비자를 연장했지만, 얼마 후부터 안 갔어요. 저는 사장이에요. 예전에 출입국 갈 때 회사 직원하고 같이 갔는데 출입국 공무원이 저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대했어요. 회사 한국인 직원이 옆에 있었으니까, 열 받았고, 화가 났어요. 그때부터 코트라에 갔어요. 출입국에 가면 공무원이 ‘6개월 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2명인데, 그 직원은 1년 받아요. 그런데 나는 사장인데 6개월 받아요?’ 또 다른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몇 번 다시 오라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D, 2018.09.30.)

연구참여자 D는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할 때 회사 직원하고 같이 가곤 했다. 그런데 직원 앞에서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은 사업을

하는 연구참여자를 존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1년을 받고, 자신은 6개월을 준다고 말을 하면 공무원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몇 번의 서류 제출을 하고 연장을 받은 후부터 비자를 연장할 때 코트라(KOTRA)로 간다고 하였다. 이주 민사업가는 경제활동을 통한 노하우 및 전문지식을 한국 사회에 제공하고 있지만 합법적 권리 행사에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출입국에 비자를 한 번 연장하러 갈 때마다 몇 번씩 가야 해요.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정해져 있으니까,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몇 번씩 2~3번 정도 계속 다른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세금도 잘 내는데, 6개월 연장해주면 비자 없이 한국에 오는 외국인 하고 뭐가 달라요. 사업도 오래 하고 세금도 잘 내는데, 6개월 연장해주면 다음에 또 연장하러 가면 수수료도 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 나요.” (연구참여자 F, 2018.10.17.)

“사업을 크게 하다가 갑자기 비자 연장이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비자 연장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외국인이라서 항상 불안하고, 다음 달에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받아요. 또 얼마나 연장 받을까..... 국적을 받아서 한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F, 2019.07.08.)

연구참여자 F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비자 연장을 하러 가면 필요한 서류를 여러 번에 걸쳐 요구해서 2~3회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하였다.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세금 납부도 잘 하고 있는데, 기간 연장에 고려나 반영이 없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지만 비자 연장이 안 되면 강제로 출국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기한이 다가오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체류 연장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의 정도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감히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비자(VISA) 연장에 대한 어려움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해 호소하면서 지위부여의 합법적 권리 행사에 대해



어려움과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

### 5.2.2. 사회적 위치와 매체

Esser(2004)는 이주민이 수용국에서 다양한 매체와 관계를 통해 사회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수용국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저도 화장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달에 2천만 원을 벌었어요. 3개월 했는데, 매출이 1억 원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화장품만 하다가 중국에 있는 형님한테서 물류가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류 사업을 시작했어요. 2014년 10월~12월쯤 정도에는 물류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하루에 천만 원을 벌기도 했어요.”

“물류는 위험요소가 많아요. 운송할 때 분실, 파손, 폐기해야 하는 물건 등 위험 요소가 많아서 이번 달에 1억 원 정도 벌어도 다음 달에 문제가 생겨서 5억 원 정도 배상을 해 주게 되면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돈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생길 때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바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B, 2019.08.29.)

연구참여자 B는 대학을 졸업하고, 식당도 흑자 매각하고 중국에 돌아가서 6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화장품 수출하는 친구 사무실에 방문해서 화장품 매출을 보고 궁금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나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연구참여자는 화장품 수출을 하다가 물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물류는 운송 중일 때 분실, 파손, 또는 폐기해야 하는 등 위험요소가 많아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배상이 결정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업가로서 현실에 대한 직시 및 문제 해결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관계

를 가지고 있었다.

“수원 사장님 회사에서 차를 요르단으로 수출했고, 직원이 2년 동안 요르단 지사에 파견되었을 때 우리 가족하고, 저도 요르단에 가서 도와주었어요. 한국하고 법 제도가 다르고, 행정 절차가 달라서 한국인이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일이 잘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고, 아버지도 보람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저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연구참여자 E, 2018.07.27.)

“차별은 어느 나라에 가도 있어요. 요르단에 가도, 한국에 있어도 차별은 있어요. 한국에서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네트워크도 많고, 요르단보다 직업적인 환경이 저한테 맞아요. 차별이라고 받아들이면 차별일 수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차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업은 거래를 하는 거라서 나도 상대방이 필요하고, 상대방도 나를 필요로 하니까,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 2019.04.29.)

연구참여자 E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어느 나라에 가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요르단이나 한국 중 어느 나라에 있어도 차별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오히려 요르단보다 한국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으며 요르단보다 직업적인 환경 적응이 용이하고, 자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1년 전에 편의점 앞에서 한국인 아저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는데, 차별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차별을 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비용으로 이해하면서 차이로 수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많은 도움을 받았던 수원의 수출 회사에서 요르단에 처음으로 지사를 두게 되고, 마침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직원이 2년 동안 파견이 된 적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요르단에 가서 현지 지사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나 법 제도 방면에서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가족 모두 행복하다고 하였으며 아버지도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도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운 마음을 다시 전해줄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다원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원만한 의사

소통의 관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우리를 잘 가르쳐주고,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아, 그때 선생님들이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셨구나’하고 알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진짜 고마운 분들이예요.” (연구참여자 F, 2019.07.08.)

연구참여자 F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참여하였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만났던 선생님들과의 지속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사회적 위치의 수용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였다.

“옆 식당하고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식당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그 모임에 꼭 참석해서 어떤 것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을 참고해서 잘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인사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려운 점을 먼저 생각하면 시작을 못 할 것 같아요. 장사를 하고 싶으면 먼저 시작하고, 어려운 점이 생기면 바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 상인들하고 문제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하나씩 해결하니까 이제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M, 2020.01.15.)

연구참여자 M은 한 달에 한 번 주변에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과의 모임에 꼭 참석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모임에 참석해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업종의 상인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사도 잘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하는 등 주변 식당들과의 관계에서 다원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과의 의사소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관계 또한 다원화하였으며 관계성도 좋았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위치의 매체로 작용하여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 5.2.3. 사회적인 수용

수용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수용은 구성원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생기기도 하고, 이주민의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구성원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Esser, 2001).

“중국은 자국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외국 제품은 막아버려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정품이고 좋은 것인데, 잡아버리고, 막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도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중국 국내 기업들은 짝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만약 짝퉁 제품을 생산, 판매 못 하게 단속하게 되면 짝퉁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단속하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A, 2018.08.27.)

연구참여자 A는 중국의 자국 산업이나 기업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일부 기업의 비양심적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연구참여자는 중국 내에서 외국 제품 수요가 높아지면 일부 기업에서 모조품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 고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제가 성격이 약간 급하고 직선적이라서 누가 잘못을 하든지 바로 이야기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원인을 이해해야 잇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실수하지 않거든요. 동업을 할 때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상대방이 제 마음이나 생각을 잘 알 수 있게 성격을 조금 바꿔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때, 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알 수 있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건 위험해요. K하고는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계속 친구였어요. K는 실무 능력이 강하고, 사무실 관리를 잘하는데, 저는 전체적인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실무능력이 부족해도 우리 둘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2019.12.02.)

연구참여자 B는 동업을 하고 있는 K하고 한국에서 대학 때 만나서 12년 동

안 친구였다가 동업을 하는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K는 실무 능력이 뛰어난 덕분에 두 사람의 운영 방식은 잘 맞는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또한 연구참여자의 성격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하고 직선적인 성격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강하다.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환경의 변화에 순응해야 하고, 한국이나 상대방의 문화에 잘 적응해야 최상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다. 상대를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순응과 적응의 노력이야말로 최상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저는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11년 동안 수출 실적도 많아요. 처음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한국 경제에 오랫동안 기여를 많이 했잖아요. 한국에서 수출을 많이 했거나, 기여를 많이 한 사업가가 국적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혜택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는 1년에 40억 원 정도 수출해요. 한국의 경제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한국인 직원이 세 명이에요. 한국인 직원들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가족들이 행복하잖아요. 우리도 한국에 도움을 주고, 한국도 우리를 도와주니까, 정말 좋아요.”

(연구참여자 D, 2019.03.29.)

연구참여자 D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수출을 하면서 한국 경제에 기여했다고 하였다. 한국 사회에 경제적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여를 한 사업가들이 영주자격이나, 국적 신청을 할 때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인 직원을 세 명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월급을 받고 가족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수출이나 사업 실적이 좋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가들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연대를 통해 순응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사회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한국에서 회사를 창업했을 때는 직원 상여금, 휴가 같은 한국의 직장 문화나 시스템을 잘 몰랐고, 휴일 근무 수당 같은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 직장 문화나 법에 대해 공부했어요. 회사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업무 분담을 잘하고 조직을 잘 나누고, 잘 연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총무, 회계, 경리 업무, 외부 업무를 하는 팀으로 조직을 잘 만들어서 문제가 없어요. 사업을 하는 것은 직원하고 회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늘 생각을 많이 해야 해요.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지만 항상 생각해야 하고 책임감이 무거워요.” (연구참여자 E, 2020.01.06.)

연구참여자 E는 회사를 창업했을 때, 한국 직장 시스템, 휴가, 수당, 문화 등을 몰랐기 때문에 관련 법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회사에는 참여자의 친동생하고, 한국인 직원 두 명, 시리아 직원 두 명,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업무 조직 분담이 잘 되어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거의 없다. 회식을 할 때에도 각 나라 문화를 배려하여 공정하게 한 번씩 해당 식당을 찾아서 이용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E는 회사 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조직 구성이나, 팀별 책임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직원들의 개인적 정체성과 회사의 소속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순응과 적응을 하는 직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경영을 하고 있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가진 우리 우즈베키스탄 민족 중에 첫 번째 국적을 받은 사람이 00 씨예요. 그래서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해요.” (연구참여자 I, 2018.08.01.)

연구참여자 I의 할아버지는 태어나자마자,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키르기스스탄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우즈베키스탄 민족인 할머니와 결혼해서 아버지를 낳았다. 연구참여자 E는 고국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민족하고 우즈베키스탄 민족이 있는데, 공무원이나 고위직은 대부분 키르기스스탄 민족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민족이라서 두 민족 사람들은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다. 큰돈을 버는 직업을 가진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이 많은 반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대체로 지위가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해도 적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한다고 하면 아주 인기가 많다고 했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자신이 확보한 사회적 지위에서 합법적 권리를 통해 사회적 위치까지 원만한 매체를 통해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인 수용도 한국인과의 적응과 순응의 연대를 통하여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 5.2.4. 경제적·제도적·정치적 자본

초국적 이주로 인해 수용국에서 이주민의 경제적·제도적·정치적 자본 역시 다양성을 요구받고 있다. 법률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다양한 제도적 자본 모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체류 연장을 위해 방문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합법적 권리 부여에 대한 제도적 자본에 대해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고국의 인적 자본을 통한 사기, 협박 등 제도적 자본을 통한 보호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 '내가 범죄자야.....당신이 경찰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인데, 예의가(한숨)..... 예의 같은 것을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중략) 그런데 솔직히 이해해요. 하루 종일 말도 못하는 외국인들 상대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실수하고 서류같은 것도 잘 못하고..... 그런데 공무원은 같은 일만 하잖아요. 솔직히 공무원은 봉사하는 착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아휴, 싫어요. 출입국만 생각하면..... 제가 아는 남자 동생들도 비자 연장하는 것 생각만 하면 '내가 갱년기가 온 것 같다'고 해요.”

(연구참여자 A, 2018.08.27.)

“한국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비자 연장할 때 몇 번 따라가 보세요. 중국 사람을 따라가 보시고, 파키스탄 사람을 따라가 보시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미국 사람 따라가 보세요. 완전히...미국 사람은 비자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걸요..... 없어지는 것 같던데..... 한 번에 많이 주는 것 같던데... 미국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범죄자가 있고, 중국도 좋은 사람도 있는데, 출입국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는 것은 힘들어요. 비자는 정말 힘들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8.27.)

연구참여자 A는 국적을 받기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가서 비자 연장을 받을 때 공무원의 업무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 자신이 범죄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였는데, 공무원은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국적에 따라 응대 태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문화적응을 통해 사회적 위치를 부여받는 절차 중에 행정기관



을 이용하는 경험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국적별 비자 연장 절차를 설명하면서 법률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이주민의 합법적 권리 부여에 대해 힘들다고 하였다.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예의를 지키면서 하니깐 괜찮아요. (중략) 그런데 반대로 중국 사람들에게 많이 사기를 당했어요.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적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인데, 아무런 보수없이 통역을 해 줬는데, 저와 상관없이 서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조선족 남자 3명을 시켜서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문 앞에서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후에 그 사람들이 갔어요. 한국이 법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힘들지만 무섭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A, 2019.07.20.)

연구참여자는 한국인에게 무시를 당한 경험도 있지만 같은 중국인에게 사기를 경험하거나, 협박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중국동포(조선족) 사업가의 사업활동에 보수없이 통역을 해 주었는데, 연구참여자과 상관없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자 연구참여자의 통역을 문제를 삼으면서 욕설도 하고, 협박도 했다.

연구참여자는 사업을 하는 여성이라서 공개되어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다른 경우는 한국인 남편하고 결혼한 중국동포(조선족) 부인의 통역을 도와주었는데,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고 통역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고 전화로 협박을 했다. 여성 사업가이다 보니, 법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사업 활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의 치안이나 법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경제 활동, 언어로 인한 문제, 법 등 영역에서 이주민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흠소핑하는 친구였어요. 저희 매출을 보고 투자 신청을 하고 홍보하고 동업하자고 해서 6개월 정도 동업을 했어요. 도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것이었고, 처음에는 10%, 30억 원, 두 번째는 50억 원을 받았어요. 계약할 때 K하고 저는 월급없이 매출 몇 %를 받는 거였는데,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말이 바뀌더니, 우리를 직원으로 고용한다고 하면서 매월 200~25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K한테 우리끼리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K하고 나는 동업을 하지만 회사 내에서 서로 다른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능력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B, 2019.08.29.)

연구참여자 B는 한국인 친구의 제의로 세 명이 동업을 한 적이 있었다. 계약할 때는 월급이 아닌 매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하였다. 매출이 좋아지자 6개월 후에 한국인 친구는 중국 친구 K하고 연구참여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겠다고 계약과 다른 말을 하였다. 세 명이 동등한 자격으로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연구참여자는 외국인이다 보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으며 동업을 마무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중국인 친구 K하고 물류 회사 동업을 시작하였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주민의 경제 활동에 대한 권리 및 손해 등 제도의 세심함이 뒷받침되어야 다양한 이주민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940~1950년대 팔레스타인에서 요르단으로 난민들이 많이 왔어요. 그 때 온 사람들은 국적을 받았고, 후손들이 요르단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받으면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한국인이 많아질 거예요. 다양한 것은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면 대한민국이 더 힘이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인인데, 다양하다고 생각해 주고,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D, 2017.07.04.)

연구참여자 D는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 때 많은 난민이 요르단으로 이주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은 요르단 국적을 받고 요르단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전라도하고 경상도 사람들이 사투리도 다르고, 지역 문화가 다르지만 같은 나라 국민이듯이 국적을 가진 이주민도 한국인으로 존중해달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에서 이주한 외국인들도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이 될 거라고 하였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요르단처럼 한국도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공존의 행복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주민의 성공적인 사회적 지위 확보는 안정적 정착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지역사회와

의 충분한 정보 교류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자본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한국은 다 좋은데, 사기를 치는 사람 관련 법을 조금 강하게 바꿔야 해요. 사기를 치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조심해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기는 인생을 흔드는 나쁜 일이에요.

삶도 죽음도 돈도 모든 것은 하느님이 준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장이지만 아르바이트 직원도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무슨 일이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한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나도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연구참여자 G, 2019.10.01.)

연구참여자 G는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당한 피해 경험이 있는데,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계속 같은 행동을 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인생이 흔들리게 하는 나쁜 행위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회사 사무실 한국인 직원하고 생수 회사 직원하고 겨울에 생수 130통을 결제했다. 이렇게 사기, 배신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체념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열심히 일하면서 이겨낸다고 하였다. 사회적 관계 맺기를 하는 상호작용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부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는 관용과 이해를 통한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제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O 회사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했어요. 너 외국 사람이니까 재판하면 질 거라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나를 무시했어요. 나중에 변호사를 사고 영수증은 없지만 다 얘기했어요. 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내가 돈 준 것을 아니까, 내 편이 되어주고 증인이 되어 줬어요. 나중에 법원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판결 났어요. 1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한국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심하지만 나쁜 사람은 많아요. 외국 사람을 무시하고, 그때 나한테 했던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너 외국 사람이니까 다칠 거야. 조심해! 좋게 말할 때 값아라.’” (연구참여자 H, 2018.10.18.)

연구참여자 H는 사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거래를 하던 OO회사 직원하고 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계약서도 없고, 영수증도 없었지만 통장에는 송금 내용이 있었다. 결국 소송을 당했지만 OO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증인이 되어 주어서 소송에서 이겼다.

연구참여자는 1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임신한 부인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견뎌야 해서 힘들었다. 한국의 법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무시하고 속이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너는 외국인이니까 다칠 거야.’라고 했던 그 말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고 하였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민에게 법률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제적·제도적·정치적 자본은 조직적이고 세심하게 보완되고 약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하고 동갑인 한국 사람이 나를 무조건 싫어했어요. 나한테 무조건 일을 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이 지게차를 몰고 와서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내가 먼저 때렸어요. 한국은 말로 싸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싸울 때 무조건 먼저 때려요. 그래서 나도 먼저 때려 버렸어요. 부장님이 우리 둘을 데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를 했어요. 나를 싫어했는지, 외국인을 무조건 싫어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연구참여자 H, 2018.10.18.)

연구참여자 H는 이주 초기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욕설을 하고 차별하는 한국인 직장 동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때렸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싸움을 하게 되면 무조건 먼저 때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제도적 자본의 전문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과의 제도적 관계 형성이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계약하고, 돈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차가 안 오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 사업을 하라고 쉽게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가 부산에서 와야 하는데, 계속 내일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1천만 원을 주고 계약하고 돈도 보냈는데, 다른 사람이 5만 원을 더 준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차를 보내요. 다른 사람이 5만 원 더 준다고 하면 저는 10만 원도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차를 줘버리니까요. 저한테는 계약서가 있지만 소용없어요.” (연구참여자 K, 2020.01.05.)

연구참여자 K는 법을 준수해야 한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야 사업도 좋아진다고 하였다. 사기를 경험할 때면 아들에게 사업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돈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다양한 경제적·제도적 자본에 대한 다양성의 존중과 공존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제도적 관계를 통한 자발적 협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5.3. 상호작용

Esser(2001)는 사회통합모델에서 상호작용(Interaktion)은 이주민의 학문 및 전문지식에 대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일상생활 영역 내에서 생기는 모든 사회적 네트워크를 수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친구, 이웃과의 관계, 타 민족 간 또는 같은 민족 간의 결혼, 또는 수용국 구성원과의 관계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였다. 수용국의 문화에 잘 적응한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는 수용국 구성원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잘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주한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수용국 사회 구성원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 자본,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자본, 즉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정치적 정보 공유 등은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5.3.1.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

이주민의 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은 수용국 주민과의 정서적 동화로 이어질 수 있고, 상호작용의 긍정적 방향이 될 수 있다(Esser, 2001). 하지만 실제 연구참여자들의 네트워크 활동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었다. 사업 분야 특성상 물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 맺기를 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 반면 식당은 지역사회와 거버넌스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사회적 관계 맺기도 원활하였다.

“지금까지 사업할 때 직원들을 가족과 같이 동등하게 반드시 손해 없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식당을 할 때도, 지금 회사에도 직원들은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에요. 만약 중국에 있었다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

지 못했을 거예요. 외국에서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자신 스스로 해야 하거든요. 중국에 살았다면 부모, 친척,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도와주었을 테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몰랐을 거예요.” (연구참여자 B, 2018.07.12.)

연구참여자 B는 이주 초기 사업 할 때부터 직원들을 가족과 같이 소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중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중식당,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물류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업자와 직원들은 모두 중국인이라고 하였다. 한국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가 중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듯하였다.

“한국인과 공적이든, 사적이든 관계를 가지지 않아서 불편한 점은 별로 없어요. 배달 음식도 휴대 전화 앱(application)을 통해서 주문하니까, 한국어를 쓸 일이 별로 없고, 전화를 받을 때만 한국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어가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주말과 일요일에는 쉬지만 할 일이 없으니까,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요. 문제가 생기면 힘들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배송 중에 분실, 파손되는 일이 생기면 해결해야 하니까, 힘이 들어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연구참여자 B, 2019.12.02.)

“조선족들은 부모,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지만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4년 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여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놀러 가거나,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당을 할 때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해야 하나...컴퓨터를 보면서 계속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같이 술을 마실 친구도 없고, 친구들도 바쁘고, 혼자 계속 일만 했어요..... 같이 놀 친구가 없으니까, 계속 일만 했었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한국 사장님, 한국 아르바이트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었고, 한국어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B, 2018.07.12.)

연구참여자 B는 일상이 사업이고, 사업이 일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와 공적이든 사적이든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불편한 점은 별로 없다고 하



였다. 국제 물류 회사이고, 직원들도 중국인이다 보니 한국어를 쓸 일은 별로 없고, 전화를 받을 때 잠깐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배달 음식은 휴대전화 앱(application)을 통해서 주문하고 식사도 오후 늦게 먹거나 하고,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한국문화는 주로 인터넷(Internet) 등을 통해 길지 않은 시간을 접하고 있어서 한국어 능력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업의 특성상 중국 수출 관련 회사 및 세관 등하고 일을 하다 보니,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여가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관찰되지 않고 있어서 다양성의 가치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포용력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한국 이주 초기에 대학교에 다니면서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연구참여자가 이주한 당시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많지 않기도 해서 사회적 관계 확장을 위한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가족 단위 이주를 하기도 하는 중국동포(조선족)들과의 사회적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주 초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노력은 관찰되지 않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고민했던 노력만 보이고 있다.

“저는 직원을 자주 바꾸지 않아요. 직원을 믿고 일을 하고, 직원들도 저를 믿고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전에 일하던 한국인 여직원도 8년을 같이 일했는데, 임신해서 건강 문제 때문에 퇴사했어요. 제가 외국인 사장이니까, 한국인 직원들이 한국문화를 가르쳐주고, 다른 외국인 직원들을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한국인 직원이 5년 일하고 3천만 원을 횡령했어요. 신고했는데, 한국 법을 잘 몰라서 받을 수 없었어요. 사기를 많이 당한 기억은 안 좋은 기억이지만, 많은 거래 중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법 제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연구참여자 E, 2019.04.29.)

연구참여자 E는 직원을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을 자주 채용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들의 믿음도 확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한국인 여직원은 8년을 같이 일할 정도로 신뢰하는 관계였는데, 임신해서 건강 문제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외국인 사장이다 보니 모르는 한국문화는 직원들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외국인 직원들하고 잘 지내는 등 회사

분위기는 좋다고 하였다. 그런데 몇 년 전에 5년 동안 같이 일했던 한국인 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적이 있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한국 법을 몰라서 받을 수 없었는데, 돈보다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을 당해서 힘들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또한 연구참여자는 많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자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한 달에 한 번씩 상인들 모임도 있고, OO구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어려운 점 말하는 시간도 있는데, 지난번에 참석했는데, 외국인은 저 혼자였어요. 식당 근처에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상인들이 구청에 공영주차장을 늘려달라고 건의해서 공영주차장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어 주차 공간이 많이 생겨서 손님들이 편해지니까, 앞으로 더 수익이 좋아질 거예요.”

(연구참여자 M, 2020.01.15.)

연구참여자 M은 한 달에 한 번씩 OO구청에서 주최하는 상인 대상 회의에 참석해서 어려운 점이나, 건의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참석자 중에 이주민은 연구참여자 혼자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식당 주변에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상인들이 공동으로 구청에 공영주차장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었다. 공영주차장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어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고객 증가가 예상되고, 수익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교류를 통한 거버넌스 관계를 원만하게 실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은 사업 분야의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발하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 맺기나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 5.3.2. 모국문화는 문화적 자본

이주민의 민족공동체는 언어가 부족한 이주민이 수용국 사회와 분리될 수 있는 부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수용국 사회에서의 원만한 대인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사회적 성취는 이주민의 긍정적인 문화적 자본이 될 수 있다(Esser, 2001).

연구참여자들은 사업 특성상 초국적 네트워크로 인해 모국문화를 문화적 자본으로 형성하고 있기도 하였다. 또한 무슬림(Muslim)인 경우 문화적 연대로 작용하고 있으며 종교적 연대를 통한 공감의 공유를 보이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이력서를 쓸 때 성별, 민족을 적게 되어 있어요. 소수민족은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조선족들은 우리하고 거의 잘 안 맞아요. 여러 가지... 인생관, 가치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어울려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 사회가 제 몸 속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라도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정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중략) (연구참여자 A, 2019.07.20.)

연구참여자 A는 중국 내 한족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국 내 소수 민족 등에 대해 편견은 없다고 하였다.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해서는 인생관,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같은 민족 또는 타 민족 간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같은 국가 내 문화적 공감이 공통되는 상호작용보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업은 같이 일하는 사람과 오해가 생기지 않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표현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동업자도 회사 직원들도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직원들은 다 가족이고,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일이 없으면 같이 놀고 하거든요. 저는 생각이 많고, K는 활동적이라 움직이며 하는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이 있어서 동업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동업은 1+1=2가 아니고, 1+1=2 이상이어야 해요.” (연구참여자 B, 2019.12.02.)

연구참여자 B는 동업을 하는 관계에서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유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동업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회사 직원과의 문화적 공감 능력과 상호작용의 문화적 자본에 대해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공감을 공유하고 있다며 확신하고 있었다.

“한국은 아랍보다 가족 간 인간관계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요르단은 삼촌과 아버지, 9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모여서 해결해요. 장례식이 있을 때 모두 같이 모여서 일을 같이 해결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은 가족들이 멀리 있고, 바빠서 자주 만날 수 없다고 해도 가족 간 유대관계 같은 것이 아랍보다 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께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무조건 잘해야 해요. 그래서 가족 간에는 무조건 자주 만나고 잘해야 해요. 우리 문화, 종교에서는 하느님,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꼭 복종하고, 잘해야 해요.” (연구참여자 F, 2020.01.29.)

연구참여자 F는 한국은 아랍보다 가족 간 인간관계가 조금 약하다고 하였다. 요르단은 아버지하고 삼촌, 그리고 9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집안에 장례식 등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모여서 해결한다고 하였다. 한국은 핵가족 형태로 인해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주 만날 수 없다고 해도 가족 간 유대관계 즉 우애는 아랍보다 약한 것 같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부모님께 무조건 복종하며 혈족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르단 문화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하느님, 다음에 부모님께 복종하고 잘 해야 하는 것이 문화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무슬림(Muslim)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의 가족하고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는 등 무슬림 문화로 연대하고 있기도 하였다.

“큰아들과 딸을 제외한 다섯 명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다섯 명 아이들은 우리 나라 음식은 아예 안 먹고,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먹어요. 김치찌개, 동태찌개, 떡볶이, 김밥 그런 것만 먹고, 김치는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어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떡볶이예요. 그래서 빵 말고, 밥만 먹어요. 아이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한국인 무슬림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무슬림이 아니면 결혼시킬 수 없어요.” (연구참여자 G, 2020.01.31.)

연구참여자 G는 큰아들하고 딸을 제외하고 다섯 명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음식 문화는 김치를 좋아하는 한국식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자녀들의 음식 문화가 한국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였는데, 결혼은 무슬림(Muslim) 식으로 할 거라고 하면서 무슬림이 아니면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결혼 등 풍습은 무슬림(Muslim) 문화로 연대하고 있다.

“이 일을 하면서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힘들 때는 너무 힘들 때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조금 덜 쓰고 하면 되는데,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는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 자리까지 하느님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다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참고 힘을 내요.”

(연구참여자 H, 2019.08.06.)

연구참여자 H는 무슬림(Muslim)이라서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종교에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는 사업을 선택하고 나서 만족하거나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하며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낼 때도 종교에 의지하여 위로 받고 힘을 내고 있었다.

“지난달에 형은 고향에 가서 결혼했고, 저는 회사일 때문에 먼저 한국에 돌아왔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남자 23~25살, 여자 18살이 되면 반드시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해요. 형도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나도 100% 키르기스스탄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아서 슬퍼요. 내가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슬람이기 때문에...(중략) 우리 나라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연구참여자 I, 2019.04.16.)

연구참여자 I의 아버지는 아직까지 국적이나 영주자격 신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비자 연장하는데 별다른 애로점이 없고, 가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고향에 다녀오는 것 말고 고향에 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의 형은 지난 달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이 정해준 여성하고 결혼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보통 남자는 22~25살, 여자는 18살이 되면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혼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도 그렇게 결혼할 것 같아서 슬프지만,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름이 OOOO이에요. 외국인등록증에 있던 영어이름 그대로 한국어로 쓴 거예요. 이번에 파키스탄 영주권을 7년 기간 동안 받았어요. 파키스탄에 재산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면 파키스탄 재산을 다 팔고, 한국 이름으로 다시 사야 해요. 아들은 OOOO이에요. 부인은 F-6 이에요. 부인은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힘들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F-6이고, 연장만 하면 되는데, 왜 국적을 바꾸냐고 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보통 파키스탄 말로 이야기해요. 아들은 나한테는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부인하고는 파키스탄 말로 주로 이야기해요.”

(연구참여자 J, 2020.03.08.)

연구참여자 J는 귀화를 하면서 부인은 결혼이주민(F-6), 아들은 한국인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어, 파키스탄어로 대화하는 등 가정에서의 의사소통도 다양해지고 있고, 부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우리 회사는 일이 많아서 12시간 아니면 14시간을 일했어요. 퇴근하고 샤워하고 바로 음식을 만들고 먹고 바로 자야 해요. 우리 기숙사는 화장실, 목욕실이 크지 않고, 요리하는 공간도 크지 않았어요. 태국 문화는 같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같이 샤워하지 않고, 샤워실에 한 명씩 들어가서 샤워했어요. 그런데, 샤워할 때 태국 친구들 중에 한 명은 한 시간이 걸렸어요. 매일 매일 한 명이 샤워실에 들어가서 한 시간씩 걸리니까, 다들 힘들어했어요.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규칙을 정했어요. 하루는 태국 친구들이 순서대로 샤워하면, 베트남 친구

들은 요리를 하고, 다음 날은 베트남 친구들이 샤워를 하면 태국 친구들은 요리를 하자고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연구참여자 M, 2019.08.27.)

연구참여자 M은 이주 초기 회사 기숙사에 태국, 베트남 근로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여러 나라의 문화가 다르다 보니 공감대 형성과 같은 상호작용이 부족하였다. 기숙사는 근로자 인원에는 비해 방이나, 조리실, 샤워실 공간이 많이 부족했다. 태국 목욕문화는 같은 남자라도 같이 샤워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태국 근로자들이 한 명씩 샤워실을 이용했다. 근로자 중 한 명이 한 시간씩 샤워를 해서 다른 근로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연구참여자는 이 문제에 대해 기숙사 근로자들이 같이 논의해서 음식이나 샤워 등 생활할 때 중요한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였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 공감하고 인정하고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적 자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중에 무슬림(Muslim)인 경우 모국문화 자본이기도 하지만 종교 문화로 연대하면서 문화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 5.3.3.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기회

이주민 공동체의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회적 연결망은 수용국 사회로의 사회적 자본을 약하게 할 수 있으며, 동일시 또는 일체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Esser, 2001).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소통의 자본의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였으며, 고국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고 사회적 기회 제공에 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은행에 가면 손님은 왕이에요. 마트도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야, 너 왜 우리나라에 왔어? 뭐하러 왔어? 돈 벌러 왔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보면 모두 공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은 공장에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D, 2017.07.04.)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의 법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사기도 안 당하고, 사업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은 한국어 공부도 해야 하고, 법도 공부해야 하는데, 항상 바쁘니까, 쉽지 않아요. 비즈니스(business) 서포팅(supporting) 센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주민사업가를 도와주는 센터가 아니고, 법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한국어하고 한국문화도 공부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도와주면 사업가들은 도움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업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정보도 알 수 있는 센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D, 2018.09.30.)

연구참여자 D는 다양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연구참여자가 한국인 직원들을 고용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처음 만나는 한국인들 중에는 반말을 하면서 차별하는 표정을 짓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있는 이주민은 모두 공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주민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인정하려는 인식이 필요한데, 이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자본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이주민사업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주민사업가들이 법을 이해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

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사업을 하다 보니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사업가들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교육도 받고,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소통의 자본 극대화를 통한 지역사회 연결망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도움을 받는 센터가 아닌 법 제도, 언어 교육 등 경제 및 제도 또는 정치적인 자본까지 형성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음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음식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식당은 계속 할 거예요. 우리는 매월 ○일, ○일에 우리 식당에서 모임이 있어요. 밥 먹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 다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줘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한테 와요. 넘어져서 다치거나 통역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인천으로 도와요. 그럼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도와줘요.” (연구참여자 G, 2020.01.31.)

연구참여자 G는 2002년 이주 초기에 음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음식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다가 식당을 개업해서 수익이 별로 없지만 계속 운영할 거라고 하였다. 언제부터인가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식당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들,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통역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주로 고향에서 온 근로자, 결혼이주민,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가끔 어려운 한국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참여자는 사업이나 식당을 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킹이나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역사회와 소통의 연결망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결망의 노력은 이주민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여 동일시로 가는 단계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에 다닐 때도 그렇고 장사를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속담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식당 사장님들이 실수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전단지 돌리는 것 등을 물어보고 참조해서 하니깐, 도움이 많이 돼요.” (연구참여자 M, 2020.01.15.)

연구참여자 M은 회사에 다닐 때 한국인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회사에 다닐 때에도 식당을 운영하는 현재에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였다. 주변 상인들과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고 해결하는 절차와 매체를 통해 사회적 위치 부여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연구참여자는 한국 속담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의사소통의 관계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당위적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주변 상인들의 운영 경험을 자신의 식당 운영 전반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소통의 자본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고국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 맺기를 하기도 하였다.

## 5.4. 동일시 또는 일체화

Esser(2001)는 사회통합모델에서 동일시 또는 일체화(Identifikation)는 이주민이 수용국 사회의 구성 내에서 일체화를 느끼고 이를 통해 스스로 동일시적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주민이 동일시 또는 일체화를 느끼는 것은 수용국 사회에 대한 감정적 애착 또는 감정적 동화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수용국 사회의 공동체적인 가치와 시민의식, 그리고 사회적 제도에 대해 동의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은 이주민이 수용국 사회 내에서 문화적응을 위해 학문 등 전문지식 능력의 습득을 통해 인적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합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부여 받는 절차를 거쳐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 때 사회적 매체가 작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용국 사회는 사회적 수용을 하게 되며 경제적·제도적·정치적 자본도 이주민의 지위 부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사회 구성원 간 네트워크나 사회적 자본을 통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곧 수용국 사회에 대한 정서적 동화 내지 감정적 애착으로 이어지고, 소속감을 가지는 동일시 또는 일체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 5.4.1. 다중정체성을 통한 일체화

이주민은 수용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풍부한 사회적 자본을 가지게 되면서 수용국 사회와의 동일시 또는 일체화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동일시 또는 일체화의 소속감이 이주민 공동체 안으로만 한정될 경우 직장 등 사회적 조직 등에서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Esser, 2001).

연구참여자들은 고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국적보다 자신 스스로를 언급하는 제3의 정체성을 보이는 다중정체성을 통한 동일시 또는 일체화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저는 솔직히 국적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법을 잘 지키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잘 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어디에 가든 저 스스로 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나예요. (중략) 제가 한국 사람이면 제가 변해요? 변하는 것은 아니예요. 중국 사람이라고 눈이 하나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한테 국적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는 여기에서 계속 잘 살고 싶어요.” 정체성? 자신의 마음만 확실하면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중국이 나를 필요로 하면 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데, 나라는 우리를 사랑할까?.....’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8.27.)

연구참여자 A는 수용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을 잘 지키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의 가치에 대한 동의의 표현은 ‘나는 나’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고국도, 한국도 아닌 제3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가치에 동의한다는 의미이고, 어느 나라에 가든 스스로 잘 산다는 표현 역시 사회구성원으로서 준범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하는 표현 역시 국가 정체성 부재가 아닌 소속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자세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수용국 사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존중받는 동시에 함께 하는 시민의식의 성장은 사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동일시 즉, 일체화의 주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나중에 중국에 갈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갈 것 같아요. 한국에서 회사가 어떻게 발전할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 친척들하고 집이나, 생활 기반이 다 중국에 있잖아요. 조선족들은 대부분 친척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중국에 돌아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면 아들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해서 가족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시고, 부인은 아이를 키워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나 혼자이고, 생활을 이어가려면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니까요. 사는 게 재미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에게는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B, 2019.08.29.)

연구참여자 B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더라도 언젠가는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회사의 운영이나, 사업 방향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한족은 가족이나 친척 등 생활 기반이 중국에 있고, 중국동포(조선족)들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14년 동안 거주하였지만 부모님, 부인하고 아이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고국에 대한 소속감을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가족이 있는 고국에 대해 일체화를 가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팔레스타인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18살 때 요르단 대학교에 가셨고,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팔레스타인에 가서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셨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는 삼촌, 이모들이 살고 있고, 요르단에 살고 있는 친척들도 있어요. 요르단하고 팔레스타인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E, 2018.07.27.)

연구참여자 E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삼촌, 이모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서 팔레스타인하고 요르단을 동일시하고 있었다. 스스로도 요르단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해 동일시 또는 일체화를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가지게 된 한국 사회에 대한 정서적 동화와 고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적 애착은 다중정체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나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르단에서 세금 내고 살았기 때문에 요르단 사람이라고도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는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이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르단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연구참여자 F, 2017.11.15.)

“저는 요르단 여권을 포기한 것이지, 우리 나라를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집도, 어머니도 요르단에 있어요. 한국인은 내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불러도 외국 사람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요르단

국적이든, 한국 국적이든 나는 '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연구참여자 F, 2019.07.08.)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귀화를 해야 해요. 나이도 먹었고, 결혼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 선택이 맞다고 하셨어요. 한국 국적을 받으면 요르단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다시 요르단 국적을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한국 국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요르단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국적만 바뀌는 것이에요. 요르단 나라를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요르단 사람이지만 여권만 신분증만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르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문화 속에 살면서 생활 습관하고 생각이 바뀐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F, 2020.01.29.)

연구참여자 F는 요르단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요르단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한국 국적 취득 선택에 대해 아버지도 동의했다고 하였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라고 부른다고 해도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어린 시절 이주한 한국 사회에 대한 감정적 동화를 넘어선 자아의식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국에 대한 동일시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요르단에 대한 동일시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고국하고 한국에 대한 다중적인 동일시 또는 일체화를 표현하고 있다.

“국적을 받은 후에 나보고 축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돈을 얼마 주고 국적을 받았느냐, 1천만 원을 줄 테니까 국적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내가 브로커이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을 법무부에 알려주고, 국적을 받았다고 했어요. 많이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손가락은 다섯 개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J, 2020.03.08.)

연구참여자 J는 귀화를 하고 나서 주민등록증을 본 파키스탄 친구들은 브로커(broker)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강제 출국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없어졌고, 안도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친구들의 오해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주민, 그리고 수용국인 한국 국민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스럽지만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에 더해 다문화사회 정체성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 사회의 가치에 공감하였고, 상호존중을 통해 공감하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와 고국의 정체성이 아닌 제3의 정체성을 통한 동일시 또는 일체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 5.4.2. 한국 시민 되기

이주민이 수용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 대한 정서적 기대감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시민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내면화를 통한 미래의 가치에 대한 동반과 함께 포용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미래를 포용하고 있었다.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했어요. 엄마가 중국에 와서 치료받으라고 하셔서 중국 병원에 갔어요. 새벽부터 줄을 서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날은 제가 마지막 환자였는데, 7번째였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90만원이라고 했어요. (중략) 너무 비싸고, 의사에게 따로 돈도 주어야 하고, 병원 시설, 시스템 등 모든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수술을 받고 싶지 않아서 엄마한테 한국에 가서 치료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수술을 했는데, 70만원이었어요. 수술하기 전에 엄마가 걱정이 돼서 계속 전화, 문자를 하시면서 의사에게 돈을 주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돈을 주면 불법이라서 나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 된다’고 했더니 엄마가 많이 놀라셨어요.”

(연구참여자 A, 2017.07.13.)

연구참여자 A는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하고 법 제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다.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 한국에 대한 믿음이 확인되지 않은 어머니의 권유로 중국 병원에 방문했다가 한국의 병원하고 비교를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무사히 수술도 하고, 완쾌했는데, 어머

나는 한국 병원 의사에게 돈을 주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한국에서 의사에게 돈을 주면 불법이라는 말을 들은 어머니가 놀라셨다는 말은 한국 사회 시스템의 투명성을 말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한국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한국 시민이 되고 있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이에요. 한국의 법은 대통령도 탄핵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 제일 좋아요. 운전을 할 때 신호를 지키고, 안전벨트를 매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질서도 잘 지켜요. 한국 국민은 아주 법이나 평등 의식이 높고, 질서 의식도 높아요.” (연구참여자 E, 2019.04.29.)

연구참여자 E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이라고 하였다. 한국은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는 공정함이 있고, 운전할 때 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일상 속에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질서의식, 성실하고 높은 시민의식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시민으로서의 미래를 포용하고 있었다.

“부인하고 아이들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고 이곳에서 교육시키고 싶어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사업 시작해서 잘 살고 있고, 아이들도 대학에 보내고, 교육을 잘 시켜주고 싶어요. 아이들도 여기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고향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요. 국적 신청은 나하고 가족을 위해서 했어요. 남자니까, 남자의 책임은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연구참여자 H, 2019.11.11.)

연구참여자 H는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해 2015년 국적 신청을 한 적이 있고, 가족의 행복과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은 가장의 책임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한국 시민으로 교육시키고 싶다고 하였는데, 한국의 미래 가치에 대해 동참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저는 국적 받기 전에도 그랬어요. 회사 운영할 때 많은 수익을 내지 말고, 적게 이익을 내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

래서 폐차장이나 업체에 갈 때 과일, 음료수, 과자 같은 것을 일주일마다 사 가지고 가요. 출근할 때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만 원씩 드리면서 '맛있는 거 드세요' 라고 하면 좋아하세요. 그러면 내가 더 기분이 좋아요. 같이 잘 살아야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잘 살고 싶어요. 한국이 나를 많이 도와줘서 국적도 받고 살고 있으니, 나도 한국 사람들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J, 2020.03.08.)

연구참여자 J는 사업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체를 방문할 때나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업체에서 중고차나 부품이 나오면 다른 한국 회사에 물품을 넘기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작은 이윤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당사자는 평생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2018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으로서의 참여로 보여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출근길에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을 만나면 만 원씩 드린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는 모습이야말로 미래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미래를 포용하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 5.4.3. 한국 국적을 통한 소속감 찾기

이주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일체감 또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동일시한다(Ashfort & Meal, 1989). 이주민의 사회 정체성 또는 국가정체성은 지속적 일상의 익숙함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며 수용국의 지속적 통합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국의 가치에 대한 동의와 시민권의 수락은 소속감의 발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국적을 통한 소속감은 일상의 익숙함에서 확신하기도 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국에 가서 한국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음식도 안전하고, 치안도 좋고, 병원 시설도 최고예요. 쇼핑할 때 사거나 바가지 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정말 한국이 편하고 좋아요. 저한테 한국은 외국이 아니고, 내 나라 같아요. 한국은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예요.” (연구참여자 A, 2019.07.20.)

“사회통합프로그램 첫날,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 배웠어요. 하늘, 땅, 물, 불같은 우주를 표현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도 일본하고 역사적 감정이 안 좋은데, 한국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죽으면서 싸운 역사는 인간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감동했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들한테 정말 필요해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역사, 한국의 문화, 법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하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법이 제일 필요한데, 법에 대해 배우고 나서 시스템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은 이해할수록, 오래 살수록 마음에 들어요.” (연구참여자 A, 2018.08.27.)

연구참여자 A는 기회가 평등한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음식이나 치안, 병원 시설이 최고라고 하였으며, 쇼핑할 때 사기를 당하거나, 바가지를 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정의에 기초한 질서의 확립에 대해 특히 만족하였는데,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사회 이해’ 과정에 참여했다. 한국의 상징인 태극기는 ‘하늘’, ‘땅’, ‘물’, ‘불’,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 덕분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배울 때는 마음이 아프고, 감동했다고 하였다. 같이 공부하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중에는 유학생,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한국인하고 결혼한 엄마를 따라 온 베트남 출신 여고생도 같이 공부했다. 나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보니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았다. 사업하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즐겁게 공부하였다고 말했다. 공부하다가 만난 중국, 파키스탄 사업가들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양한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얻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업가이다 보니 제일 필요한 것이 법이었는데,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을 이해하게 되고, 오래 살수록 한국이라는 공동체 가치에 공감하게 된다고 함으로써 한국인의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국적 신청을 하고 나서 귀화 면접심사 면제 혜택을 받고 2017년 국적을 취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인으로서의 일상이 익숙해지면서 한국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하였다.

“한국은 저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살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은 제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고,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 것 같아요. 중국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뜻한 기억이지만, 한국은 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어요. 10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1년에 몇 번씩 고향에 가는데, 갈 때마다 고향이 불편해요.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아서 공기, 물 모든 것에 익숙해 있어요. 주변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중국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연구참여자 C, 2019.07.03.)

연구참여자 C는 한국은 자신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 ‘제 2의 고향’이라서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 것 같다고 하였다. 중국은 부모님이 살고 있기 때

문에 따뜻한 기억이지만, 한국은 익숙한 일상이 지속되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14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공기, 물, 모든 것에 익숙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고향에 갈 때마다 익숙한 일상이 있는 한국에 빨리 오고 싶다고 하였지만 한국 국적 신청을 하게 되면 중국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부모님하고 고향이 있는 중국의 문화가 익숙하지만, 한국에서의 일상 또한 고향과는 다른 익숙함을 느낀다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표현하고 있다.

“저는 지금 요르단에 가면 고향 사람들은 저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3년 살다가, 요르단에서 4년 살았고, 한국에서 18년 살았기 때문에 저는 다국적인이예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나는 누구인지 생각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결혼했고, 아이들도 태어났어요. 한국인으로 키울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살았지만 그중에서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요르단에서 못 살아요. 인천은 나의 고향이에요. 요르단에 가면 한국 고향에 오고 싶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위험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벌금을 받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연구참여자 E, 2019.04.29.)

연구참여자 E는 부모님이 요르단에 살고 있고, 둘째 동생은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 셋째, 다섯째 동생은 요르단에서 치과 의사이고, 넷째 동생은 연구참여자와 파트너로 요르단에서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던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서 사업을 책임지고 있고, 여섯째 여동생은 약사이다. 6남1녀 중에 세 명이 한국하고 요르단에서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면서 초국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외국인처럼 대한다고 하였다. 외모는 요르단 사람이지만 내면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낯선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서 요르단으로 이주했고, 다시 한국으로 이주하여 생애 가장 긴 시간을 거주하였다. 한국에서 결혼하였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인천에서 고향 같은 안정감을 느끼고 있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제로 출국할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는 한

국 사회의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는 표현에서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통합의 과정을 보이고 있었다.

“저는 한국에서 국적을 받고 싶은 이유는 중학교 공부를 다시 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서예요. 그게 제 꿈이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언젠가 영어 선생님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좋아요.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잘 살 수 있게 가르치고, 도와주고 싶어요. 말레이시아 갔을 때 선생님을 좋아했었어요. 영어 선생님을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다시 키르기스스탄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언어만 알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친구도 없어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고 무슨 일을 해요. 그렇지만 말레이시아에 가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I, 2019.12.28.)

연구참여자 I는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이유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고,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라고 하였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고, 말레이시아에서 영어 선생님을 보면서 꿈을 키웠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정말이지 대단한 거라고 말했다. 연구참여자는 국적 취득하고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가지고 있다.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더 비싸게 더 많이 매입하고, 한국인 OO회사 더 싸게 더 적게 매입하는데도 폐차장에서는 차를 한국인 회사에 팔아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OO차를 100만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안 팔았어요. 그런데, 그 차가 두 달 동안 폐차장에 있었어요. 한국인 OO회사에서 80만원에 샀는데, 압류 금액이 너무 커서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반품이 되니까, 두 달 후에 폐차장 사장님이 나한테 88만원에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폐차장, 업체, 딜러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폐차장 같은 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아서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한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인이예요.” (연구참여자 J, 2020.03.08.)

연구참여자 J는 2018년 국적을 취득하였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 사람들과의 사업적인 관계 속에서 아쉬움과 서운함을 표현하기 보다는 업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적 취득을 하면서 한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 국적을 통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사회와 동일시하는 정체성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한국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국에서의 낯선 경험 속에서 느끼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주민사업가들에게 한국은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되었어도 혹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시민으로서 일상의 익숙한 편안함이 있는 제2의 고향이다.



## 5.5. 소결

5장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사업가 13명의 사회통합의 생애사적 경험과 의미를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에서 제시하는 문화적응(Kulturation), 지위부여(Plazierung), 상호작용(Interaktion), 동일시 또는 일체화(Identifikation)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sser(2001)는 사회통합모델에서 문화적응(Kulturation)은 자신에게 필요한 학문과 본인이 정한 전문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적자본은 개인이 훈련을 통해 체득한 기술, 지식, 능력 등의 인적 자산을 말한다. 문화적응(Kulturation)은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었다.

첫째, 배움의 기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회의 소중함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국 사회에 이주한 이주민에게 소중한 기회는 젊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며, 기회를 활용할 때만이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공과 다른 학문은 언어를 포함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선의 기로에 선 이주민의 선택에서 이주민은 수용국 사회에서 언어를 포함한 지식, 문화를 습득하면서 상호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지식 역량은 다양한 지식과 언어를 포함한 다문화 역량의 제고를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함양할 때 이를 수 있다.

넷째, 전문지식을 활용한 문화적응은 이주민이 적극적인 자기주도학습 성취의 희열을 통해 이를 수 있으며, 한국문화를 수용하여 사회적 요구에 따를 때 문화적응에 이를 수 있다.

다섯째, 인적자본 활용은 인적자원의 형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인적 자본의 안정감과 함께 다양성의 존중까지 포함할 수 있다.

지위부여(Plazierung)는 이주민이 문화적응단계를 통해 언어, 지식, 문화를 습득하게 되면 수용국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지위를 부여받으면 합법적 권리, 즉 법, 권력, 투표권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첫째, 행정기관은 이주민하고 거버넌스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법, 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할 수 있고, 이주민의 권리 실현에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위치와 매체는 수용국과 이주민의 의사소통의 관계성을 통해 다원화할 수 있으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인 수용은 수용국하고 이주민의 순응과 적응의 하모니가 있어야 가능하다. 수용국과 이주민이 서로에게 순응하며 다양한 연대를 활성화할 수 있다.

넷째, 경제적·제도적·정치적 자본은 수용국과 이주민의 제도적 관계에서 자발적 협력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면 공존의 행복을 나눌 수 있다.

상호작용(Interaktion)은 이주민의 학문 및 전문지식에 대해 한국 사회가 서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하는 데 있다.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은 지역사회와 모든 네트워크와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가 형성될 때 상호작용이 지속될 수 있다.

둘째, 모국문화는 문화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국에서 이주민은 수용국 문화와 모국의 문화를 연대할 수 있으며, 수용국의 문화에 대한 공감능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기회는 평등할 수 있으며, 사회참여의 지역연결망을 이용해 소통이라는 자본을 극대화할 수 있다.

사회통합모델에서 동일시 또는 일체화(Identifikation)는 이주민이 수용국 사회의 구성 내에서 일체화를 느끼고 이를 통해 스스로 동일시적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다중정체성을 통한 일체화는 수용국과 이주민 고국의 정체성을 포함한 제3의 정체성을 가치로서 공감하고, 상호존중을 통해 공감할 때 의식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면화를 이루어야 사회적 포용의 미래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 국적을 통한 소속감 찾기는 수용국 사회의 국가정체성이 일상에서 지속적인 익숙함으로 진행될 때 가능할 수 있다.

수용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수용국 사회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할 때만이 가능하며 수용국하고 이주민의 소통이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일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VI. 결론

### 6.1. 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주민사업가의 사업 경험을 생애사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통합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실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보완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을 탐색하였으며 사회통합 모형과 사회통합 모델의 요인과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Esser(2001)의 사회통합 모델에 대해 자세하게 탐색하고, 모형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사회통합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질적연구방법 중에 생애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을 생애 시기에 따라 분석하였고, 이들의 사례 간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의 사업 경험이 있는 이주민사업가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인하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기관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인하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No. 170519-1A)를 통해 기관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먼저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하고 연구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대한 배려하며 시작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횟수는 연구참여자 개인별로 5회씩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시행한 내용은 모두 녹음하고 전사하여 텍스트화 하였으며, 이것을 4장에서는 생애사로 구분하여 기술하였고, 5장에서는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기술하였다.

이주민사업가의 삶의 경험은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이주 초기, 현재, 미래의 계획으로 이주 시기별 생애사별 주제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의 이주 전 삶의 경험에서의 특징은 대개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고등학생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19세 전후의 이주 시기를 알 수 있었다. 이주하기 전에 가족이나 연구참여자가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취업을 준비하였다. 연구참여자 5명

은 가족의 초국적 이주 경험이 없었던 반면에 8명은 가족의 초국적 이주 경험이 있었다. 초국적 이주 시기는 주로 1940년대 중·후반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유년 시절에 이루어졌으며 전쟁, 종교 등 정치·사회적 또는 유학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13명의 고국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되었으며, 국가 공용어와 민족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를 포함해서 2~6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민족 배경은 중국 출신 3명은 한족으로 중국 내 최대 민족이며, 요르단 출신 3명은 아랍인으로 요르단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 1명은 베트남인(킨(Kinh)족)으로 인구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파키스탄 출신 2명은 파키스탄 최대 민족인 편자브인이었으며, 1명은 파슈툰인으로 할아버지가 아프카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초국적 이주를 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3명은 우즈베크인으로 키르기스스탄인이 64.9%를 차지하고 있는 고국에서 13.9%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이주 형태는 부모를 따라 동반 이주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1명을 제외하고, 12명은 단독 이주하였다. 또한 베트남 출신 1명은 현재 미혼이었지만, 12명은 결혼, 가족 재결합 등을 통해 한국에서 가족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종교는 이슬람교가 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출신 3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베트남 출신 1명은 불교였다.

연구참여자의 한국 내 거주 기간은 베트남 출신 1명은 9년이었고, 12명은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고, 그 중에 2명은 20년 이상은 거주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내에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하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1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가 각각 1명이었다. 이주 초기 유학을 목적으로 이주한 중국 출신 3명은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학력의 변화를 보였지만 대부분 취업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학력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중고차 수출을 하는 연구참여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출신 3명은 국제 물류 사업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 초기부터 현재까지 1~4회 체류자격(VISA)을 변경하였고, 귀화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는 10명 중에 파키스탄 출신 3명, 중국, 요르단 출신 각 1명은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었다. 중국 출신 2명, 베트남 출신 1명의 연구참여자는 귀화 신청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 문화적응(Kulturation)에 해당하는 이주 초기 학문적 경험은 어학당에서 1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으며 한국어 교육 경험이 없거나 어린이집, 근로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지식 경험은 유학생으로 이주한 학교, 주변 지인, 또는 스스로 학습을 통해 능동적으로 습득하였다. 사업을 하기 위해 이주하여 아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사업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관광목적(C-3)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를 하면서 회사의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이주민 창업 준비를 위한 센터 방문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적 자본 경험은 한국인으로부터 차별, 또는 고국 지인을 통한 도움, 한국인의 도움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여러 경험들이 있었다.

지위부여(Plazierung)에 해당하는 합법적 권리 경험은 이주민으로서 체류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사기를 당한 후에 해결하는 권리 경험에 관한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 위치 경험은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여 체류자격(VISA) 변경을 하게 되면서 사업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수용 경험은 주변 상인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원활함, 또는 사업 활로책을 위한 통역 지원 등 수용국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경제적·제도적·정치적 자본은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기, 배신, 횡령 등으로 인한 제도적 관계 및 자본의 필요성, 제도적 자본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상호작용(Interaktion)에 해당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경험은 수용국인 한국에서 사업 활동 중에 직원, 고객 등 네트워크의 다양한 경험, 지방이나 지역 간 조직된 네트워크,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문화적 자본 경험은 동업자, 회사 직원 등 문화적 자본의 풍부함, 종교, 또는 고국의 문화적 자본 형성 및 수용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자본 경험이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경험은 고객, 업체, 바이어 등 사회적 기회 및 지역 사회와의 다양한 자본에 만족하고, 초국적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일시 또는 일체화(Identifikation)에 해당하는 다중정체성을 통한 일체화는 수용국인 한국의 가치에 공감하고 상호존중을 통한 공감의 경험들이 있었다. 또한 국적이 바뀐다고 해도 자신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제3의 정체성 경험 등이 있었다. 시민의식은 수용국인 한국 사회의 시민이 되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시민으로서 참여하며 미래의 포용 사회에 함께 하고자 하였다.

소속감은 한국 국적을 통한 소속감 찾기로 지속적 일상의 익숙함이 전제되어 국가정체성에 동의하며 한국은 제2의 고향이라는 경험 등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통합의 대상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모든 이주민이 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사업 활동을 통해 초국적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현상을 보였지만 이들이 고국으로 영구 귀국하려고 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은 수용국, 즉 한국 사회로의 통합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초국적 네트워크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고국 사회를 포함하는 초국적 개념이 될 수 있다. 즉, 사회통합은 수용국 사회로의 일방적인 통합이 아닌 고국 사회를 포함하는 동시적인 소속감 또는 정체성을 느끼는 다중 통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을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에서 제시한 범주들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문화적응



(Kulturation)에서 한국 사회는 이주민사업가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주민사업가는 젊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이주민사업가는 유학 목적으로 이주해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자신의 전공과 다른 학문 분야에서 언어를 포함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이주민사업가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언어를 포함한 지식,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에 참여하여 한국어와 상호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문화를 수용하여 사회적 요구에 따른 문화적응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전문지식 역량은 다양한 지식과 언어를 포함한 다문화 역량의 제고를 통해서 다문화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었고 인적자본을 활용하여 안정감과 함께 다양성까지 존중하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지위부여(Plazierung)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거버넌스 소통의 역할을 하고 법이나 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회적 위치와 매체는 한국 사회와 이주민사업가의 의사소통에 대한 관계성을 통해 다원화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인 수용을 통하여 한국 사회와 이주민사업가가 순응 및 적응의 하모니를 이루었으며 이주민사업가들은 서로에게 순응하며 다양한 연대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경제적·제도적·정치적 자본은 한국 사회와 이주민사업가의 경제적·제도적 관계에서 자발적 협력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공존의 행복을 이루고 있었다.

셋째, 상호작용(Interaktion)에서 한국 사회와 이주민사업가는 학문 및 전문지식에 대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이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모든 네트워크와 최대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상생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문화적 자본을 통해 한국 문화와 고국의 문화를 연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공감 능력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였으며 사회참여와 지역연결망을 이용해 사회적 기여와 소통을 극대화하였다.

넷째, 사회통합모델의 동일시 또는 일체화(Identifikation)에서 이주민사업가는

한국 사회에서 일체화를 느끼고 이를 통해 스스로 동일시적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중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과 고국의 정체성이 아닌 제3의 정체성을 통해 공감하고 상호존중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시민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하였다. 또한 한국 국적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 사회의 국가정체성을 함양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한 연구결과 4장에서는 이주민사업가의 이주 전 경험과 이주 초기의 경험, 현재의 경험, 미래의 계획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이주민사업가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주 전 사업의 경험이 있었던 연구참여자는 4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연구참여자가 4명이었고, 초등학생도 있었다. 이주 형태의 특징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이주한 연구참여자는 1명뿐이었고, 나머지 연구참여자는 이주근로자로 이주한 경우가 4명, 유학생으로 이주는 4명, 관광으로 이주해서 불법체류를 경험하고 이주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 3명, 초등학생이 1명이었다. 연구참여자 13명 중에 12명은 한국으로 이주한 2년~10년 사이에 사업을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다민족 국가에서 이주하였으며,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가족의 이주 배경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는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귀화 전 고국의 초국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업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고국의 언어와 한국어를 포함하여 2~6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단독 이주하였다. 직업은 중고차 수출, 국제 물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 초기부터 현재까지 1~4회까지 체류자격(VISA)을 변경하였으며, 1~2회 국적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초기 학문적 경험은 어학당에서 1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으며 한국어 교육 경험이 없거나 어린이집, 근로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주 초기 전문지식 경험은 유학생으로 이주한 학교, 주변 지인, 또는 혼자 능동적으로 습득하였다. 이주 초기 인적 자본 경험은 한국인으로 부터 차별, 또는 고국 지인을 통한 도움, 한국인의 도움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여러 경험들이 있었다.

사회통합의 대상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모든 이주민으로 사

업 활동을 통해 초국적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현상은 관찰되었지만 이들이 고국으로 영구 귀국하려고 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

정상우(2019)는 사회통합의 기준이나 수준을 국가로 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이주민이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여를 통해 사회통합의 유용한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통합은 수용국, 즉 한국 사회로의 통합이기도 하지만 고국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고국 사회를 포함하는 다중통합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사업 경험은 이주민사업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Esser(2001)의 사회통합모델에서 제시한 문화적응, 지위부여, 상호작용, 동일시와 일체화의 범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문화적응(Kulturation)은 이주민사업가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수용국 사회에 이주한 이주민에게 소중한 기회는 젊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활용하여 사업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전공과 다른 학문 분야에서 언어를 포함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사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수용국 사회에서 언어를 포함한 지식, 문화를 습득하며 상호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동화는 이주민이 적극적인 자기주도학습 성취의 희열을 통해 이를 수 있으며, 한국문화를 수용하여 사회적 요구에 따른 문화적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지식 역량은 다양한 지식과 언어를 포함한 다문화 역량의 제고를 통해 다문화감수성의 함양하게 이르렀고 인적자본을 활용하여 안정감과 함께 다양성까지 존중하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지위부여(Plazierung)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이주민하고 거버넌스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법, 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위치와 매체는 수용국과 이주민의 의사소통의 관계성을 통해 다원화할 수 있으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인 수용을 통하여 수용국하고 이주민의 순응과 적응의 하모니를 이루었으며 이주민이 서로에게 순응하며 다양한 연대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 자본은 수용국과 이주민의 제도적 관계에서 자발적 협력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면 공존의 행복을 나눌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상호작용(Interaktion)은 이주민의 학문 및 전문지식에 대해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네트워크와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가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문화적 자본인 문화자본을 수용국 문화와 모국의 문화를 연대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수용국의 문화에 대한 공감능력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였으며 사회참여의 지역연결망을 이용해 소통을 극대화하였다.

넷째, 사회통합모델에서 동일시 또는 일체화(Identifikation)는 이주민이 수용국 사회의 구성 내에서 일체화를 느끼고 이를 통해 스스로 동일시적 소속감을 갖기 위하여 다중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주국과 고국의 정체성이 아닌 제3의 정체성을 통해 공감하고 상호존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해 수용국의 가치를 내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국적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고자 노력하였으며 수용국 사회의 국가정체성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이주민사업가들이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통합 경험의 생애사적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Esser(2001)의 주제별 사회통합의 생애사적 경험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주민사업가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성에 대한 공감과 공존의 행복을 함께 하며 사회통합에 이를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 6.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이주민사업가들의 생애시기별 사업 경험을 통해 운영의 어려움, 사업의 확장, 미래의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주민사업가들의 사업 경험을 통해 Esser(2001)의 주제별 사회통합 의미를 살펴보았다.

첫째, Esser(2001)는 이주민이 수용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중통합의 대상에 대해 부모의 높은 교육 수준과 동시에 고국 문화와 동시 접촉하는 실질적으로 특수하고 유리한 여건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학자, 외교관, 운동선수, 예술가 등과 같은 환경에서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유형은 사업을 하기 위해 이주한 연구참여자는 1명뿐이었고, 나머지 연구참여자는 이주근로자 체류자격(VISA)으로 이주한 경우가 4명, 유학생 체류자격(VISA)으로 이주는 4명, 관광 목적으로 이주해서 불법체류를 경험하고 이주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 3명, 초등학생이 1명이었다. 연구참여자 13명 중에 12명은 한국으로 이주한 2년~10년 사이에 사업을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이주 유형에 Esser(2001)가 언급한 특수하고 유리한 조건의 이주민은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고국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한국인의 시민의식 또는 정체성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주민의 다중통합은 실질적이고, 특수한 여건에서 가능한 것보다 수용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수용국 사회의 교육 등 전문적인 지식 습득 기회,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 수용국 사회의 가치에 동의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Esser(2001)는 이주 초기 수용국 사회의 언어, 학문, 전문 지식 습득 등 기회가 다양하고 풍부할수록 합법적 권리나 사회적 수용 또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용국 시스템에서 이주 초기에 언어, 전문 지식 습득 등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이주민의 사회적 수용이 늦어질 수 있고, 사회적 관계 맺기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는 자민족 네트워크 집중 또는 기형적인 활성화로 이어져 수용국 사회로의 통합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참여자 13명 중에 유학을 목적으로 이주한 4명을 제외하고 이주근로자, 또는 관광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 회

사에서 욕설이나 차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한국어를 배우지 않거나, 배울 수 있는 센터나 환경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이주 초기 교실 환경에서 문법이나 정확한 발음, 억양 등의 언어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불안정한 언어 환경이 지속되고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화석화로 진행된 경우도 있다. 2000년대 초반 이주민의 유입과 함께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교육 환경이 풍부하게 제공되지 않았던 이유일 수 있다. 이주 초기 한국어 교육, 전문지식 습득 등 역량 강화는 이주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용국은 사회 구성원인 이주민을 위한 언어 교육, 전문지식 습득, 법률 등 제도적 자본 등을 전 생애에 걸쳐 제공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에 이주한 이후 1~5회까지 체류자격(VISA)을 변경하면서 안정적인 체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지위를 포함하는 법적·제도적 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KOTRA에서 기업 간 투자 및 지원과 상담을 위한 ‘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이주민사업가들은 상담 지원에 대해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이주민사업가들의 이주 형태 및 사업유형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상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이주민사업가들은 한국인하고 결혼하지 않은 외국인 가족이다 보니, 사업 활동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한국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었다. 지역사회의 한국인 가정하고 또는 다양한 멘토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이주민사업가 13명 중에 12명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 운영이 시작된 2009년보다 1년 빠른 2008년에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주민사업가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국어는 물론 한국문화를 새롭게 알게 되어 적응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의 법, 역사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역사를 배우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법 제도는 실제 경제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 학기에 1~2회 정도 법교



육, 소비자교육, 금융교육 등 시민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존을 위해서 정규교육 과정 이외에 시민교육의 다양한 과정 편성 및 정규 교육과정으로의 추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섯째, 한국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이주민사업가들에게 체류 등 지위부여 획득을 통한 상호작용 및 동일시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합 조건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이주민사업가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주하였지만 장기적인 체류와 정착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 사회와 원활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시민으로서 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사회적 포용과 합의에 이르는 양방향적인 사회통합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동관(2019). 체류외국인 240만명 시대, 국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 이민정책 방향 모색 반외국인 정서, 그 원인과 대책. 제12주년 세계인의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167-171.
- 강진숙(2016).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교육 연구의 주사위: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지금.
- 강희원(2010). 미국의 소수인종 통합정책 탐색: 교육, 복지,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Vol.10 No.1, 51-71.
- 강희원, 강성철(2010).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거버넌스. 한국정책과 학회보, Vol.14 No.4, 291-316.
- 길강목(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Vol.4 No.2, 139-168.
- 김가운(2019). 사회적 지위가 관광활동의 위계 및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자본론과 옴니보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옥(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배, 권중돈(2005).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 김민정, 신성만(2010).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15 No.4, 711-737.
- 김승민(2013). 프랑스 이민자통합의 실패 원인:프랑스사회 책임 혹은 이민자 책임. 유럽연구, Vol.31 No.1 211-237.
- 김영순, 조영철, 김정희 외(2019). 다문화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 사회통합총서1, 북코리아.
- 김영순(2019). 다문화교육과 협동학습 경험. 북코리아.
- 김영순, 김선정 외(2020). 한국 다문화 사회의 교육과 복지 실천.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455집.
- 김영순(2020). 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과 정체성 협상. 사회통합 총서6, 북코리아.
- 김영순, 조영철, 김정희 외(2019).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 사회통합 총서2, 북코리아.

- 김영순 외(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 김영순(2010). 다문화 사회와 시민교육: '다문화 역량'을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18호, 경기대 인문과학연구소, 33-59.
- 김영천 (2014).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2판. 아카데미프레스: 과주.
- 김이선 외(201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외(2011).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V):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천(2012). 덴마크, 독일 그리고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비교연구. 독일어 문학, 제57집.
- 김준영, 김혜영(2012)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16개 광역 시도별 사회통합 수준 평가. 복지행정논총, Vol.22. No.2, 71-104.
- 김혜련, 임채완(2014).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연구: 상생·소통 모형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Vol.32, No.-[2014], 299-330.
- 김혜련(2014). 한국형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모형 연구 : 재한 중국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순(2011).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 김호연(2011). 미국의 동화주의적 이민자 정책과 다문화주의. 인문과학연구, 제 28집, 247-268.
- 김환학 외(2012).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총서 No 2.
- 김환학(2012). 이민행정부의 구축을 위한 시론. 행정법연구, 제32호,
- 노대명(2009a). 사회통합은 공동목표를 위한 대전제. 미래정책 포커스. 11-12월호, 18-21.
- 노대명(2009b).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Vol.150, No.- 6-19.
- 노대명(2009c).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보건사회연구원, 15~16.
- 노정옥(2012). 한국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라휘문(2011).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한국정책연구. Vol.11, No.1, 43-63.
- 문유경·전기택(2011). 남녀 결혼이주민 사회통합지표 개발연구. 다문화사회정책

- 의 성과와 미래 과제 (총괄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민경국, 신중섭, 현진권(2013).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박기관(2011). 다문화시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안. 한국정책연구 제11권 1호, 193-213.
- 박세훈 외(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1):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박수정·윤채빈·김민규(2011).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17-2호, 113-147.
- 박영준(2013).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그 사례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Vol.0 No.14, 247-273.
- 박영준(2014). 한일의 다문화정책과 그 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Vol.0 No.16, 7-37.
- 박우(2017).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시민(권)적 지위와 계급적 지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지영·손영우(2018).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일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감성과학, 제21권 2호, 43-60.
- 박진경(2012a).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규제정비방안 - 이주노동자 처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2-09.
- 박진경(2012b).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 사회통합 전략: 캐나다 경험과 한국적 모형 검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1, 23-48.
- 박진경, 임동진(2012).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Vol.21 No.2, 123-151.
- 법무부(2017). 2017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워크숍 자료집.
- 법무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법무부(2013).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법무부(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년 4월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 백석인(2008). 스웨덴의 이민자 복지와 사회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 및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스칸디나비아 연구 9권0호, 35-68.
- 설동훈, 김명아(2008).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구용역보고서.

- 설동훈, 이병하(2012). 노르웨이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 민족연구, Vol.0 No.50, 163-180.
- 설동훈·이병하(2013).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 - 네덜란드의 이주민 통합 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1).
- 손병덕(2012). 다문화 사회와 사회통합: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민간기관의 역할.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7 No.-[2012], 67-85.
- 신경립, 고명숙, 공병혜, 김경선, 김미영, 김은하, 노승욱, 노영희, 양진향, 조명옥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중섭(2013). 사회통합과 자유주의: 철학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3, No.3, 7-24.
- 신지원 외(2011). 이민정책 해외사례 연구: 다문화정책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1-06.
- 스티븐카슬 · 마크 J. 밀러(2014).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주)일조각.
- 유철인(1998). 생애사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의 해석. 간호학탐구, 7(1), 186-195.
- 윤건, 박준(2019). 사회통합지수에 관한 연구-지표의 구성, 측정 및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8권3호, 1-36.
- 윤인진(2000).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사회적응의 통합모델.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논총 제18호, 3-32.
- 윤인진(2012). 북한이주민의 문화변용과 사회적응.
- 이성순(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21 No.4.
- 이성순(2011).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39, 179-208.
- 이성순(2013).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에이거와 스트랭의 사회통합 분석틀 적용. 사회과학연구, 24(3), 161-185.
- 이유진(2009). 캐나다의 이민자 통합정책 레짐에 대한 연구: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Vol.2 No.1, 5-187.
- 이재민, 황선영(200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Vol.33 No.- 61-84.
- 이재열(1999). 민족통합에 대한 사회 인류학적 접근; 민족통합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 민족통합연구 1권0호. 111-148.

- 이재열(2006). 한국의 사회통합과 중산층 육성의 과제.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151-180.
- 이정석(2017). 부산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정책연구. 부산발전포럼(163), 120-125.
- 전경옥 외(2013). 2012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측정. MIPEX에 의한 사회통합도 측정 및 재한 외국인 실태조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전경옥, 김현숙(2010). 미국 다문화주의를 통해 본 다문화주의 정치 철학의 딜레마와 한국에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Vol.3 No.1, 5-29.
- 정기선 외(2010).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 이민정책연구원(IOM),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2010-06.
- 정기선 외(2011).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한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방향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외국인청·외국인정책본부. 2011 법무부 용역보고서.
- 정기선(2011). 한국이민정책의 이해.
- 정기선(2012). 2012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정상우(2016).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을 위한 조례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 정영경(2018).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이 다문화 교수효능감을 매개로 교사-다문화가정 학부모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태(2009). 서구다문화사회의 국제이주민 정책과 실태. 한국학연구, 제20집, 311-374.
- 정영태(2014).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주민 유형별 합리적 지원기준 개발 및 부처 간 협업.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 정재각(2011). 독일의 이주정책과 사회통합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3, 79-106.
- 정천석, 강기정(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Vol.13 No.1 5-23.
- 조세현, 김우선(2013). 사회안전 제고를 위한 거주 외국인 사회통합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조항록(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실제와 과제. 다문화와 평화, Vol.5 No.2, 5-31.

- 조형규, 윤홍식(2017). 복지체제와 이주민의 사회통합정책 비교연구. 비관사회 정책, Vol. No.57, 77-116.
- 차미숙 외(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2011-35-1.
- 차용호(2009).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의 관계성 및 연계 방안 연구: 결혼이주민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3(1), 165-200.
- 차용호(2015). 한국이민법. 법문사.
- 최동주(2009). 영국의 이민 관련 제도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다문화 사회연구, Vol.2 No.1, 93-133.
- 최연선(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임상사회사업연구, Vol.6 No.3[2009].
- 최현실(2009).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통합 정책 연구: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 사회에 적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 35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1.
- 허준영(2012).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1호(2012 봄) : 265~287.
- 황미혜(2012).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택환(2019).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통한 이민정책 사례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적법」.

「민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두산백과사전(2020).

위키백과(2020).



- A. Ager and A. Strang(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21(2), 166-191.
- Anmueller, Jutta(2009). *Assimilation, Kontroversen um ein migrationspolitisches Konzept*. Bielefeld: transcript verlag.
- Ashfort, B. E. & Meal, F.,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4, No.1, 20-39.
- Blau, P. M., & Duncan, O. D.(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 Barker, R. L.(1995). *The Social Work dictionary*. 3<sup>rd</sup> ed. Washington, DC: NASW Press.
- Bates, Timothy(1985). *Entrepreneur Human Capital Endowments and Minority Business Viabilit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20, No.4 540-554.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Guilford Press.
- Berger, J., Rosenholtz, S. J., & Zelditch, M. (1980). Status organiz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6, 479-508.
- Berry, J. W. Sam, D. L.(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291-326. in J. W. Berry, M. H. Sega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2nded).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Berry, J & Kim, U., T. Mok. D.(1988).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09.
- Berry, J.W. & Kim, U. C.(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In Dasen, P.R.,Berry, J. W., Sartorius, N.(ED). Newbury Park, Sage.
- Castles and Miller(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rden Work*, 3, New York, Guilford Press, pp.171~201.
- Chen, G. M., Starosta, W. J(1999).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Awareness*. *Human Communication*, 2. 27-54.
- Creswell, J. W. (199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조



- 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2).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 Creswell, J. W. (2005).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2n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age.
- Creswell, J. W. (2011).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2nd ed.).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Creswell, J. W. (201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공역.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Denzin, N. K. (1989). Interpretive biography. CA: Sage.
- Erll, A., & Gymnich, M. (2010). Interkulturelle Kompetenzen: erfolgreich Kommunizieren zwischen den Kulturgart, Germany: Klett Lerntraining. Erwagen, Wissen Ethik, 14(1), 137-221.
- Esping-Andersen(2016).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박시종 역. 서울: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Esser, Hartmut(2001). Integration und ethnische Schichtung. Arbeitspapiere Nr. 40, Mannheim: Mannheimer Zentrum fuer Europaeische Sozialforschung.
- Esser, Hartmut(2004a). Was ist denn dran am Begriff der "Leitkultur"? Angewandte Soziologie. Wiesbaden: VS Verlag fuer Sozialwissenschaft. S. 199-214.
- Esser, Hartmut(2004b): Welche Alternativen zur "Assimilation" gibt es eigentlich? in Bade, Klaus/Bommers, Michael (Hrsg.): Migration-Intergration-Bildung. Grundfragen und Problembereiche IMIS-Beitraege, Heft 23, Osnabrueck: Institut fuer Migrationsforschung und Interkulturelle Studien, S 41~59.
- Esser, Hartmut(2006). Sprache und Integration. Die Sozialen Bedingungen und Folgen des Spracherwerbs von Migranten Frankfurt am Main: Campus Verlag.
- Esser, Hartmut(2008a). Assimilation, ethnische Schichtung oder selektive Akkulturation? Neue Theorien der Eingliederung von Migranten und

- das Modell der intergenerationalen Integration, Sonderheft 48. Wiesbaden: Vs Verlag fuer Sozialwissenschaften, S. 81-107.
- European Union(2004).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 European Union(2018). Special Eurobarometer 469.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
- Galtung, J. (1973). The European Community: A Superpower in the Making. London: George Allen & Unwin.
- Ghoshen, B. A., (1991). Special environment and social adaptation in Japan—a traveler's perspective, *Focus*. 41(4), 19-22.
- Giddens, A. (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 Gordon, Milton.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uba, E. G., and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 Bass. & Lincoln.
- Hauser, R. M., & Warren, J. R. (1997). Socioeconomic indexes for occupations: A review, update, and critique. *Sociological Methodology*, 27(1), 177-298.
- Hoselitz, Bert F(1963). *Entrepreneurship and Traditional Elites. 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Ser. 2, No.1* 10-36.
- Janikowski, Andras.(1999). *Berufliche Integration von Aussiedlern und Aussiedlerinnen: Eine empirische Analyse der Arbeitsbiographien*. Verlag Dr. Kovac.
- Kreck, R.(1999).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In: J. T. Marcus(ed).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Social Philosophy from the Frankfurt School to the Columbia Faculty Seminar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Leary, M. R., Jongman-Sereno, K. P., & Diebels, K. J.(2014). The pursuit of status: A self-representational perspective on the quest for social value. In Cheng, J. T., Tracy, J. L., & Anderson, C. (Eds), *The Psychology of Social Status*, 159-178.
- Luhmann, N. (1979), *Trust and Power*. New York : John Wiley & Sons.
- Maik Grote(2011). *Integration von Zuwanderern: Die Assimilationstheorie von Hartmut Esser und die Multikulturalismustheorie von Seyla*

- Benhabib im Vergleich. Universität Bremen MIGREMUS.
- Magee, J. C., & Galinsky, A. D. (2008). Social hierarchy: The self-reinforcing nature of power and status.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2, 351–398. DOI: 10.5465/19416520802211628.
- Martinelli, Alberto(1994).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in *The Handbook of Economic Sociology*, edited by, Neil J. Smelser and Richard Swedber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476–503.
- Oberg, K.(1960). Culture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e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ist*, 7(1), 170–182.
- Ojermark, A. (2007). Presenting life histories: A literature review and annotated bibliography. Chronic Poverty Research Center, CPRC working paper 101.
- Powers, C. H(1981). *Power and Principles of Social Integration*. Ann Arbor, MI: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 Rosso, B. D., Dekas, K. H., & Wrzesniewski, A. (2010). On the meaning of work: A theoretical integration and review.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30, 91–127. DOI: 10.1016/J.riob.2010.09.001.
- Sam, D. L. & Berry, J. W. (2010). Acculturation when individuals and group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mee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4): 472–481.
- Searle, W. & Ward, C.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 Snibbe, A. C., & Markus, H. R. (2005).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educational attainment, agency, and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703–720.
- Strauss, A. & Co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 York: SAGE Publication, Inc.
- Szeleny, Ivan(1988). Socialist Entrepreneurs: Embourgeoisement in Rural Hungary, *International Affairs*, Vol.3, 558–559.
- Tibi, Bassam (1998). *Europa ohne Identität? Die Krise d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München: C. Bertelsmann Verlag.

- Yin, R. K. (1994). Discovering the future of the case study method in evaluation research. *Evaluation Practice*, 15, 283-290.
-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Yin, R. K. (2005). *Introducing the world of education: A case study reader*. Thousand Oaks, CA: Sage.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Yin, R. K. (2016).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신경식·서아영·송민채 역, 사례연구방법. 서울:한경사.

국민대통합위원회(<http://18pcnc.pa.go.kr/main.do>)(2020).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2020). 사증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행정안전부(<http://www.mogef.go.kr>).

국민일보(2019). 2019.01.20., 연간 1조 4000억원 규모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합법화 대책 필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03901&code=61122012&cp=nv>

브릿지경제(2020). 2020.02.04., 인천 지난해 중고차 42만대 수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기록,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204010001206>,

오마이뉴스, 2017.09.13., ‘방향지시등’을 켜는데, 왜 ‘와이퍼’가 작동할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35956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35956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부록 1>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연구 제목	재한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사례연구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 허숙(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수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공동연구자 - 김영순(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p>본 연구자는 귀하에게 [재한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사례연구]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설명문은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의 내용, 위험(불편감), 이익, 귀하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궁금한 점이나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p> <p>본 연구는 2016년 11월부터 문헌자료를 통한 선행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 6월2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사업가를 대상으로 사례연구(Case Study)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분께 1주일 전에 전화나 메일로 방문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발송할 것이며, 개인별 1회 1시간~1시간30분 정도, 4회~5회 정도 진행할 것입니다. 면담 진행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편하게 면담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이용하며,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문 시간을 연구참여자가 정할 수 있게 합니다.</p> <p>연구참여자는 국내에서 7년 이상 체류하고 있고, 한국어능력 중급 이상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주민사업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고 있고, 사무실 및 거주지를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위험(불편감)이나, 이익, 자료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구참여에 불편을 느끼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참여를 즉시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중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층면담시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시간과 장소는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연구참여자가 최대한 자유롭고 편안하게 면담에 참여할 수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p> <p>심층면담은 개방형 질문을 진행할 것이고, 내용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 이주 전 고국에서의 경험, 이주 초기, 현재에 대한 질문, 그리고 미래 계획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면담 시 사례는 1회당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을 사례할 것입니다. 면담 진행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편하게 면담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이용하며,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문시간을 참여자가 정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면담 시에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기록과 녹취를 병행할 것입니다.</p>	

<부록 1>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연구 제목	재한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사례연구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 허숙(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수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공동연구자 - 김영순(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b>인터뷰 질문지</b>	
구분	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 이주민사업가의 일반적인 사항(연령, 학력, 성별, 활동 분야, 가족 등)
이주 전	- 고향에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주 초기	-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 한국에 와서 도움을 받은 지원(단체.개인)이 있었습니까? - 지원(단체, 개인)을 받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 한국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현재	- 한국에서 도움을 받은 지원(단체.개인)이 있었습니까? - 지원(단체, 개인)을 받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	- 한국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 삶의 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부록 1>

<b>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b>			
연구 제목	제한 이주민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사례연구		
연구자 정보	연구책임자 - 허숙(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수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공동연구자 - 김영순(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p>본 연구에 참여하실 경우 예상되는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시간에 대해 부분적 할애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담을 진행하는 시간과 장소는 귀하의 편의에 맞추어 귀하의 회사 등에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대한 귀하가 원하시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담에 응하실 때마다 소정의 사례(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p> <p>본 연구의 참여는 귀하의 자의에 의한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자의에 의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고, 연구 참여 동의서 또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p> <p>본 연구를 위해서 귀하의 면담 내용과 개인정보 등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귀하의 정보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밀 보장됩니다. 면담 자료로 녹취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다.</p> <p>본 기관에 연락하실 경우에는 연구자에게(24시간 연락 가능(T. 전화번호)), 연구참여자의 안녕 및 권익에 대한 문의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T. 032-860-915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p> <p>연구책임자 - 허숙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수료/ 전화번호(24시간 연락 가능)/ 이메일 주소) 공동연구자 - 김영순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032-860-9158 / e-mail : irbedu@inha.ac.kr</p> <p>본 연구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된 동의서 1부는 연구자가 보관하고, 1부는 연구참여자에게 드립니다. 귀하께서 연구참여에 동의한다면 아래 부분에 서명을 하십시오.</p>			
연구참여자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자 성명	서명	서명일	



## ABSTRACT

# A Case Study on the Social Integration Experience of Migrant Businessmen in Korea : Focused on Life History Approach

Heo, S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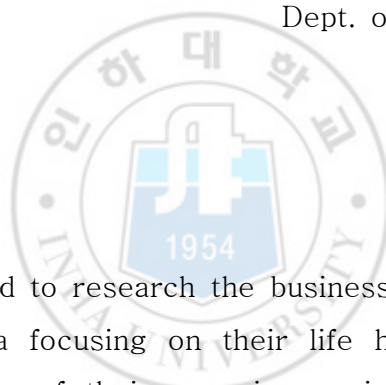
Ph. 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Kim, Youngsoon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August, 2020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the business experiences of migrant businessmen in Korea focusing on their life history approach and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ir experiences in Korea, through which, policies and assignments to compensate their actual difficulties will be presented.

For this, precedent studies on migrant businessmen are reviewed, and literature on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re investigated to analyze social integration models along with the models' factors and elements. Especially,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suggested by Esser(2001) and its characteristics are specifically researched, and an analysis frame of social integration is presented.

Regarding the research method, the case study of the life history approach, which is on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s used to analyze the business experiences of migrant businessmen. For the case

study of the life history approach, the experiences of migrant businessmen are analyzed at each life stage, 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cases are also investigated. Migrant businessmen who stayed in Korea over seven years and have more than three years of business experiences are selected a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The data collection was done after the institutional approval(No. 170519-1A) was acquired from Ethics Commission of Inha University. Before the data collection, the participants submitted the agreement with maximized considera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cipants. For the data collection, in depth interviews were implemented as the qualitative research, and five times of interviews were done on each participant. All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which were divided by life history. The contents of their interviews are described in Chapter 4, and the meaning of their social integration experiences are in Chapter 5.

The life experiences of the migrant businessmen are classified into four stages; before coming to Korea, early stage in Korea, present situation and future plan.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were high school students before they moved to Korea, which indicates the period of immigration is around 19 years old. Before coming to Korea, they or their family members engaged in business or prepared for employment. While five participants had no migration experience of family, eight participants had experience of migrating as whole family. The period of family migration is mostly in mid or late 1940s when their grandfathers or fathers were young for political and social reasons such as war and religion, or for the purpose of studying. The 13 participants' countries are multiracial nations, and they use official language and ethnic language. For this reason, the participants use two to six languages including Korean.

Regarding their ethnic backgrounds, three participants from China are

Han Chinese, who are the majority of China, and three from Jordan are Arabic, who account for approximately 98% of Jordan population. One from Vietnam is Kinh Vietnamese, who account for 87% of Vietnamese population. Two from Pakistan are Punjabi, the majority of Pakistani, and one is Pashtun, whose grandfather migrated from Afghanistan to Pakistan. Three from Kyrgyzstan are the Uzbeks, who account for 13.9% of population of Kyrgyzstan where Kirghese account for 64.9% of population.

Regarding the migration pattern, 12 participants immigrated solely except one from Kyrgyzstan who migrated with parents. One from Vietnam is not married, but 12 of them live with family in Korea through marriage or family reunion. Regarding their religion, nine of them are Muslims, three from China do not have religion, and one from Vietnam is a Buddhist.

One participant from Vietnam has stayed in Korea for nine years, and 12 participants have stayed for over 10 years, among which, two have stayed in Korea for over 20 years.

The number of participants who finished high school before coming to Korea is 10, one participant finished college, one finished middle school, and one finished elementary school before coming to Korea. Three participants from China who came to Korea for the purpose of studying have changes in their education background as they graduated from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but others do not have changes in their education background because they immigrated to Korea for business or employment. Nine participants are engaging in export and import of used cars, three of participants from China are doing international logistics business, and the rest three run restaurants.

The participants have changed their VISAs once to four times since they immigrated, and 10 of them have experience of applying for naturalization. Among them, three Pakistanis, one Chinese and one

Jordanian acquired Korean citizenships. Two from China and one from Vietnam said they do not have plan for naturalization.

Some participants received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a language school for one year when they first came to Korea as social integration Kulturation of Esser(2001), and others never received Korean language education. Some received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a daycare center or migrant workers' center.

They acquired professional knowledge experiences through schools, acquaintances or self-learning. Some gained knowledge on business activities smoothly with the help of acquaintances of father who moved here for business. Some have difficulties in working in companies as illegal immigrants because they entered Korea for travel purpose(C-3), and others obtained professional knowledge by visiting centers for migrant business start-up.

Regarding human resources experiences, they had various types of experiences before they started business such as discrimination from Koreans, helps of home country's acquaintances and helps of Koreans.

The legal right experience, which can be considered as 'positioning(Plazierung)', includes cases of having difficulties during the process of extending stay as an immigrant and right experience of solving fraud problems.

Regarding the social position experiences, they tried to secure social status through various media in case business scope is expanded as they change their VISA status by participating in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Regarding the social acceptance experiences, they secure their status as members of the host country through the smoothness of social network with close merchants and due to business activities and through the interpretation support for business activity.

Regarding economic, institutional and political capital, they feel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capital due to fraud, betrayal and embezzlement and use the institutional capital while engaging in business activities.

Regarding the social network experience, which is considered as interaction(Interaktion), they are satisfied with various experiences of networks with employees and clients in the business activities of Korea, which is the host country, the networks organized among regions and areas, and the interaction with local community.

Regarding the cultural capital experience, they show the richness of cultural capital such as business partners and company's employees, cultural capital formation of religion and homeland, and various cultural capital experiences in the host country.

Regarding the social capital experience, they are satisfied with social opportunities such as clients, companies and buyers and various capitals with local communities, form transnational social capital and try to form social capital constantly.

The self-awareness experience, which is considered as Identification(Identifikation), includes the experience of having identity as Korean as they got married to Koreans, the experience of not changing identity despite the change of nationality, and those who genuinely like Korea beyond the nationality.

The civic consciousness includes the experience of agreeing to the values of Korean society, unfamiliarity of homeland's institution because they get used to Korean law and order, the premise that they can have different nationality from their fathers, and those who want to volunteer in Korea.

The sense of belonging includes the experience of the desire to live in Korea until they die, the identity as a Korean since 8 years old when he or she first came to Korea, and the identity that Korea is the second hometown even after he or she dies.

The targets of social integration can be all immigrants who stay and

intend to settle in Korea.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show the phenomenon to expand transnational networks through business activities, but the cases they try to go back to their homeland permanently are not observed. The social integration is the integration to the host country, or Korean society, but it can be a transnational concept that covers their homeland societies if they constantly do transnational network activities. In other words, the social integration can be understood as multi-integration that includes simultaneous sense of belonging or identity for both their homelands and the host country instead of one-sided integration to the host country. There should be continuous discussion on this.

In Chapter 5, the social integration experiences of migrant businessmen are analyzed with the categories presented in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of Esser(2001), and the following results are deduced. First in the concept of enculturation(Kulturation), the Korean society provides the opportunity to learn for migrant businessmen, and this valuable opportunity to learn turns to the opportunity to acquire knowledge and ability of business with the use of their youth and the chance to choose. Those migrant businessmen who came to Korea for the purpose of studying could learn knowledge in their majors and other academic fields including language. The migrant businessmen could develop their mutual cultural ability by participating in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in order to learn culture and knowledge including language in the Korean society as efforts for their business. They also could accomplish enculturation according to the social demands by accepting Korean culture. In the aspect of professional knowledge ability, they could cultivate multicultural sensitivity by promoting multicultural competence including various types of knowledge and language, and they could have opportunity to respect diversity along with sense of stability by using human capital.

Second, in the positioning(Plazierung),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function as governance communication, and there are efforts for improvement and reform of laws and institutions. The social status and media could diversify the relationships on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society and migrant businessmen, maintaining continuous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harmony of adaptation and adjustment between Korea and migrant businessmen could be done through social acceptance, and the migrant businessmen try to activate various types of solidarity while conforming with each other. Regarding economic · institutional · political capital, the happiness of coexistence is accomplished as the diversity is respected through voluntary cooperation in the economic · institutional relations of Korea and migrant businessmen.

Third, in interaction(Interaktion), Korea and migrant businessmen present the direction to follow through mutual interaction about studies and professional knowledge. To sustain this relationship, the maximum mutual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all networks of local community are maintained. In addition, they maintain interaction by forming win-win governance with local community, and try to be in unity between Korean culture and homeland culture through cultural capital. Especially, they share the empathic ability for Korean culture, promote the equality of opportunity using social capital, and maximize social contribut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use of social participation and local networks.

Fourth, in the identification(Identifikation), migrant businessmen feel unity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through which, they form multiple identities in order to have the identificatory sense of belonging by themselves. In addition, they emphasize through the third identity instead of Korean or homeland identity, and form mutual respect. They also internalize the value of Korea to become a Korean citizen. They have sense of belonging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through Korean



nationality, and try to cultivate the national identity of Korean society.

As shown abov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spects of Esser(2001)'s social integration of each subject through business experiences to expand business while migrant businessmen settle stably with the opportunity of business in Korea. This study is expected to become a foundation for migrant businessmen from the global competitive society to enter Korean society, form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and accomplish social integration in Korean society.

**Keywords** : Migrant businessmen in Korea, Social Integration, KIIP(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Case study focused on life history approach

